

MAXIM



KOREA

2011 MAXIM BEER GUIDE

SEX

Spank¹ [spæŋk]:
엉덩이를 찰싹 때리다

MOTOR

모닝 vs 스파크 Round 3
수컷 MINI, 컨트리맨
Nissan 370z
Nissan Rogue⁺

DIGITAL

야심차게 나왔다가
비참하게 멸망한
상반기 4대 졸작

2011년 6월호
정가 5,400원

GAME
디아블로 III

GIRLS
닥터, 닥터, FEEL GOOD
라니아

용감한 형제의 비밀병기
브레이브 걸스

독자가 뽑은
**1st MISS
MAXIM**

Michelle
미드 <가십걸>의 악녀 조지나
MICHELLE TRACHTENBERG

CLUB
SO HOT!
MAXIM PARTY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FX
남자의 모든 것



WWE
OVER THE LIMIT
6월 11일 [토] 밤 10시



FX채널 맛보고
과월호 받기

tcast

FX channel

SCREEN

FX on X

Cine

FX

FX 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DEPARTMENTS

CONTENTS

12 CIRCUS MAXIMUS

MAXIM 독자 투표 1위 레이스 모델 한기은, 흥가 채원 기이 드, 소녀시대 사식 소강, 숫자로 본 6·25, 울어올 휴기는 어디로 갈지, 똥 마라올 때 어떻게 할지 MAXIMI 알려준다.

33 RATED

남자의 영화 (삼국지 명장 관우)와 이달의 영화 총량성식 (오래라스타)의 최종 승자 테이&앤섬 파플, 디아블로3 이모자모, 군미 팔자 음반 BEST 3, 일일 연극

40 MUSIC

그동안 너무 무시하고 있던 남자의 변신, 그것은 무죄!

42 24 HOURS TO LIVE: 김자수

생선만 후에 죽어도 제1호는 드라즈 형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슈스케이2 김자수의 불꽃 의지

44 STUFF

MAXIMI 뽑은 2011년 상반기 최고의(?) 명작 스페셜, 스마트한 밀리터리 제품 총집합, 무선 넷워킹으로 대동단결하는 법

57 MOTOR

뉴욕 오토쇼의 별볼비, 기아 모닝과 쉐보레 스파크 비교 구매기 제 3판, MINI컨트리맨 시승기, NISSAN과 함께하는 370Z와 ROGUE의 추격전, 시판 차량 리스트, 솔라카드 무료 팀팅 이벤트

140 IN DA CLUB

한복, 기모노, 치미오가 난무한 오리엔탈 콘서트 파티와 하드코어 간호사 콘서트 파티, 과연 어느 쪽이 더 뜨거운가?

120 STYLE

여행을 일으키고 있는 2011 선글라스, 호텔 수영장에서 만난 이상한 두 남녀, 여름을 위한 타이, 피사이에 생겨 가자 할 화장품, 데님과 언더웨어의 궁합, 월드 DJ 페스티벌 잔디밭을 누빈 운동화

94 브레이브 걸스

용감한 형제가 내놓은 용녀(선우 용녀 말고)들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질 준비 됐니? 빠지고 나면 약도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 잊지 마라.



58



28



38



44

FUN 한
영화를
즐거라

Real 4D
이어폰!

진동으로 즐기는 신개념 4D 이어폰
Real4D earFUN과 함께라면 진짜영화가 된다!



아이리나 김여희



스캔하고 80s1m
선물 받자!



80S1M



(주)에코셸 www.echo-shell.com
1588-9439



Ready. Set. Go!

오직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하여 닛산 370Z

370Z

SHIFT_the way you move



333마력 VQ37VHR 엔진 | 수동모드를 지원하는 7단 자동변속기와 패들시프트 | 주행성을 극대화한 가법고 견고한 차체 | 근육질의 육상선수를 닮은 공기역학적 디자인 | 8-way Bose® 오디오 시스템
강남 JI 모터스 02-519-9999 | 분당 SK 네트웍스 080-770-7900 | 서초 한미 오토모티브 02-523-6400 | 인천 한미 오토모티브 032-463-6400 | 울산 한미 오토모티브 031-402-5600 | 부산 퍼시픽 모터스 051-780-2300
고객지원센터 : 080-010-2323 차종명 : 닛산 370Z (연료 : 프리미엄 휘발유 / 배기량 : 3,696cc / 공차중량 : 1,545kg / 변속기 : 7단 자동변속기 / 연비 : 9.6 / 등급 : 4 / CO₂ 배출량 : 243g/km)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에 따라 실주행 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www.nissan.co.kr

LETTER FROM MAXIM

남자

다리를 달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긴장 속에 6월호 마지막 작업을 하던 편집부 직원들이 지난 일요일 오후 7시 30분쯤 술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가수다) 할 시간이었다. MBC로 채널을 돌려주니 모두 시시시 한쪽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눈을 바고 귀를 쫓으 세우더니 닷 놓고 BMK와 김연우의 완벽한 가창력에 빠져들었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수의 굉장한 팬이지만 가장 궁금해하고 기다리던 무대는 일재범의 것이었다.

그 지난 주 방송에서 '나만 가수다' 일재범이 거대한 복을 차는 아버지과 유자범 배우 차치연과 함께 장식한 남자의 '빈' 잔 이 잔잔 잔은 굉장했다. 욕 섞인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야, 사.너, 잔.나 아니다." 가창력 때문은 아니다. 가창력이야 다른 가수도 '잔.나 아니다.' 하지만 일재범이 노래 도입부에서 들려준 기이한 분위기의 낮은 음성과 목이 찢어질라 부르는 처절한 '빈' 잔은 마치 "씨발, 내가 오늘 죽어도 이 잔 하고 죽어야겠다" 라고 외치는 듯했다. 어떤 이는 그의 변한 음색에서 세월의 아슬함과 인생의 무게를 언급하며 안타까웠다. 하지만 코너에 올린 남자의 악다구니가 아니라 공수 없이 정직하고 강렬한, 그리고 묵직한 작곡분수 같은 그의 무대는 기존의 아이돌들만 아이돌 음악이 집결한 썬 밴드니, 중성이나, 카운트다운이나 하는 것에 떠밀려 사라진 '진짜 남자'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다. 진짜 남자, 진짜 그리웠다.

MAXIM은 지난 2월호부터 'Bad Guy's Bike' 이란 말을 집자에 붙이기 시작했다. 전말. 외모를 꾸미는 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메트로섹슈얼, 아리아리한 초상남과 꽃미남이 된 차는 세상이 '나쁜 남자의 교본' 을 지쳐 하고 나선 MAXIM. 빈 소리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천하의 나쁜 짓을 자처하고 여자를 울리고 때리고, 제 멋대로 켜만 놓는 걸 조장하는 건 아니다. 크로오언 예에 '똥물 새끼의 교본' 이라고 했잖지 앞서 말한 대로 섹슈얼과 젤남이 '나쁜 남자'의 반대말이라는 것도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 '나쁜' 이라는 표현은 MAXIM 이 추구하는 남성성인 '진짜 남자'도 남자'를 으뜸의 부드러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해 쓴 표현이다.

그 진짜 남자는 그럼 뭐? 장식 없이 담백한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자신이 이루어 할 명분을 위해 '오늘 죽어도 씨발, 내가 이 잔 하고 만다' 하는 생각으로 거침없이 담백 줄 알고, 시랑 앞에서 그놈의 자기도 밀당 없이 '좋다' 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 여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미묘적인 담담함이 있는가 하면, (서유가-선리 가면) 미차과 장면의 손오공처럼 자신이 사랑했던 지한선자를 지분보의 품에 안겨두고 미련 없이 돌아선다. 거칠고, 거침 없고, 대담하고, 담백하다.

오즘처럼 온갖 풀과 가시, 덕목과 조건을 요구하는 압습한 세상에서 시대적으로야 어쩌면 환영받지 못하는 캐릭터일지도. 무식할 정도로 작곡 공부만 하는 투수는 흥분을 갖기 좋다. 하지만 그 결과까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담백한 가세정하지 않은 남성성이야말로 부드롭고 연한 안심 스테이크 같은 남자가 되길 강제로 요구하는 이젠, MAXIM이 추구하는 남자의 모습이다.

그러는 이번 6월호에는 편집부 에디터들이 머리를 모아 '진짜 남자의 영화' 에 대해 이야기하고, 과정중 코믹 연기로 각인된 중년 배우 이병준의 귀은 팔복과 '진짜' 남성성을 사전에 담았다. 제목 화보엔 날렵한 메탈과 하 이글루사로 장식된 시트트 가가이 아닌 밀리터리 가미를 소개했다. 남자의 로망인 헬기 스코프조키와 굵직한 SUV를 정전대결시켰다. 음악 칼럼에서는 지, 풀하는 대로 변신해온 남자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 담았다. 앞으로로 MAXIM 이 추구하는 진짜 남자의 모습을 화보와 기사로 담을 것을 약속한다. 수컷은 수컷이워야 재미 맛 아니겠나? (수소는 가세해야 육질이 연해진다니 그건 열외로 하자. 응? 응?)

MAXIM 독자들은 진짜 수컷 냄새 물씬 나는 골한 Bad Guy로 멋있게 살길 바란다. 여자를 품을 줄은 모르고, 자기 욕정 풀렸다고 여자 어깨나 누를 줄인 이는 공명이 들추는, 정말 아니잖아?



진짜 남자의 집지 편집장

이영비

편집장이 뽐냈다!

이달 나를 울린 애독자

5월호 피트니스 카모라 기사 QR 코드에 달린 댓글이 심금을 울렸다. 해당 QR 코드에는 카모라 동자를 배우는 보통 학습이 있었다.



ID **마징가** 이거 보고 따라 하러 밑집 올라 갔다. 쨌냐! (작성일 2011-5-08)

ID **전환차(호랑이)** 따라 하러 자빠릴 하고 아킬레스 나가서 입원했다. 심라, 전 지 10주... 그래도 맥스는 못 갠졌 켜 ㅋㅋ (작성일 2011-5-15)

각각 아이비절과 스승의 날을 MAXIM 때문에 너무 예쁘하게 보내서! 치열한 최후를 맞이한 두 독자에게는 감사와 위로의 뜻으로 선물을 투척했다. 지난 1년간 발행한 MAXIM 과월호 중 권하는 것 2권과 에디터 애정용 선물 보낸 데니 잘 읽어봐 줘. 너무 부러워할 건 없다. 그 애정 풀이 뭐가 필자는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이달의 외곽 독자



지난 5월호 MAXIM은 유래 없는 '집지 제팬' 을 해야 했다. 결성대의 인기는 대단했다. 만이와 유우, 두 작가 다른 카피를 전역에 배포하고 해 리, 자체 소신문을 각각 100부 한정판으로 제작 하여 판매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기 때문 이다. 태극 일보. 멀리 미국에서도 한정판만 사 는 외국인이 많았다. 한국 MAXIM의 열렬 팬이 자 미확인 장기구독자인 뉴요커 제이슨도 그 중 하나다. 그가 "저게가 가장 예쁘다" 는 내용을 6월호 라.아. 브래드브릿츠 화보에 대한 기대 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데뷔 직후부터 그가 섭외를 중용한 라.아 화보에 특히 관심이 많았 다. 소문대로 라.아 사진을 전독 가졌는데 맘 에 드나? 응? 응? 양기려후?



스마트폰으로
사면 보내기

당첨 내

자신들 (S) 앨범 소개 부분 중 '영성 나는 기사' 라는 표현은 지나쳤나. (S)는 아이돌 신에서도 굉장히 실력적인 그룹이다. 외국 곡을 편곡하여 해외 트렌드를 접목하려 했고 이를 난해한 가사로 포장했다. 문제의 가사는, 좁게는 (S)의 음악 스타일을 따르고 있고 넓게는 SM식 은유의 연정선 상에 있다. 친근일뿐인 사랑 타령이나 이별 가사보다는 (S)의 심할 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싶다. 조금만 세심하게 가사를 이해하려했다면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 있었나싶은 에디터의 일은 감상이 안타깝... 은 웨이크고 (S)까지 마이어... _ _ _ _ _ 설계용 X
* P.S. (S) 앨범 절대 아닙니다.
이현숙, e-mail 사연

일흔 감성으로 (S)를 선택할 뻔하게 되 сожал합니다.는 웨이크고 거대 아기 살리 보던 역시 빅토리아 X 짜임이 뭘
* P.S. 앨범 반사요. - 에디터 김피 -



내가 뛰어들

MAXIM 되찾기

마누라님 물대 맥심을 사보다가 걸려서 모이던 맥심을 전부 뺏겼소. 잠리 테크노. 이벤트하는 법 등 유익한 정보가 철철 넘치는데도 그 가치를 몰라주는 듯하오. 부디 맥심의 정성을 마누라님께 알리는 좋은 방법이 없겠소? 무명씨, 스마트폰 댓글
물 물대 보내요? 송기지 말고 당당히 보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강-약-중-강-약-강-강-강으로 시원하게 사비 스텝하십시오. 미분들이 한 4년 정구득을 끌어올려 줘야.

차를 사겠어!

여름 맥심 사슴과 맥심에서 준 (스피드) 책을 통해 정통 언하를 벗어나



차량 친해져야
갔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데에 학회를 가서 현지 맥심을 샀습니다. 근대 알맹이 가너무 부실해서 역시 한국 맥심만 한 게 없습니다! Tim, e-mail 사연

MAXIM MOTOR 색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군요! 사정면 보고 계시죠? 독자님이 산 미국판의 표지 모델 또한 (문노의 질주) 여주인공입니다. 오빠, 달래

왜 난 박?

지난 호에 있는 '주말에 뭐할까?' (1) 했었다. 할 일 없을 때 뭐할지 정해두는 놀이만 같은 거. 근대 왜 나는 계속 스타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 나에게 좌절감 안겨줬어 미워
봉구, e-mail 사연

아이고, 집에서 최고급 티슈와 함께 주말을 보내려는 결심에 불확한 에디터도 있는걸요. (0)와 귀를 쓴 잠란이 (0)였다?



주말에 DOR 한 걸?

MAXIM 아이패드는 만들고 있는 거요?

수년전 MAXIM을 장구득 해오다 MAXIM 아이패드 버전이 나온 걸 보고 아이패드 질렀소. 진짜 아이패드 산 이유의 7%는 MAXIM 때문이란 말이오! 근대 어찌된 게 3월호에서 계속 멈춰있소. 하다 귀찮아 잠자코 있 거요? 아니면 한참 뒤 되돌아올 때 뭐가 지독하두고 있는 거요? 이번 달에 결국 MAXIM 잡지책 버전을 사고 싶었소. 이게 뭐 하는 꼴이오? 아이패드를 산 지 한달 만에 다시 잡지책을 사게 만들다니? 죽고 싶소?

박천욱, 흠메이지 기사만

죄송합니다. 사실 이미 한창 전에 MAXIM 아이패드 버전 4월호, 5월호를 완성해서 엘스토어에 올리려고 강수를 거리고 있습니다. 근대 이 놀이 예물은 무려 50일 전에 제출한 4월호 MAXIM을 아직도 승인해주지 않고 있었소. 저희도 이질 지렁이입니다. 한 달째 '김도' 고리는

메시지만 떠 있습니다. 아무리 매일을 보내도 답이 없고. 독자님이 MAXIM 때문에 아이패드 샀다는 사연을 접스가 알리아 할 텐데요. 영어로 써서 보냈으면 저희가 알겠게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아이패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애를 들부사하겠습니다.

키가 동지루



영현이, 친구는 가려 사구라고 배웠거든요!

걸스데이에 흑해 맥심을 사게 된 20대 초반의 애똥독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간혹학과 남학생으로, 683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비에 사들리고 있습니다. 68을 3으로 나누면 일주 20여 명의 여자기 제게에 떨어져야 하지요? 제 지분인 20여 명 중 '영아'도 어떻게 좀 안 될까하는 마음에 이인지리 데이도 많이 했습니다. 나름 생김 것도 괜찮고 말주변과 유머 감각도 있고 예도 버려서 연하우물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메누남으로 이미 그 명성은 높네요. 이는 높은 철없는 학우들은 170cm 초반인 본인 키가 심히 신장이 쓰였는지 들어대는 족족 저를 추궁공마냥 차버리시 일주었습니다. 남자는 역시 키가 중요한 것입니까? 주니아미안해, e-mail 사연

'너를 생긴 것도 괜찮고 말주변과 유머 감각도 있고 예도 버려서 연하우물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메누남으로 이미 그 명성은 높다고 자화자찬하는 데다가 이리저리 물어다끼지 했던 남자가 추궁이 아닌 설날 재가복을 마구 차도어 이상할 게 없는데. 뭐 애독자님이니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작은 키요? 오 아래에 표족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넌 내가 키운다!



보리의 마음



사죄의 글

가끔 장삼을 놓는 에디터가 기사에 변신 같은 오더를 두려는 때의 부질부질 때가 있다. 핑거에 올린 것처럼 회사 내 누구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겹치기도 한다. 미안하다. 지난 5월호에서 깨알 같은 오더 유발 기사 중 가장 많은 항의 받은 기사는 4페이지에 소시 제시 카툰형 장수면 장수면이라고 표기한 "소시들의 공전 도전"이다. 한 걸 두 걸 페스트리처럼 일게 확 차버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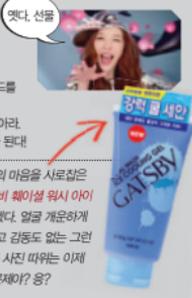


독자 사연 응모

응모 방법

- ▶우편 접수: (121-64) 서울시 마포구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지부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텔레파시 접수: 에디터에게 텔레파시를 쓰아라. 장 어류우면 신에 가서 봉화를 쫓아도드려 전해 된다

무슨 내용이든 좋다. 다 받아주겠다.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연을 보면 인을 선정하여 이번 달엔 **가쓰비 쉐이빙 워시 아이 소시 풀링 쉐 150ml용 클렌징 폼**을 선사하겠다. 얼골 깨끗하게 빽빽 되고 시원한 여름 보내라.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그런 사연도 우린 다 읽는다. 다만 수컷의 벼은 물 사신 때에는 이제 재빨리 그만 좀 보내라 부디이다. 대체 뭐가 문제야? 응?



투표 결과는?

지난 호에 최고의 레이싱 모임을 뽑는 이벤트. 대제 1위 발표 언제 하나? 약속대로 1위를 확보할 수는 실패? 6월호에 결과 발표할 거라 믿고 기다리겠다. 내가 뽑은 그녀가 1등인 걸 6월호 소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2등이라 현동, 스마트폰 댓글

6월호에 1위 한가는 양의 회복을 전폭 실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예뻐요 귀여워서 MAXIM 스타프들의 손을 꼭 빼놓으셨고, 개입없는 편집부 막내가 그녀의 반전을 기다리는 사상에 선배들 모두 분기행진하여 막내를 심히 깔겼지요. 눈물이 속 빠질 정도로 손을 낸 다음 그녀의 반전을 요구하는 걸로 다시 대화했었습니다.

레이팅 내나

회사 후배가 등급이 컷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맥스 5등급으로 활력을 내라!'는데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낙한테 말 안했자만. 형 맥스 정기구독 한다! 후시 선물 주실 의향이 있으면. 레이팅인 여신 폴리리드를 주세요. 현실에 강한 직당에게 현실감을 필요없습니다. 드롭템을 주세요. Seh, e-mail 사연

영동인데 외사 사연 내용으라고 하시면 폴리리드 대신 스킨스런 남자 에디터가 주위를 타수와 보내는 모습을 찍어 드려야 하는 수가 있어요. 폴리리드 응모는 22페이지 MAXIM INSIDER로 고!



해방을 모욕하지 말라

지난 달 여성 독자가 '맥스없는 휴가는 한방없는 해방대다'란 발언을 했는데, 해방대로서 화가 난다. 해방대는 최강 국가원력(동부대다. 사회에서 강대명 해방이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건 일지만, 입대한 순간, 한 명의 해방일 뿐이다. 이 메일을 독자사연에 올려달라, 그리고라면, 3년 해방대일들이, 맥스를 구독하지 않는 대항변의 결과가 일어난 거다. 심 해방, e-mail 그 여성 독자한테 전했었다. 해방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예뻐요. 또 전할 말 없나요? 발라블라

CIRCUS M



출발이 좋지?

지난 5월호 (2011년 서울 모터쇼 특집)에서 실시한 레이스 모델 인기 투표에서 11번 한가는 양미 간발의 차로 1위를 차지했다. 문자 메세지 값을 아끼지 않고 한 표를 행사한 독자는 무려 3,700명!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은 몰랐다. 이 사람들아,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좀 해봐! 약속대로 그녀를 MAXIM 6월호에 담았다. 잔.뜩

BY 유승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김희선
FILM, WORDS BY 박한빛누리
HAIR 이수진 (삼봉루츠 02-3449-6833)
MAKE-UP 이혜주 (삼봉루츠 02-3449-6834)
ASSISTANT 송원민
MODEL 한가은



사은품이나
응답이벤트

AXIMUS®

MAXIM 독자들이 뽑은 2011 서울모터쇼 레이싱 모델 인기 투표 1위를 차지했다. 소감이 어떤가?

팬카페에서 알려줘서 알았다. 기사를 보지마자 당연히 등할 줄 알았다(웃음). 예전부터 MAXIM에 무척 나오고 싶었는데 왜 이제야 연락을 준건가.

어쩌다 레이싱 모델을 하게 됐나?

그 질문은 백안(전신백안)시뮬레이션 게임은 것 같다. 이런 대화 말고 재미있는 얘기 하자. 나 왜나 솔직하고 털털하다.

그거 좋지. 나도 예외상 한번 물어본 거다. 어딜 가면 당신을 볼 수 있나? 서식지를 밝혀라.

천호동과 압구정. 나도 그렇고 다른 레이싱 모델 언니들도 시간날 때 거기서 자주 만난다.

그럼 그 동네에 가면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건가?

물론이다. 최고기 먹으러 가는 거 아냐? 동심, 육회, 스테이크, 심지어 사골국도 좋아한다!

잘됐다. 그럼 술도 '소주'로 하자. 선호하는 수컷 상은?

정준해 (가칭없이 하이킥)에서의 정준

하처럼 착한 사람이 좋다.

소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군. 당신을 공략할 방법을 알려달라.

운동 잘하고 서글서글한 성격.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외로움을 타는 남자. 그리고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한테 마음이 흔들린다. 첫 만남에 정장 입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나오면 그렇게 호감이 가는데.

정장만 안 입었지 완전 내 얘기다.

나는 어떤가?

중요한 걸 빼 놓았네. 난 연하는 남자로는 안 보인다. 미안.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싶다. 그리고 고등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팔고 싶기도 하다. 아, 학교는 '남고' 여야 한다(웃음).

뭐냐, 연상만 남자로 보인다면?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 끼여라.

MAXIM에서 가운이 화보 보고 싶다고 게시판에 글 좀 자주 올려 달라. 앞으로도 MAXIM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이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사진 두 장이 부족해?.....
그걸 잘 알았다. 98페이지로 고고생

▽ 좌
체크무닉 셔츠
프레이드 레리
앤더웨어
칼빈클라인 언더웨어
구두
슈즈현

▽ 우
클린트 듀넨남 와이프스
프레이드 레리
구두
슈즈현



6·25 137 NUMBERS

KOREAN WAR

입 아프게 백날 떠드는 것보다 제대로 된 숫자들을 한 번이 이해하는 데 한결 편하다. 더구나 전쟁과 관련한 것이라면 두말하면 입만 아프다. BY 김광현



2011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1주년(환갑)이 되는 해다. 도통 갑이 오지 않는 당신을 꾸짖어주기 위해 정리했다. 훗날로 보라고!

2

개 하나의 땅덩어리에 2개의 정권이 들어섰으니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 아닐 수밖에 한국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의 군사력은 약 19만 명으로 10만 명 정도이던 남한의 군사력을 압도했다.

0

명 우리나라와 북한이 티격태격 하던 언제든 충돌하겠다고 개 드림치는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 연 단 한 명의 군사도 파병하지 않았다. 심지어 의료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빌어먹을 열도 환승이!

1,251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이 돼서야 멈췄다. 당시 이 여자친구와 한 번도 맞이 못한 1,000일을 훌쩍 뛰어넘는 1,251일간의 끔찍한 동족상잔이었다.

78,569명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죽어나간 사람의 수는 적인 영남 F대회를 찾은 17만 명을 넘어섰다. 며칠 동안 F대회를 가득 메운 사람들도 더 많은 이가 죽어갔다는 얘기도.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었던 건가!

1

938,330명

미국, 영국, 캐나다를 비롯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UN 16개국의 병력은 모두 193만 8,330명으로 당시 남북한 병력을 합친 것의 6배에 달한다.

9

72,600명

한국군이 추정한 중공군의 인적 피해는 9만 2,600명이다. 최근 흥형 중인 영화 <소스코드>가 1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이에 근접하는 인원이 한국전쟁에서 죽거나 부상당한 얘기도. 하지만 중국은 이것의 3분의 1 수준인 39만 5,816명의 인적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5

20,000명

중공군이 이만 금 죽었다면 북한군은 도대체 몇 명이나 저세상으로 고고상했는지 궁금했는? (군사정전위원회관람)에 따르면 북한군의 사망자 수는 52만 명이다. 적잖은 수치란 두말개 참전한 중국의 사망자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 수준이니 신랄했다.

0

명

한국전쟁 참전국 중 실종자가 0명인 국가는 네덜란드,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노르웨이 총 7개국이다. 전체 실종자는 2만 8,611명이며, 그중 우리나라는 2만 4,486명으로 전체의 86% 가량을 차지한다.

2

12,636가구

한국전쟁에서 총 6만 2,636가구가 파괴됐다. 하루에 544가구, 시군당 227가구가 파괴됐다는 뜻 한 마디로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는 콩키루가 됐다.

2

명

2분대 정도 인원인 5명이 소박하게 참전한 룩셈부르크의 사망자 수는 모두 2명이다. 부상자가 13명이었으니 참전한 이 중 사자가 멸명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5

개국

한국전쟁에 병사 파병하지 않은 5개국이다. 하지만 의료 지원 및 시설 파견국으로 참가한 나라는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까지 총 5개국이다. 땀스 아러!

61

2011년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1년, 환갑이 되는 해다. 태어날마자 한국전쟁을 경험한 기량 조종필(1950년생) 역시 올해로 환갑을 맞이했다?

USELESS FACT



정전 후 전투 후 원상을 집결한 국군과 유엔군은 10만 명의 피난민과 함께 해로로 철수했다. 이때 1만 4명의 피난민을 실어 나른 메리디스 비토의 호는 엄청나게 위험한 배였다. 배에 항공기용 휘발유가 가득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아는 다른 배들은 메리디스 비토의 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서 진흙파이를 먹는 길로 유명한 아이티가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2,000달러의 경제 원조를 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200만 달러에 준하는 금액이다. 당시 일본은 대량의 화장품을 보냈는데 팔 보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실마 등공리도 뭐면 아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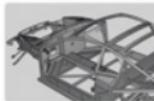


Drift Your Soul **SPIRRA**



이드림

스피라는 미드를 위한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드를 위한 엔진과 변속기가 차량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차감은 적지만 무게중심을 낮추어줍니다. 높은 탄성률의 서플링 프레임 및 정확한 인입으로 높은 수준의 스포츠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스피라에게 이드림 레이아웃이 새로운 발판이되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프레임

스피라는 달린 차량에 적용되는 모노코크 구조가 아닌,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프레임은 생산 공정이 복잡하여 일정한 무게 증가 및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지만, 높은 스포츠카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합니다.



카본 비드

스피라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카본 프레임입니다. 카본 프레임은 탄소강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며, 우수한 강도를 확보해 무게는 감소합니다. 또한 공력에 비해 강도, 내충격력, 내열성이 뛰어나서 뛰어난 성능을 지닙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슈퍼카 탄생

장인의 손으로 빚어낸 자신감!

전세계에는 유수의 명스포르츠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역사 55년의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통 스포츠카는 아직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세계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국가대표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스피라를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여름 휴가 어디로 가지?

아직도 휴가지를 정하지 못한 당신을 위해 MAXIMI가 주변 예쁜 차자들에게 물었다. "우리 이쁜이들, 올여름 몸매 자랑은 어디서 할 거예요?"

BY 박한빛(주), 조유림



1. 해외여행

항공, 발리, 파타야 등.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 건나라는데 거기에서까지 한국 여자 공부나를 쫓아 다닐 필요가 있나? 해외 신지에서 직접 물이 탕탕하게 오른 활어를 수급해서 뜯는 것이 최고! 그러나 시간도 시간은 상하기 전에 빨리 먹여치우자. 그리고 홍콩의 밤은 홍콩 아가씨와 함께

2. 서울 한강 수영장

멀리 떠나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는 대답이 꽤 있었다. 한 가지 팁을 더 주지만 주말보다는 평일이 가깝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니 이때를 노리자

3. 대전

만만한 게 대전 이라는 말처럼 첫 내 나는 어린 학생들도 많이 늘어난 곳이다. 몇 년 전 대전에서 당산에 게 말 걸던 여자들은 이미 다 중학생이었을걸?

4. 부산 해운대

말이 필요 없는 전국 즉석 만능 NO.1 해운대 공인된 사냥터야! 마린룸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들 역시 전국에서 모이든다. '속소'양주'는 기본으로 갖춰야 할 장비다.

5. 제주도

비행기에서 말 붙인 무리 오는 휴가 일정 내내 함께할 수도 있으나, 하늘에서의 40분을 헛되이 보내지 말 것

INITIAL



줄임말 금지

"술기름 계속 있음이라구 했는데, 너무 듣보잡이길래 이퇴범 쟁수서 먼저 나왔어."
"어우, 지못미!" 뭐, 뭔 소리야?
오세 애플 말 뽀은 짧은 알았지만, 앞 꼭지만 따서 줄여 쓰는 수준이 되어 눈셨다. 안 그래도 어린 애플이말 말 좀하려면 세대 차이 나서 말이 빠질뻔할 나는데 약이 안되는 척 하는 것도 이런 신물이야. 너네 미래도 계속 말 짧게 슬래? 어디까지 줄여쓰나 한번 해보자.



후진 장치
강당 간이무대
아래나 디자이너
심작구전쟁 년도표

시공업체 발주 연표
강당 간이무대
자동화살배 위원회
항공일정 문의

윤은혜 간이연
매화꽃피는 춘삼월
보안 지령
계혁 새벽

모금부대 지역별 분지역
사이준수, 발군의 색시렌스,
조인성 루미보통백
성시경 병장계대

대한민국 음악인연합 순화공연
고연애야. 자재함~

Kiss 를 부르는 elips™

여러분이 원했던 바로 그 즐거움을 위한 elips*
 나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라이프

1.5ml 대용량
 액상 탱크 저장공간

0.99cm의 슬림한 바디
 중량 24g의 깃털같은 가벼움



직접 충전 가능한
 스마트 충전 시스템



Black & Silver 2 Type color



OVALE KOREA

광고·PR에 의한 흡연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판매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암의 원인이 되는 담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담배,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코틴, 타르, 벤조(a)피렌테, 비스, 케노플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 H : 10mg, W : 11mg, L : 8mg



소녀시대 시식

이제 MAXIM에도 소녀시대 나왔다. 됐지? 잘 먹겠습니다! 순서대로

- 1 태연** 맛 맛의 본고장 전주 육회비빔밥 맛. 남치 미수병에게 태연 맛 비타500 사식으로 넣어주면 고마워할 오정대 맛도 곧 출시 예정.
- 2 윤아** 맛 비릿한 오다리 맛.
- 3 유리** 맛 끝맛이 리치하고 허를 뚫어주는 부드러운 것이 매력이었으나 최근 들어 뼈까지 맛 스물 굴을 넣새가 나서 대량 반쯤 사태를 맞고 있음.
- 4 제시카** 맛 냉면 육수 맛 얼음을 넣거나 얼려 먹으면 더 맛있지만 냉면 시리는 별미.
- 5 서현** 맛 입안의 청량감이 가득 퍼지는 어린 맛. 제조 일자가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음. 씨렌블루 전용화가 즐겨 마신 **6 수영** 맛 열대지방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동남아산 트로피칼 과즙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일본인의 입맛에 딱 맞는 오오드, 세슘, 플루토늄 강화.
- 7 손규** 맛 쿠웨이트산 두바이유 70% 함유 에너지 드링크.
- 8 티파니** 맛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므로 당장 먹기보다 술로 담궈놓고 숙성되길 기다리는 것이 좋음. 목넘김 후에 혀 끝에 일싸하게는 노사면 맛이 백미.
- 9 효연** 맛 소시 맛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패 먹음 만나니 굳이 무리수를 두는 비람에 입안에 적셔질 기회가 없음. '헌뿌리'를 갈아넣어도 사람들이 모름. **똥? 맛이 다 똑같다고? 그뻐 리가 없다!**

다먹는 재미 좋아

비타500의 마케팅은 언제나 MAXIM보다도 한발 앞서나가고 있었지. 탈색.

고급스러운 카피



▲ 저런 문구 나오는 거 이효리가 알고 찍었을까. 들었다면? 알고도 알았지만 뭐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 티파니에서 아현을... 이리나래 좋은데?

최고의 암컷 기용



▲ 돌아와보면 비타500은 항상 당대를 뛰어넘었던 최상의 암컷을 모물로 삼았다. 이효리, 원더걸스, 소녀시대, 유리, 콘셉트는 항상 일관성 있었다. 맥스어덜

적절하게 티저준 비타오백엔 비디오



▲ 설마 원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적년 말 비타오백엔 3원 풀 버전까지 나왔다는 소식이나, 부디 광동주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HER! **헐!** HER!

그녀들이 말하는 나보다 가슴 큰 그 남자 BY 김중국

▶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결혼 3년 차 부부다. 남편은 기쁨 지퍼이고 나를 이쁘게 달은 얼굴로 대학 시절부터 여자들에게 알추 인기가 있었다. 어릴적부터 해도 성격까지 남다른 남편이 너무 좋아 결혼까지 했지만, 요즘 남편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10개월 된 아기가 울면 직접 젖을 물린다. 자기 걸 물려 아물음이 똑 그친다. 장미야! 똑 떨어진다. J(32세, 주부)

▶ 몽글한 번지 점프

연애 3년차. 정신적인 사람으로 일관하던 우리 연인. 청명 번지 점프대에서 그가 3미터짜리 다이아몬드로 프로포즈를 했다.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정미 하늘을 나는 기분을 만끽하며 그를 으스스하도록 끌어안았다. 감동보다 더 큰 그의 가슴. 이런 대체 뭐지??? 그의 청혼을 고민중이다. B(31세, 회사원)

▶ 미소녀?

오랜만에 강남 클럽으로 출장을 나갔다. 귀여운 동안 얼굴에 스노를 데리고, 모델로 향했다. 음악과 와인 분위기로 후끈 달아오를 때, 스노 이 상의를 벗어 제쳤다. 풍성이 돌아 있는 두 개의 가슴. 그가 사투를 하겠다며 지리를 비운 사이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웬만하면 나 보다는 작아지겠네! K(22세, 대학생)

30 $\sum_{n=1}^{30}$ 운동량 $\times \sqrt{\text{시간}} = \text{자란 가슴}$

여유중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유중이란 여성형 유방증의 줄임말로, 남자에게 여성과 같은 봉긋한 유방이 형성되는 질환을 가리킨다. 여유증을 앓는 당사자는 외모적 콤플렉스에서 오는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목욕탕, 수영장 등의 장소를 꺼리게 되며, 심한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운동을 통한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 여유증의 원인이 유선 조직은 연소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력 운동을 할 경우 오히려 대흉근을 발달시켜 여유증이 심해 보일 수 있다. 유방 주위의 지방이 빠져가슴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수술이다.

유륜절개 여유증 수술로 Level UP

문제는 믿을 수 있는 병원을 고르는 것. 아산 성형 심포지엄에서 여유증과 관련한 주제로 임상 결과와 수술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해 감사패를 받은 데(THC)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은 "여유증 수술은 치료 시기와 전문외과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데(THC)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은 "여유증은 진행 경과에 따라 비교적 치료가 쉬운 1등급부터 성인 여성 유방과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의 중증인 3등급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또 김수철 원장은 "여성형 유방증의 치료는 유선 조직뿐 아니라 지방 조직도 함께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며 "유륜 절개를 통해 수술하는 것이 출혈을 줄이고 정확하게 유선 조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한다.

간혹 치료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티'에 대한 우려로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엔 수술 후 다음날 직장에 복귀하는 사람들도 많을 만큼 수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다. 보통 남성들과 다른 봉긋한 가슴 모양으로 고민 중인 남성이라면, 데(THC)성형외과 여유증 수술을 통해 LEVEL UP하자.

김수철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 데(THC) 성형외과 원장
- 안산성형병원 성형외과 과장 역임
- 피디이병원 성형외과 과장 역임
- 펄 서울아산성형 성형외과 외래교수
- 국제성형외과의회 정회원
- 대한성형외과의회 정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의회 정회원
- 대한두개안면외과의회 정회원
- 대한성형외과계간협의회 정회원

THE clinic
성형외과 www.theclinic.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0-5 구경명빌딩 5층
더 성형외과,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TEL. 02-3446-0055

이상적인 의료 실현을 위해 진실의 수술로 다가갑니다

아! X님 나한테 왜 이렇?

스치는 웃기마저 당신의 팔각근 해빙을 촉구한다면 어떨까? BY 김성현

아, 어느 개라까가 똥 거야?
걸리면 죽는다!



사내 주도에 '3호' 상이다.

이런 돌풍이 조기 분출보다 더 시급한 상황 아니겠나? 애국가 5초를 폭풍 행처럼 행할거라. 장사라도 망쳤다면 그에게 편지를 들고 뛰어나고 X-놈을 인사시켜야 할 거다.



왜 이요?
똥이 잤네!

YES

네놈이 사하는는 아니 네놈을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 X-놈이 나에게 이빨을 드러냈다. 한때 너도 당신의 돌풍이 때려잡고 고운 장미 알코올을 건디지 못한 거다. 노인 테크를 탐 당신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여자 사립마냥 당신을 외면한 셈이지. 차라리 이빨에 금주해쳐 '부처현상.'의 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YES

그때 도덕덕. 갑자기 세상이 평화로워졌겠지. 팔각근 제어를 실패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를 만끽해라. 현상을 좋아한다면 친구에게 편지 한 장 부탁하는 친화 남자는 것 잊지 말고. 평생 놀림감이 되겠지만 그 상태로 돌아다니는 다 디에 강제 인증되어 인생 퇴장하는 것보다 낫게 여길 거다.



YES

NO
설마 지금 그녀를 덮쳐 행복의 나리로 떠나기 위한 행군 중인가?

NO
어제 공파 술이라고 신나게 알코올을 흡입했나?

NO
혹시 설마. 믿을 수 없겠지. 엉덩이에 촉촉한 초콜릿 쿠키 같은 것의 파스참이 느껴지나?

START

똥이 마려우나?
그렇다면 솔직히 대답해라!

NO
팔각근에 느껴지는 압박감이 오송한 돌직구 못지않나?

NO
똥속이 용암처럼 끓으며 당신 이미에 맺힌 땀으로 'X-놈'이 오심을 직감할 수 있겠나?

NO
네 팔각근이 태초에 컨트롤링 적이 없었던가?

NO
다행히 성장이나 불경 같은 거라도 하나 가지고 있나?

NO
팬트는 뭐든 상관없다. 일단 팔각근의 승리를 막아라. 대신 한 번에 끝내라. 자지. 허술한 틈을 보이면 *처럼 생긴 팔각근의 적화한 모습을 눈으로 감성하게 붙들거. 만의 공경장소에서 그 분노를 맞이한다면 당신 인생은 그 순간 강타하겠지. 아메도...

아, X-놈을 잡으려!



NO
당신 다리에 땀이 아닌 무언가 살짝 흐르는 느낌이 드나?

NO
어젯밤에 먹다 남은 차간을 처묵차묵했나?

NO
그런데 왜지 운이 좋으면 X방귀 수준에서 미루리겠 것 같나?

아서 빨리 청문 전을 외곽을 찾아서 팔각근 개선에 나서라. 그러자 당신이 세 번 여자 기아. 그러나 그 할렘 X고 볼 노리는 이가 없는 게 불행 중 다행이다.



YES

아보쌍한 영혼이여 폭풍 심사의 사신이 울었으니 이제 X고기 남아질 일 없을 거다. 지금 돌아다닐 행이 남아 있다면 아서 빨리 고급 크라프스와 물타 숨을 준비하라. 사지 않거!



YES

그렇다면 시원하게 힘을 쥐러. 락을 차던 종이리만. 당뒤로 같이 뿜 우리가 앞지르한 그거 애. 나리. 큰 증행하고 말 일아. X-놈! DO!



YES

USELESS FACT

히틀러는 이슬람교 박해자였다. 사블야루 대가 무로 전투에서 이슬람군에 패했으며 유럽이 이슬람화되었을 것이고, 그는 우랄한 독일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슬람 제국을 세웠으리라고 믿었다. 참고로 히틀러는 흑마술 등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청와대 방커로 유명한 '워 폴'의 원조는 2차 세계대전 때 처참히 기어 들어가 전쟁을 지휘한 지하 방공호 개리너트 워 폴'이다. 하지만 당시 워 폴은 일 반 주택 지하실과 다름없는 수준이어서 항공 폭탄 한 방에 처참을 인생 퇴장시킬 수 있을 정도였다.



CIRCUS

다음 주선 본 디오 카페
홍가 체험 http://www.damunhwa.com/visit/visit
재미 홍가 체험 관련 인디 카
장성정 강철의 레이다보존
은 아나고 (P)

홍가 체험 제대로 하는 법

홍가? 우린 홍가 간대! 여름엔 역시 공포 체험이 최고다. BY 김희정

1 너무 무서워하지도 너무 들뜨지도 말 것
홍가는 귀신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을 잠시 방문했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체험해야 한다. 안 그러면 당신의 호들갑에 놀란 귀신이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

2 항상 조심할 것
홍가는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계단이 무너져서 다쳐본 적도 있다.

3 홍가 안에 있는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말 것
홍가에 있는 물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실제로 홍가에 있는 물건을 집으로 가지고 갔다가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들

많이 봤다'고 강철의 레이다가 말했다. 쥐도 안 가져 무섭게 가기는 걸 왜 가져와...

4 빙의가 되면 즉시 체험을 중단할 것
어지럽거나 토할 것 같으면 빙의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체험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얼얼해진 땀 이영이면 이른 채차귀신이길 바란다.

5 귀신을 보면 즉시 자리를 피할 것
홍가 체험 중 간혹 실제로 귀신을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강철의 레이다는 "너무 놀라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게 어디 내 맘대로 되나?

6 홍가 안에서 자거나 술을 마시지 말 것
구, 굳이 왜 가기사...?

강화도 H 홍강

집 주인이 오랫동안 건물을 방치해왔다는 이유로 홍가가 됐지만 실제로 귀신을 봤다는 소문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빈자진 말까나~

재전 L 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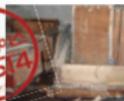
딸의 사망에 이어 종업원과 아내까지 교통사고로 죽자, 남편마저 이곳에서 가스를 먹고 자살한 후 귀신이 출몰한다는 홍가.

영덕 Y 홍가

수많은 학도병들의 사신들이 묻힌 곳. 이곳의 기를 누르기 위해 기가해진 무속인 마저 강제로 날리고 출몰이 많았다는 악명높은 곳.

경기도 배병원

원자차트, 의료집기 생필품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다급히 병원을 떠났음을 짐작케 한다. 원인을 모르자서 있었다고.



홍가에서 생긴 일

가 밀어? 일단 강철의 레이다가 들려주는 홍가 체험담부터 들어보자.

우리집이 홍가



귀신을 놀래킨 대가

충청도의 위치한 폐교로 함께 체험을 다녀왔던 회원이 갑자기 빙의가 돼 무속인과 몇 시간 싸우는 걸 지켜본 적이 있다. 그의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빙의된 귀신은 폐교 주변에 위치한 집에 살던 여자 귀신이었던. '체험 때문에 집에서 살던 여자 귀신들이 놀라 도망갔으니 자신들을 찾아달라'는 게 그 회원의 괴물한 이유였다고. 더 무서웠던 건 몇십 년 전에 그곳에서 애호가 아이가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거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강화도의 한 폐교에서 방송 촬영을 하고 있었다. 한 팀은 학교 교문 입구에서 기다리고 한 팀은 학교 뒤편 관사로 가고 있었는데 관사들하고 있는 팀이 '가지 애들 어가지애' 하는 고향 소리를 들었다. 동네 주민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줄 알고 다시 교문 쪽으로 왔다. 하지만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팀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더라. 불과 30~4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한 팀은 듣고 한 팀은 못 듣는 게 말이 돼?

홍가의 위험 #1

홍가 체험 중에는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개인의 부주의 탓도 있지만 귀신의 친선도 만만하진 것 같다. 같은 자리에 병행 떠나거나 놀기 위해 갈때도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도 있다. 방송 촬영 중에는 조영미 갑자기 깨닫다가 카메라가 고정 수는 일도 반박하게 일어난다. 귀신의 경고라고 볼 수도 있다.

홍가의 위험 #2

홍가 체험을 하러 들어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 사람,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배려는 사람, 들어갔다가 기절해서 풀려 나오는 사람, 입구에서부터 기운이 느껴져 못 들어가는 사람, 빈방 하나도 안 들어오면 그냥 혼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홍가 선정하기

홍가라고 해서 다 같은 홍가가 아니다.



1. 목적하기?

주위에 인간이 있거나 변화가와 너무 근접한 곳은 아무리 안에서 귀신이 곡을 하고 각기 댄스, 락밴드 등도 무섭지 않다.

2. 안전하기?

홍가 체험은 대개 밤에 이뤄진다. 병과 위험은 없지만 바닥에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걸 눈치 못채 미리 살펴볼 것. 홍가 구경 갔다가 불구의 몸이 되면 안 되겠다?

3. 유명 홍가부터 방문할 것

홍가에도 영감이 첫 플래이스는 존재한다. 또 한

당신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소녀를 죽일 수 있는가?



the
BOOTH

10분 미스터리 더부스

COMING SOON



FX채널 및보고
과월호 받기

FX
남자의 모든 것

tcast

channel SCREEN FOXONX CINE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MAXIM INSIDER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딱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을 준비가 됐나?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리로이드 사진을 원하나요?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세상에 공개 따윈 없거든!

- 1 MAXIM 6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에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6월호 BEST 3'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참부한 이미지가 많으면 남수록 당첨 확률은 상승권을 뚫는다니까! 믿어줘!
- 4 블로그나 트위터, 미투데이(UR, 이통,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을 적어 reader@maximkorea.net 으로 메일을 보낸다.
- 5 7월호 MAXIM에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



5월의 승리는 복수로 선정됐다. 가장 치열했던 결선투입 만의 폴리로이드 사진은 박용섭 독자, 공대생의 희망 소년의 사진은 김선식 독자, 귀여운 헤리의 사진은 박주용 독자, 색다른 유라의 사진은 민선식 독자, 미자락으로 감쪽한 자제의 사진은 정민형 독자가 차지했다. 그녀의 폴리로이드 사진이 곧 당신을 찾아갈 테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좋겠다!

퍼줄 때 가져가려고!

GIFT LIST

남성 화장품 맨즈클래식 데일리 폼 클렌저 / 맨즈클래식 BB크림 / 가스비 모이스처라이징 로션포뮬러 / 가스비 헤어젤 워시 오일 클리어폼 / 뮤지엄 마라클, 그리스, 오일엔 결혼할거야 / 슬라카드 체험권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친다!



MAXIM 트위터로 모으자~

MAXIM 6월호 속 광고와 기사에 박힌 QR 코드를 주목하라.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이 물론이고 각종 이벤트와 산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을 꼭꼭 찾아라! 해서라, MAXIM은 오늘도 우리 독자들을 데리러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마블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MAXIM도 현금다발을 캐낼 수 있겠지? 그치지?

문의: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또 한 번 쓴다!

필드에요 스타레오! 백을 또 한 번 쓰겠다. 스마트폰 가방을 갖고 싶은 독자라면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여 댓글 달기로 신청하거나, reader@maximkorea.net에 '필드레오 스타레오 백 이벤트'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라.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 코드를 꼭꼭보도록! 5월의 승리는 한가지 독자들. 행운은 6월 보내도록!



스타레오 백 받으러 고고싱!

BEAT THIS CAPTION

넌 개개까미!

이달의 도전과제



응모하기

- 1 솔직한 답사를 써라 솔직한 마음에서 우라라!
- 2 코리는 우연으로 (2-8화) 사흘이 미묘구 시라공 446-38 MAXIM KOREA 발행 4층 편집부, 이메일주소: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 3 기왕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는 남에게 '연애의 신' 1권도 선물로 주겠다. 뿌잉뿌잉 나로 나로!



WINNER
자난 갈 우송자

"안나들, 재 자난
자난 것들 볼 거야"
- 붉은곰 아저씨

과도한 색드림은 달락의 지름길!관 걸 명심하자. MAXIM이 원하는 건 눈앞이 허무하지 않다는 '웃을' 한 유머가 녹든 말든 말든! 그래서 자난 갈 우송자는 붉은곰 아저씨! 선정했다. 걸 스타레오의 해다가 팀의 맥락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당당한 존슨이 재다는 사실!재지 전술

70대만 해봐도. 여기에 이 모든 걸 가지 저용도 은은적으로 표현해 귀염둥이 헤리의 어깨 아래로 말이 나오지 않게 했다는 걸 자랑할만한 당용 이이다.

이름에는 호랑이 꼬리에 박실살당한 건공이 주어진 공이나 깨달 같은 재의 말풍선을 기대해다!

AND LOSER
이 해해자!

> 자기 12번 출현했, 내게 한번 새워했.
- 정진석

> 왜 그리사니요, 왜? 왜 저 지꾸 새우사리고
- 뽕뽕

> 뽕뽕, 입애 -0109-21196
안 볼 양애!

> 내 난수 이 보지, 내 -김희곤
힘축적 의미를 담은 문장인 안생도는 탁월하나 사진에서 그녀의 단호 사이를 볼 때 위하는 너 무 미약했다. 그것이 매력의 이이다.

이 남자, **작업의 기술**이 다르다
그리스로 연애의 승부를 걸다!



단 한 순간이라도 지루하다면 그리스가 아니다!

No.1 뮤지컬 그리스

2011.4.8 ~ 6.12 한전아트센터
2011.6.30 우리금융아트홀 개막



스캔하면
타켓이



STEP 3

할 거면 제대로!

- ▶ 내 몸 곳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면 손이 갑자기 가늘게 말려하는 것만큼 나를 달아오르게 하는 건 없다. <오즈세 스킨리프>
- ▶ 그가 너무 살살 때리거든 해서 좀 더 세계 때려 달랬더니 이번엔 또 세계 때리거든 해서 별로였다. 이 국산적인 사랑아... <HZZ세 회사편>

EDITOR SAYS

스랭킹이라고 해서 그녀를 때리거든 하는 건 전희를 생략하고 파스도 운동만 추구장항 하는 것과 같다. 스랭킹을 할 때는 자질 박사와 하이더에 병의될 것 그녀를 때리는 중간중간 언제 그랬냐는 듯 그녀의 엉덩이를 사랑스럽게 문지르자,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뽕지?" 라고 물어봐주면 효과는 배가 된다. 강요중요성을 잘 조절하기만 해도 그녀는 이미 당신의 노예다.

흔하든 스랭킹에서는 때리는 행위가 '갑'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쓰다듬어주는 행위가 애인이다.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STEP 4

상황 설정하기

- ▶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던 그가 섹스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나를 안아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들추어내며 훈계를 한다. 이를테면 "넌 오늘 나보다 10분 일찍 왔으니 벌을 받아야 해", "왜 입술이 부르렀지? 어떤 놀이랑 키스하고 왔어? 난 오늘 너를 때릴 거야" 같은 말로. 경고 없이 무작정 맞기만 하는 건 별라다. <K23세 후학생>
- ▶ 그가 날 때릴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흥분된다. 진짜로 때리는 건 이따서 싫다. <H(24세) 가수 자랑생>

EDITOR SAYS

그저서 때리라는 건지, 말리는 건지 당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에게 맞는 행위 자체가 흥분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상황 자체가 자신을 달아오르게 만든다는 거다. 실제로 스랭킹을 즐기는 여자들의 88%가 "스랭킹에서 당신을 흥분시키는 게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상황 그 자체" 라고 답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그녀가 왜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설정하라. 평소 마음에 들고 있었지만 쏘잔한 남자로 보일까 봐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럴 때 들추어내면 평 먹고 알 먹기

자정을 지연시키는 음식

그녀의 엉덩이만 때리다가 끝낼 건 아니잖아? 항상 기분기가 중요한 법. 당신을 오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음식들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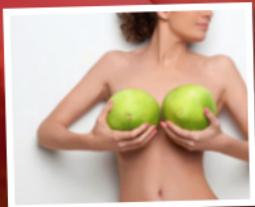


▶ 산딸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C를 하루 200mg 이상 섭취하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들보다 평균 2~3분은 더 오래할 수 있다고 한다. 겨우 2~3초인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나라 남성의 1회 평균 삽입 시간은 5~10분인데, 2~3분 늘어났다면 아주 획기적인 거다. 특히 당신의 라그타임이 딸랑 3분이라면 행복 두 배가 된다는 거.

▶ 오징어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징어는 기를 보호하고 입지를 강하게 하여 오랫동안 먹으면 경락이 더 많이 온다고 진한다. 몸이 허약하면 정액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출도 하는데 오징어에 많이 들어 있는 타우린이 사는 정액을 막아준다.



▶ 부추

<동의보감>에 따르면 부추는 몸이 찬 사람이 먹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물론 기동되어 있다. 그래서 부추를 먹고 나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 일으키는 안 하고 만 생각만 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추에 들어 있는 황 화합물은 피를 잘 돌게 해 차가운 고추를 따져하 데 뛰우고 잘 시게 만들어준다.

▶ 달걀

물들이를 오랫동안 묵혀뒀더니 주워할 수 있는 건강과 흥분력에 성공한 연을을 맞이하게 되나? 달걀은 성질이 평하고 맛이 부드러우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 몸이 흥분하거나 강해하면 비타민 B가 가장 먼저 빠져가는데, 달걀에는 비타민 B가 많아 좀 더 오래할 수 있다.

자정은 그가 그림다.
누가 나 좀 안 때려주냐? P(29세) 사범기

EDITOR SAYS

성형이 MO라고 해서 모두가 스랭킹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혹시 그거 아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도한 스랭킹은 데이트 목적으로 간주된다. 그녀의 엉덩이를 때리기 전에는 형식적으로라도 동의를 구하라. 스랭킹 한 번 했다고 신고당하는 건 억울하잖아!

스랭킹도 오일 섹스, 후배위와 마찬가지로 섹스 세척기에 게 시도하면 "내가 그동안 반데 자식과 밥을 먹고 섹스를 했구나..." 라는 쓸데없는 오해만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예디터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데헛~! 어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자란 스랭킹은 조금 천천히 해도 좋다. 알았지?

STEP

5 인류는 도구를 사용한다.

인류

성장에 맞는 파트너와 만나 일화성으로 '제일 플레이'를 하고 베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사소한 것이어도 합의하게 하는 게 일법칙이다.

- ▶ 주걱은 좀 별로였다. 흥부와 놀부도 아니고... L28세 교사
- ▶ 손바닥보다 허리띠로 맞을 때가 더 좋다. 나 이상한 거 아니지? P26세 대학원생

EDITOR SAYS

스랭킹 놀이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면 손 말고 다양한 도구도 사용해 보자. 인건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니까. 당신은 회초리를 들고 싶은데 그녀가 무서워 할까봐 망설였어? 걱정할 필요 없다. 손으로 맞을 때보다는 도구로 맞을 때가 더 원부로 다뤄지는 느낌이랄까? 틀이 색다른거야. 단, 그녀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한 손에는 채찍을,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속삭여주도록. 너, 너무 세게 때리지는 마!

STEP

6 받은 가족을 플레이는 흔적을 남긴다.

- ▶ 다음 날까지도 발정계 부풀어오른 실각을 보면 간밤의 격정적인 플레이가 자꾸 떠오른다. A25세 취업 준비생

EDITOR SAYS

모 아니면 도다. 당신이 남긴 명자국을 보면서 당시의 다음 플레이를 가슴 모아 기다리거나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굴욕을 느끼거나, 그녀가 확실한 스텝(Sperk) 라면 간밤에 생긴 스텝 마크를 들여다보며 퍼뜨린 체벌의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리겠지만 단순한 호기심에 스텝킹을 시도해 봤다가나 아직 스텝킹이 낯선 그녀라면 명 자국을 불쾌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까 미리 물어봐라. 어디에 흔적을 남겨주는 게 제일 좋은지. 명 자국과 카스 마크 중에 어느 걸 더 선호하는지 등등... 이런 걸 물어보면 그녀가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망설여져? 플레이를 전제로 만난 거라면 망설이지 마라. 여자는 자극히 사소한 취향마저 거주는 피트너를 반드시 다시 찾는다.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하다. 실천은 당신의 몫. 건투를 빈다. W

자, 본기가 결산이다!



한대 데



2011 S/S MEN'S SMART GROOMING ITEMS

스마트한 남성 그루밍 아이템 총출동!

남성의 뷰티는 이제 경쟁력이다! 명칭한 관리는 이제 그만! 똑똑한 그루밍 제품으로 제대로 관리하자!
아무 제품이나 사용하지 말아라. 남성 그루밍 매니아들이 인정한 검증된 베스트 브랜드를 만나보자

기획/ T.J.W.W 사진/ T-STUDIO



● ISSEO HOMME

체계적인 남성 피부 관리. 프랑스 명품 에스테틱 남성 스킨케어 **이세오옴**

2005년~2010년 남성 수입화장품 판매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 명품 에스테틱 남성스킨케어 혁신적인 기술과 원료배합으로 남성그루밍 매니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남성 에스테틱삼 전문 제품입니다 *대표성품 : 토날렉 비타민C (스킨+로션+에센스)

● ARGILE

피부의 독소를 제거하고 넓은 모공을 조여주는 프랑스 천연클레이 **아자르**

2005년~2010년 남성 수입화장품 백부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 천연 클레이 브랜드 아자르 넓은 모공을 조여주고 모공 속 독소와 피지 그리고 블랙헤드를 깨끗이 제거하고 칙칙한 피부를 맑게 해주는 클레이 맥입니다 기존 맥에 있는 방부제, 합성향료, 합성염료가 들어있는 않는 프랑스 프로방스 고원의 순수 천연 머드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 NOSTRUM MAN

여성이 좋아하는 극상의 신선함과 깨끗하고 격조있는 남성의 향기 **노스트럼맨**

2011년 전세계 셀러브리티가 사용하며 극찬 글로벌 NO.1 세계적인 향료회사 GVALDAN 제작 GVALDAN의 장인 자크 허클리와 프랑스 디자이너 알바로 만조의 유일한 유로 한정판 지중해 파도를 형상화한 심플한 디자인은 세련된 현대 남성을 위해 탄생했으며 현대 남성에게 필요한 극상의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 선사합니다

● 66° 30

최상급 오가닉 성분만을 담았다 놀라운 피부변화를 경험하라 **66도30**

2010년 하반기 런칭 이후 그 제품의 효과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프랑스 프리미엄 오가닉 남성 스킨케어 66도30. 유럽 2009년 뷰티챗라인저 어워드 수상! 2010년 뷰티 오가닉챗라인저 어워드 수상! 특허성분 어반셀드와 98%의 내추럴 성분과 최대 80%의 오가닉 성분이 피부에 빠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 **핵심 구독자 특별 이벤트** (기간 : 2011년 9월까지) **지정구매처 : GS SHOP LOTTE.com** * SHINSEGAE

지정 구매처에서 이세오옴, 66도30, 노스트럼맨, 아자르 클레이를 구매하실 때 핵심구독자라고 기재해주시면 모든분들께 특별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MISS MAXIM OF THE MONTH



가장 자신 있는 섹시 복귀
세련된 허벅지, 유려한 이마 인 물결의
그녀는 돌출무늬 시계줄이 일 번이다.

무엇이

흔들림 속에서 '섹시', 유려에서 '섹시'인
일들이 일어나다. 지금 당장 보여줄까?



MAXIM 독자들의 투표로 결정된 2011 MISS MAXIM 콘테스트 예선 1회 차의 우승자는?

E컵이라는 압도적인 가슴 크기를 자랑하는 축복받은 몸매의 소유자 **정다연**이다.



가슴 옆을 휘지

위쪽에 휘어지려는 여왕 비키니 입도 안 한데...
아, 부디비드 가네요! 품에 자랑 하는데 귀뚜라미
그런 데서 휘어지!

헛기스

그 때 첫사랑 앞에서 지랄했으면 내가 뭘까 가슴 크기를
하렘비만 모르는 게까지 알았다. 하렘비 줄리아 안 된
사람아 첫 키스의 비즈를 잘 기억해!

윗핑크 언더웨어 세트
마루 이너웨어
주황색 구두 모델 소장

MAXIM WANTS YOU!



MISS MAXIM
콘테스트 현재 상황

2011 MISS MAXIM CONTEST

1. 예선 통과시 MAXIM 한국판 화보 모델로 활동!
2. 단계마다 높아지는 온라인 콘테스트 상금!
3. 34개국 MAXIM이 경합을 벌이는 **MISS MAXIM 세계 대회** 참가 후보 자격 부여!

(※ 세계 대회 입상에 따른 특전은 MAXIM 미국 본사가 제공합니다.)

- 지난 MISS MAXIM 세계대회 입상자는 거액의 상금과 함께 뉴욕의 유명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특전을 누렸다.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다!

● 참가 신청 방법

1.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2.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섹시함을 잘 표현한 사진 20장을 업로드한다.
3.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쓴다.
4.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다. 끝~

● 특전

20일 간격으로 열리는 온라인 예선 콘테스트에서 MAXIM 독자들로부터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은 참가자는 MAXIM 잡지 화보 촬영의 기회가 주어지며,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매 회차 예선 콘테스트 우승자는 2011 MISS MAXIM 준결승 콘테스트에 자동 진출하게 된다.

- 나이 직업 등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남자는 받지 않는다.
- 닉네임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 동등해도 좋다.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가 아름다운 벨
- 등 하는 Tip? 당연히 섹시한 사진이 잘들 올라왔는지?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를 참조하라.

[문의] 에디터 김희성 070-400-8895
alice@maximkorea.net



SPORTS



이 생쥐들이 개입만 칭찬해도
지금쯤... 애려 말을 말자. by 김형민

CRIME DOO

공포의 범죄 구단 두산

사람이 미래다. 범죄는 필수다.



→ 손시헌 / 병역 비리

센스 만점의 수비 실력으로 병역까지 수하하며 했으나 병역 브로커가 덤비며 잡히는 바람에 무산됐다. 다행히 불구속(가) 처분을 받아서 군대를 후다닥 다녔겠다. 야구도 골질 하는 녀석이 왜 야사건게임 등록과 연이 없었는지 이제 알겠지?

→ 이용찬 / 음주 운전

2007년 입단 후 작년 시즌 두산의 주전 마무리 투수로 세이브 1위를 노려볼 만큼의 성적을 기록하다가 시뮬하게 술한잔 걸치고 음주 운전 고고성하다가 망했다. 그 덕에 작년 플레이오프 마운드의 구경도 못했다. 음 시즌은 선발 등판했지만 4와 1/3회에 3실점을 기록했다.

→ 김명제 / 음주+교통사고

2005년 6억 원을 받고 입단한 김명제는 음주 교통사고로 자기 몸까지 망가뜨려 버렸다. 작년까지 죽어라 재활을 했지만 교통사고로 망가진 몸중이 어디 제대로 돌아오던가 결국 작년 말 두산도 김명제에게 군대행을 뒀겠다. 그러나 술처럼고 운데는 왜 잡아서 못?

→ 김동주 / 간통

그에게 간통주리는 멋진 별명을 달게 해준 시간이다. 돈 없고 가난할 때 뒷바라지한 조강지처를 버린 것 때문에 폭풍 여론을 먹었다. 위자료를 주기 싫어서 은퇴 소식을 알렸는데 스모니저가 불거지는 바람에 두산 팬이 커져지는 걸 보고 있다. 지어?

아드리아누

소속: SC 코린티안스

특장: 호나우두급 몸놀림이 가능한 흔치 않은 천재 타겟형 스트라이커

그런데 이 미친놈이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삼을 꾸더니 슬독에 빠져 살기 시작했다. 훈련 빠지는 건 예시고 나이트 죽음이로 번산했으니 몸 관리가 될 턱이 없었다. 2009년 축구 따위 집값다며 은퇴해 놓고선 2010년 AS로미로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하자마자 부상으로 팀에 민폐를 끼쳤고, AS로미는 참다 못해 GG를 치고 계약을 해지했다. 광경한 생쥐



안토니오 카사노

소속: AS 밀란

특장: 델 피에로로 뒤를 이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천재

19세에 세리에 A에 데뷔해 당시 최고 수비수인 인터 밀란의 파누치와 불랑을 상대로 결승골을 잡아넣으며 화제를 모았다. AS로미 시절 토티와 편 먹고 2001~2002, 2003~2004시즌 준우승을 알거냈다. 본능이 충실한 안토니오 AS로마의 주급이 빠지고 장정거리며 평판을 치더니 결국 레알 마드리드로 전격 이적했다. 훈련 빠지고 한 달에 최소 6명의 여자를 만나 재미를 보고 다니는 카사노에 백기를 든 레알 마드리드는 그를 삼포드리아로 보냈다. 이곳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강성한 듯 보였지만 정말 같은 성격은 여전해서 구단주와 맞장을 뜨다가 퇴출당할 뻔했다. 최근 AC 밀란으로 전격 이적했다.

페페

소속: 레알 마드리드

특장: 준수한 수비 실력과 빠른 발

강페페로 유명하다. 08-09 시즌 경기 도중 상대 팀 선수 프란시스코 카스케로에게 진패배기 사귀기를 날리면서 멘탈 쓰레기의 최강자로 무뎠다. 두 경 열린 팀의 간통 카사노는 "미친 생쥐" 라며 대놓고 갈겼다. 이후 페페는 사귀기도 병인하고, 다터플레이까지 자제하며 모범선수(가)로 자재했다. 감독 무리누는 이런 강페페가 기록했는데 센타백으로 중용했고, 강페페는 두둑한 연봉으로 재계약에 성공했다.





존 로커

소속 없음

특장 불같은 강속구와 더러운 입을 함께 가진 명칭한 백인 양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주전 미우라가 예정된 존 로커는 머리에 통이 가득 차서 더욱 더러운 바람에 야구인생을 증명했다. 브레이브스 시절 흑인 비하 발언으로 팀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고, 인터뷰에서 라이벌 팀 뉴욕 메츠와 아시아인 게이까지 시잡아 비난하며 광역 도발을 시도했다가 야구 팬들에게 역관공을 당하고 성격이 곤두박질치면서 열망했다.

☆ 종합 성적표

임태훈

1.

아드리انو

2.

안토니오 카사노

3.

김진우

4.

페페

5.

존 로커

6.

킥백질 자수 술 자수 싸움 자수 입금 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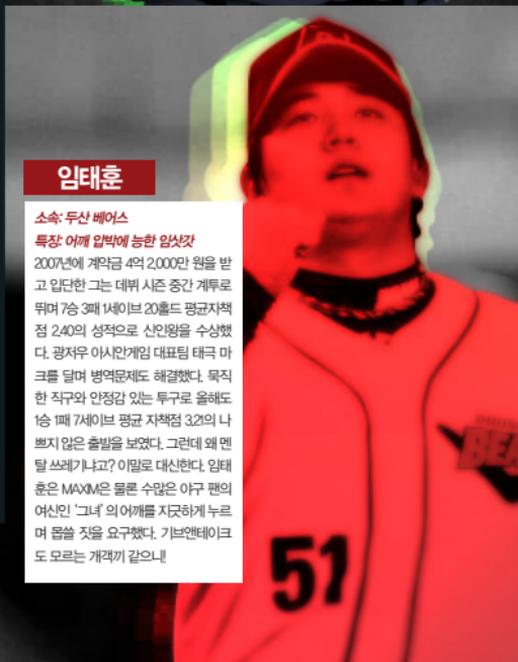


김진우

소속: 가이 타이거즈

특장 불같은 강속구와 최고의 커브를 가진 투수

2000년 봉황대기 고교야구 MVP를 받으며 스타에 오른 김진우는 2002년 가이 타이거즈의 현질로 당시 최고 초계액급 7억 원을 받고 입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제구력이 완전치 않아 볼넷을 작잡이 허용했지만 150km/h의 광속구와 나차 큰 커브를 주무기로 그해 탈삼진왕에 올랐다. 하지만 김진우는 노장진과 친해지며 음주기우에 눈을 떴다. 불시스러운 가정사까지 더해져 김진우는 시원하게 정신줄을 놓았다. 폭행 시간에 휘말리고 선수단 훈련까지 무단 이탈한 그는 결국 2007년 최악의 성적을 찍은 후 팀을 탈퇴했다. 올해 가이로 복귀했는데 재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임태훈

소속: 두산 베어스

특장 어깨 압박에 능한 입삼진

2007년에 계약금 4억 2,000만 원을 받고 입단한 그는 데뷔 시즌 중간 계투로 뛰며 7승 3홈 14이브 20홀드 평균자책점 2.40의 성적으로 신인왕을 수상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테크 마크를 맡며 병역문제도 해결했다. 묵직한 작구와 안정감 있는 투구로 올해도 1승 1홈 7세이브 평균 자책점 3.2의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였다. 그런데 왜 멘탈 쓰레가 나고? 이말로 대신한다. 임태훈은 MAXIM은 물론 수많은 야구 팬의 여신인 '그녀'의 어깨를 지긋하게 누르며 몸살 지을 요구했다. 기브엔테이크도 모르는 개척기 같으니!

RATED MOST WAN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 엠마 로버츠 그녀의 이름을 외쳐: 스크림!

늘어버린 원년 멤버 때문이었어, 이번 《스크림4》는 엠마 로버츠.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걸로 충분하다. 오케이?

《스크림4》가 돌아왔다. 아이폰이 4G 드림을 날리니 이제는 영화 제목도 따라하고 지랄들이다. 한술 더 떠 1년 만에 돌아오자마자 6만까지 연출할 계획도 세웠다. 이걸 참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 무식하다고 해야 하나. 어찌됐건 '헬로우~시드니'를 외치는 살인마가 극장가에 돌아온 걸 보니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온 건 확실하다. 이번 작품은 원년 멤버인 니브 캠퍼, 커트니 쿡스가 다시 출연하지만 이런 뉴리더 여자 배우에 줄 관심 따위는 없다. 공포영화는 세련하게 빠진 아가씨의 비명소리를 듣는 게 재미 아닌가!

다행히 《스크림 4》에는 할리우드가 주목하는 귀요미 여배우 엠마 로버츠, 헤이트 파넬터이 루시 해일 3인방이 출연한다. 이 재미의 백마 아가씨는 역시 엠마 로버츠다. 줄리아 로버츠의 조기로 복잡한 입으로 시원한 웃음을 날리는 모습까지 속 빼놓은 그녀는 남자를 영혼 흡입하기 딱 좋게 생겼다.

11살 때 처음 연기를 시작했고, 고모와 함께 공백을 맞춘 《아메리칸 스윗 하트》와 《앨런 타이더》로 경력을 쌓더니 2008년에는 《라 인라이브》에 출연해 남자 주인공로리 컬킨의 일을 빼놓는다. 영화 속 화끈한 베드스은 전 세계 수컷의 인기를 증명시켰다. 그리고 안구가 정화된 수컷들은 로리 컬킨의 절제적인 인티 세력으로 거듭났다.

사실 《스크림 4》가 흥자와 장르 비틀기를 하건 말건 그런 상관할 바 아니다. 우리는 그저 영화 속 엠마 로버츠와 함께 극장에서 시시할정하게 웃으며, 신나게 비명을 지를 준비를 하면 그만이다. 외쳐 스크림!

스크림 4G
6월 9일 개봉





견자단, 관우 그리고 거짓말

견자단이 무슨 아리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 여친을 끌고, 견 형의 새 영화를 보러 가려면? 일단 뺑을 좀 쳐야겠지. BY 송준민



예고편 보기가기

구라 1 “《300》을 능가하는 색시 침승남 견자단”

● **뺑카 포인트**
 견주인공 견자단은 요즘 중국 최고의 색시 스타!
 견무술감독 출신의 한상봉메 《300》을 능가하는 남자의 근육을 느껴라!
 견적을 압도하는 9억2천700만대장권

● **사실은...**
 견중국 최고 액션스타지만 의외로 코 핑수 넓은 동네 분석집 주인 견러닝타임 내내 가져다간만 걸치고 뛰어다니길 갑옷 좀 입으라!
 견조조위의 투사조차 슬픈 키 175cm 루저 관우

구라 2 “《사릉과 전쟁》, 《보다이드》가 합쳐진 《차형의 시령의 타이타닉》”

● **뺑카 포인트**
 견유미의 여자가 될 기원을 묵묵바쳐 보호하는 관우. 그래서 그런 관우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두 영웅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인과 사랑을 얻기 위한 사릉의 차형적 유혹 그리고 전장에서 펼쳐지는 위험한 로맨스

● **사실은...**
 견옛사람이 원수가 되어 돌아왔다. 애물단지도 이런 애물단지가 없다. 관우가 너무 강해서 일부러 핸디캡을 준 건가? 아뵘거나 엄청난 여자와 영리한 고생이란 걸 전직에 깨달은 관우. 이거 뭐 생물이 따로 있다.

구라 3 “군주와 군신의 금저린 사랑”

● **뺑카 포인트**
 견미중년 조조는 선물, 음식, 술을 가져와 관우를 유혹한다.
 견웃살눈에 조조가 흥분했다! 땀!
 견두 남자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기원은 자신과 조조 중앙지택일 하라며 다그친다.

● **사실은...**
 견사실
 견이것도 사실
 견어, 음, 사실 근데 뭔가 잘못되어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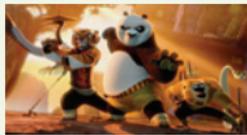


이달의 개봉작: 흥 vs 망

[쿵푸팬더 2 5월 26일 개봉]

뺑 뽀통령과 맞짱 뜯 만한 동물 농성식 어린이 영화 같지만 좌절과 복수, 수련과 욕도라는 70년대 골든 하베스트 쿵푸 영화들의 구조를 유머러스하게 빌려오며 각 볼라시 일당난 유머를 가미한 코믹 액션 무비다. 이게 얼마나 유히했나? 1만 국내 관객이 467만 명이었다. 더구나 이번엔 3D다.

뺑 전체 관람가의 저주, 극장을 뛰어다니는 사막한 꼬맹이들과 정실의 대결을 펼쳐야 한다.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6월 2일 개봉]

뺑 친구들만 적이 될 수밖에 없는 둘, 같은 풀연변이자인 있는 집 자식으로 유복하게 자란 데다가 상대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찰스프롬페서 지, 독약사 유테인로 태어나 온갖 괴상하다고 할 수 있는 건 파피콘이 에릭(에그시드). 엑스맨 3가 엄청난 풀연변이들의 같은 고뇌가 다시 돌아왔다.

뺑 물의 갈 길 다르다는 건 변한 일, 남은 건 그들을 따르는 유린트들의 초능력 잔치를 보는 일인데 벌써 네 번째라 신기미가 일하다.



[그린 랜턴: 반지의 선택 6월 16일 개봉]

뺑 마블 코믹스가 올 여름 (토르)를 출성시키며 '어벤저스'를 핵심이 준비하는 가운데 DC 코믹스도 질 수 없다는 듯 '자스틴 리그'의 청사자인 (그린 랜턴)을 선 보인다. 그것도 무려 2억 달러가 넘는 올 여름 최고 예산을 들인 블록버스터다.

뺑 그린 랜턴이 누구야? 국내 인지도 제로. 라틴계 린 플레시안이 더 유명할 지경.



나도 관우다 그대 너들도 관우였지



민화 삼국지 60(1971)
 유비, 관우, 자이빙비 90년대를 국민연극에서 보낸 사내에게 삼국지란 바로 이것



기러진 커피를 삼시어!

조관우(1994)



코메이 삼국지(1988)
 2세대 1세대 (문명)이 왔던 20세기에는 (삼국지)가 있었다. 전국 통일을 위해 새벽 공기를 마시고, 학명 까짜다가 분사관유를 당한 수많은 청춘이여 그대를 기억하는가?



SD2팀 삼국전(2010)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 인 건담이 삼국 자체로 SD2팀 관우의 혼신을 다한 표정 연기가 일광이다. 관우 하면 녹색이라는 TPO에도 충실하다.



일기장천(2007)
 여고생은 시대의 요구인가? 삼국지자제 과격한 액션과 핏아친 고복으로 승화시키는 2세대 여고생 장인 일의 위엄 워워~ 존슨, 진정해상대는 관우라고

디아블로3 커밍 쏘!

빠르면 올 7월에는 <디아블로3>를 클로즈 베타테스트로 만나볼 수 있겠는데? BY 김광현



게임 동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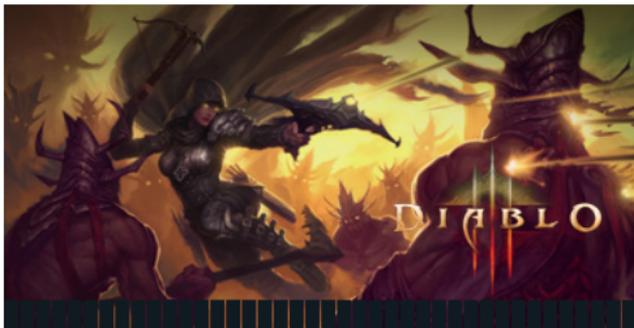
게임계 이모저모

이들의 게임 같은 소식만 모아봤다.

본문 상단에서 PlayStation3/4와 Xbox360을 구입하신 분께만 제공됩니다.

●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킹 서비스 탈리다

과거의 명성은 개나 쥐버린 소니컴퓨터 엔터테인먼트(SCE)가 또 한 번 해냈다.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킹(PSN) 서비스 장애로 전 세계적으로 최대 700만 건의 게임 인 장화가 유출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소니가 사설의 취약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사는 사태 때도 그랬지만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 알도가 1등이로군



▶ 디아블로3는?

인생 퇴겡 전문 게임이자 궁극의 액션 롤플레이 게임. 이번 시리즈 <디아블로3>는 아반 용사, 의술사, 마법사, 수도사 또는 악마 사냥꾼 중 하나를 골라 게임 속 세상에 존재하는 '성역(Sanctuary)'으로 돌아간 후 악의 세력과 무닥거리를 하는 내용이다. 사실 스토리 라인 따윈 중요치 않다. <디아블로3>는 어차피 공격적이고 희귀한 아이템을 쟁민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게임이니가 말이다.

1. 비공개 테스트 커밍 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대장 마이크 모하임이 최근 던전 떡밥이 화제다. "〈디아블로3〉의 내부 테스트는 진행 중이며 올 3분기에는 클로즈 베타테스트 실시를 기대한다"라는 그의 말이 전해지자 주요 포털은 <디아블로3> 소식으로 들끓었다. 비공개 베타테스트가 3분기 빠르면 7월 중에 실시한다던 블리자드의 말이나 올해 안에 <디아블로3>가 정식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2009년 <외우>, 2009년 <스타크래프트2>의 베타테스트가 연기된 것을 떠올리며 모든 게 꿈이라고 믿고 싶은 거다. <디아블로3>로 명망할 자신의 인생이 영화처럼 눈앞에 생생히 그려질 테니 말이다.

2. '디아블로 데이'를 주목하라

블리자드는 <디아블로>와 관련한 궁극적인 일들을 진행할 때 꼭 6월을 선택하는 버릇이 있다. <디아블로2>도 2000년 6월, <디아블로2> 확장팩 <파괴의 군주>도 2006년 6월에 발매했다. <디아블로3> 개발 소식마저 2008년 6월에 발표됐다. 요 몇 년간 <디아블로3> 관련 소식이 6월에 공개되는 일은 적었지만 올해는 기대를 저하하다. 마이크 모하임의 3분기 베타테스트 드랍과 6월 28~29일 대표되는 '디아블로 데이' 기간이 잘 맞아 떨어지자 때문. 만약 <디아블로3>가 클로즈 베타테스트를 진행한다던 <외우>, <스타크래프트>처럼 5~6개월 정도의 기간일 가능성이 높다.

3. 대폭 손질한 용병 시스템

전작에서 짜리 취급받던 용병이 한괄 탈락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외우>에서 주인공을 돕는 소환수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거다. 차이점이 있다면 명령하지 않아도 주인공을 도와 자동 전투에 나선다는 것. 용병은 방어와 치유 역할을 하는 기사 단원, 원거리 공격을 전담하는 불한당, 플레이에 강화와 원거리를 지원하는 요술사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이번 작품의 용병은 주인공처럼 각자 고유인 4가지 스킬트리를 보유하고 있으니 입맛에 맞는 캐릭터로 키우는 재미도 쏠쏠할 거다. 하지만 아이템 수집이 백미인 <디아블로3>에서 용병에게 2개의 무가밖에 쥐어줄 수 없다는 건 무척이나 안타까운 대목이다.

● Wii 차세대기에 올레 등장?

닌텐도는 2012년이나 되어야 차세대 게임기가 발매될 거라고 밝혔지만, 최근 해의 주요 게임 사이트에선 올해 안에 워의 후속 모델이 등장할 거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XBOX360의 카세트 때문에 안드로이드로 때려버린 워의 후속 모델은 지금의 등보급 스펙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6월 7일 개최하는 E3에서 공개할 거라고 하니 닌텐도 빠움이는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



● 스타크래프트2의 부진 이유

최근 <스타크래프트2>가 우리나라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타크래프트2>의 저차권을 인정하지 않는 병신 협회의 속 좁음 때문이었지만 PC 배워가기가 어려운 온라인 판매 방식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 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게임을 만든 블리자드에 돈 한 푼 안 주고 냉방을 하려는 이들의 미친 심보는 어찌하면 좋을까





군미필 가수 군대 생각만 하면 딱지지만 음악 하나는 먹어주니까 참는다 BY 김현민

음반 BEST 3



이현도

면제 이유: 아르헨도로 번신
추천 음반: 〈포스 듀스〉 / 필칭곡: 상처



1996년 당시 우리나라에 힙합이란 장르가 없어서던 스물음으로 분류된 비온의(?) 듀오 듀스의 3집 음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힙합. 그리고 댄스음악의 골레를 벗어난 듀스의 마지막 음반이다. 샤태지와 아이들을 옛 기억의 디스크 포스 넘치는 음악은 당시 대중을 압도했다. 아르헨도를 군대 문제로만 허투루 까기 힘든 게 바로 이 음반 때문이다. 힙합, 댄스, 펑크는 물론 트로트 멜로디까지 딱 즉구르듯 민진 이현도의 천재성과 호소력 깊은 감성까지 목소리가 만나면서 명반이 탄생했다. 요즘 힙합 듀오란 것들은 마이너 마우스처럼 까블까블가나 슈프림 팀처럼 폼 집을 줄만 알았지 듀스처럼 존재감 있는 음악을 만들 줄 모른다든 것이므로, 이들의 대항함을 짐작할 수 있다. 뼈저리게 모자란 쓰러진 힙합 피플이라 생각한 새끼들 반성해라.

MAXIM SAYS 그거야 저상에 붙어있을 합 합 크루들이 군대는 더 잘 모른다지? 예매하러의 타 오빠를 예가하는 건 아니냐. 골릭



임재범

면제 이유: 마약 폭풍 흡입
추천 음반: 〈외인부대〉 / 필칭곡: 즐리



임재범의 실력을 (나는 가수다)의 모습으로만 평가하면 레알 상상하다. 물론 고음이 갈라지고, 백사리가 난 상태에서도 청중을 압도하지만 1998년 레알 전성기 시절의 목소리를 들으면 남지도 질질 쌓 정도였다. 특히 1998년 보컬 임재범 드림 손걸호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손우현 부활 출신 기타리스트 이지용, 베이시스트 박문일이 의기투합해 만든 메탈 밴드 외인부대 시절의 임재범은 단연 최고다. 당시로는 피격위주의 트윈 기타 시스템을 도입한 외인부대는 보컬 위주의 음악을 추구했기에 재범신의 마성이 날것 그대로 드러난다. 지금과 차원이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선하가 임재범의 노래를 듣고 왜 좌절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거다. 그러나 '사랑'보다 깊은 상처'와 '고해'를 듣고 임재범의 실력에 대해 운운하면 진짜 곤란해진다. 말했나?

MAXIM SAYS 목이 땀방이가 간 상태에도 듣는 사명을 압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임재범이다. 그가 마약을 안 하고 군대 임진치 다왔으면 요즘 죽었나.



샤태지

면제 이유: 정신 질환
추천 음반: 〈샤태지5〉 / 필칭곡: 테이코2



대중음악계의 캔디 샤태지는 늘 자신의 길을 간다. 표절 사비, 이자야 사건? 이런 건 신경도 안 쓴다. 이런 거들의 체제로 된 실력이 공공만 이라면 첫 솔로 음반 〈샤태지5〉를 들어봐라. 발매 당시에는 수많은 평론가들이 X구린 음반이라고 혹평했지만 지금은 '들음 때마다 세로움을 선사하는 최고의 음반'으로 재평가 받으며 명반 반열에 올랐다. 실형성 넘치는 시운드와 호호한 가사로 가득 찬 이 음반은 낯설고 동시에 묘한 중독성을 안겨준다. 음반 타어, 곡 이름은 옛 바꿔 먹었고, 가사는 뜻밖의 의미를 전하지 않음에도 한 번 들으면 전 곡을 정주행하기 전엔 멈추기 힘든 완성도 (샤태지5)의 모미다. 어쩌면 음반은 샤태지가 시운드라는 비유에 가사라는 실을 끼워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든 때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MAXIM SAYS 정신 질환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던 예기를 들었을 땐 행하진 좋았었다. 꼬꼬미 이자야 공짜가 맞아 싶었던 예기를 들으니 그럼도 한테?

예비역 가수의 명반 저 군대 다녀왔지 말입니다.

<p>유희열</p>	<p>유희열은 가수보다 프로듀서로서 역량이 빛났다. 다양한 역할 보임을 해주는 악기처럼 사 용하면서 노래 실력이 후지디는 악명을 울림이 극했다. 토미 의 도시락상이 돌아오는 세련된 음악이 되고 싶다면 4집 〈하나 이트 인 새롭음〉을 추천한다.</p>	<p>윤종신</p>	<p>유누님이 되고서 예능으로 다시 태어난 윤종신이지만 유재현의 피는 죽지 않았다. 무엇보다 감칠맛 나는 작사 실력은 아직 그런 한 사 할이 없다. 음반에서 일관된 스토리를 몰 흐르듯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그의 음악이 듣고 싶으면 4집 〈예 한드 더 소파잠〉을 추천한다.</p>	<p>장사익</p>	<p>개방 한벽 입고 동서에서 장기 두게 생긴 장사익이 입을 하는 순간 신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될 거다. 사랑의 소리대로 그 어떤 악기보다 울려퍼지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소리꾼 장사익의 음악이 듣고 싶다면 4집 〈꿈꾸는 세상〉을 추천한다.</p>
-------------------	---	-------------------	--	-------------------	---

알몸 연극 교수와 여자자 2 실체를 확인하다

사제 간의 끈끈한 정? 난 반달세 BY 권민

RTED

PLAY

→ 3D 시스템, VP 룸, 알몸 연극. 최근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교수와 여자자 2》에 붙은 수식어이다. 부른 기대를 안고 장대비를 들고 달려갔지만, 잠깐 아나 눈물 좀 닦고.

1 책 한 권 쓰고 남을 장황한 사족

90분의 라디오에서 극단 대표 김철웅 씨의 이야기가 10분이다. 공연 의도와 자신의 무용담 따위가 대부분인데, 주제를 미리 말하면 관객은 뭘 볼까 고민하기 싫을 똥다 지만. 또 '옴오 노름'이라는 음모론적인 홍보 문구와는 달리 업다해의 전라 노름은 단 7분. 게다가 남자 배우의 발연기 탓에 몰입도 흥분도 골 간다.

2 구운몽을 능가하는 허무한 스토리

작품을 다 보고 허무함에 빠진 적이 있는가? 극중 여자자인 업다해가 발기 부전인 교수를 치료하기 위해 발인 정사가 모두 끊어졌다.

이야기 전개를 끌고 끌어 간신히 연어낸 정사 장면을 결국엔 폼으로 바꾸는 무책임한 구성은 허무함을 넘어 인생무상을 느끼게 한다. 김민중을 가뿐히 생색 먹은 천재 나셨네.

3 내용보다 더 볼 것 있는 3D TV

무책임한 스토리보다 더 황당한 것은 무대 위에 딱 하나 놓인 가정용 3D TV다. TV에서는 교수의 아한 상상이 영상으로 펼쳐진다. 여자의 거품 목욕 장면이나 80년대 짝은 것 같은 알(해)이오의 예로 영화가 나온다. 리얼리티 때문이었다면 리얼리 관객에게 단백질 인형을 하나씩 안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반납은 안 했겠지.

4 용도를 짐작하게 하는 VIP룸

무대 왼쪽에 바락 설치한 최대 5명 정원의 VIP 룸 티켓 가격은 20만 원. 특수 제작하여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다. VIP 관객은 뒷문을 이용해 분장실을 거쳐 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극단 대표의 말로는 사회 자영업자가 많이 찾았다고 한다. 사회의 자영업자 5명이 한자리에서 맘을 흘리며 거칠게 허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굳이 그 문을 열어 보고 싶지는 않았다. 식성이라서.

5 내 돈 내내! 내 돈 내내!

에디터가 간 날 20대 관객은 아무도 없었다. 5만 원만 투자해도 딱매질이 날릴엔 세상사에게 게다가 '전라 노름' 로 생긴 뜨거운 화제만큼 작품을 뜨겁지도 못했다. 성을 대충고 보여주지 위해 만들었지만 실상은 주부지 특별부록 부부생활 가이드보다 못했다. 굳이 40대 여자씨와 이모님의 정사 장면을 유료로 감상하고 싶다면 말리자는 없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MAXIM 정가구독을.

당했다.



소중한 TV가 비 맞지 마

대략 난감한 홍보 부스와 TV. 여기서 육망을 자극하는 영상을 보여준다는데, 그럭 흑하진 않았다.



술을 시시

공연이 끝나고 술을 시시 3D 안경을 반쯤 벗어 달긴 스노우볼을 돌려준다. 사람이 많이 보일 때 마구 호객하는 스태프 모습이 대단하대.



보는 걸고, 쓰는 팔리고

대표소 암 풍경. 다른 극장의 관객들에 비해 이곳 관객들은 조심스럽게 티켓을 구입한 후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날 《교수와 여자자 2》를 보러 온 미이라에 사는 김혜준(2) 씨는 "단지 이 작품이 예술인지 와실인지 궁금해 보러왔다"고 공색하게 주절주절.

그 외 외설 논란 언급

의성 비영 ZERO의 연극이 또 있네?



눈이 미끄러졌.

논쟁 (La Dispute)

인간의 감정을 실험하기 위해 동년 남자를 빗겨서 격리시켜 놓았다가 만나게 하는 내용의 프랑스 연극.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초연되었다. 빗기는 것보다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에 정점을 두었다는 평가. 막상 공연한 이들 중에는 《논쟁》을 음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라》 이후 잠시 소강 상태였던 누드 연극 논란의 사발점이 됐다.

나는 아한 여자자 좋다

《교수와 여자자 2》를 만든 극단 대표가 2010년 마영수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작품. 양의 수술 전의 이따위와 미고 출신 차수정을 입세워 대대적인 흥행 불미를 했다. 그러나 《교수와 여자자》와 마찬가지로 배우들의 발연기와 뜨겁기는 상의 말로만 관객을 뽀뽀하게 만들었다. 전라 노름은 아-했지만 외설과 예속에 대한 뜨거운 논란은 풀렸다.

나생문(羅生門)

논란이 되기에는 살짝 역할한 경우. 2009년 한국 초연 때부터 노름은 있었지만 2009년 누드 연극 논쟁이 일면서 세상이 공분을 겪게 되었다. 일본 작품으로 1960년에 발표된 단편소설이 원작이다. 한 부인이 시위대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 장면에서 생생한 노출이 문제였다. 그러나 장면이 선정적이었던 흥행력이어서 지금은 논쟁이 사라졌다.



촬영장 잊보기

RATED

WANTED

한성피플

록 밴드 청산거리 출신의 테이+만신창이 밴드의 기타리스트 타토+영화 <신데렐라> OST를 만든 슈퍼간판 상원=한성피플? 레알 진상?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한성피플이라는 그룹명을 걸고넘어지는 사람이 많아 피곤했었다.

(모두) 위트를 주려고 지은 건데 잘 안 먹힌다(웃음).

우리나라는 원래 유머에 인색하다. 당성들은 한성 한 음악을 하고 싶은 건가?

(모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듣기 쉬운 음악을 만들 거다. 대중음악을 진부하게 여기는 이들의 대표적인 착각이 바로 음악 퀄리티와 대중성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다. 대중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고 하면 쉬운 음악을 한다고 보기 쉽다. 오히려 반대다. 대중의 마음에 들면서도 음악 퀄리티를 높여야만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는 수식도 없고 장르도 없다. 사람들이 재미로 봐야 마뎀 파이프와 비교하는 질문을 하기에 장르를 구분하는 것뿐이다. 그냥 '한성피플'의 음악 색깔이 만들어 지길 원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테이) 물론이다. 나는 유경향지대(웃음). 데뷔했을 때 "어떤 선배를 닮고 싶냐?" "목소리가 임재현, 박효신, 성시경을 닮았는데, 이유로 남용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나?" 라는 질문을 실컷 물어보더

라. 그렇지 않단 꾸준한 노래를 부르다 보니 테이만의 색깔이 나왔다. 결국 대중이 정의할 거다.

록 페스티벌에 참여할 생각도 있나?

(모두) 우선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시몬데이에 불췌 흥대 클럽에 나와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멤버끼리 정말 친해 보인다. 수컷끼리 같이 다니는 게 즐거운가?

(모두) 밴드는 음악 때문에 멤버가 구성되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일상의 코드, 주파수가 맞는 사람끼리 묻치는 거다. 영화는 2~3년 전 먼저 밴드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도 당시 테이가 빌라드 활동 중이라 기뻐했음 정도다.

빌라드 가수가 밴드를 결성하는 일이 흔하진 않다.

(테이) 밴드 음악은 트렌드에 따라서 안고도 된다. 물론 가요계의 흐름과 반대로 가면 소외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총분히 경계하고 있고, 음악계의 숨은 고수 영호(김반가)가 있어 걱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선배 가수가 그에게 편곡을 맡긴다.



영호

"인간인 작곡가에서 연인으로 업그레이드 완료"

최영호 씨는 사진을 찍는 게 영 불편해 보인다.
(테이) 그런데 사진 잘 찍었어?
(영호) 아직 너무 어렵대(웃음).

이산군을 담은 것도 같다. 얼핏 보면... 얼핏.
(테이) 그렇게 말이다. 라디오 생방송이 끝나면 팬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전에는 내 팬클럽 '테이 아'가 간식은 물론이고, 도시락도 사주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런데 2~3년 정도 쉬고 나오니까 이제는 슈퍼 간한 영호의 팬만 있더라(웃음).

그 많은 팬은 다 어디로 간 건가?
(테이) 취직했을 거라 믿는다. 자취 시키고 있었으면 다들 왔

을 텐데 낫 시간이었으니까 그렇게 위인을 삼았대(웃음).
슈퍼간한 팬들은 다 젊은 차차들이인가?
(테이)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더 열 받는대(웃음). 그들도 다 직장이었다.
(테이) 진짜 부럽다. 나는 어머니한테 감차리도 보내줄라고 해야겠다.

인터뷰에서 늘 테이의 인간성이 베스트라고 말했다. 집대성 엔트 아니는가?
(영호) 정말이다. 2005~2006년도 즈음 음반에 참여하면서 테이를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본 가수 중 제일 친국이다. 사람 냄새가 풀풀 난다.

사람 냄새나면 티로도 만만치 않다. 시투리가 아주 철저하다.
(테이) 많이 고쳤다. 테이와 둘이 있을 때는 끝내준다.
(영호) 무슨 말을 하든지 하지도 못 알아들을 정도다(웃음).

솔직히 사운드를 잘 잡는 기타리스트라고 해서 세련된 사람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가수 박성민이로군.
(테이)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머리를 깎고 오겠다.

타로술사라는 별명이 있더라. 도대체 어떤 별명?
(테이) 타로를 실수로 타투라고 적은 기사 때문에 생긴 별명이다. 이런 기사를 찾아낸 사람이 대단할 것 같다. 사실 타로라고 하면 타티라고 부르던 상관없다.

타투어스와 기타리스트 투정을 푸는 이유는 뭔가?
(테이) 두 가지 일 모두 좋다. 하나라도 잘해야 하는데 내가 육성이 많은 편이다. 대신 여자는 절대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다. 어머니가 하나도 여자도 하나도 아냐.

그때도 수명 때문에 여자들에게 7% 정도는 먹힌다면서?
(테이) 7%밖에 안 먹히는 게 문제다.

입만 열지 않으면 지적으로 보이는 외모다.
(테이) 입만 열지 않으면 완벽주의(차려) 보일 거다. 흔하들 '끼드' 라고 부르지 아미?
(테이) 아, 정말 까고 싶지만. 심성은 좋은 친구다.



타로

"저 박성민 아니잖습니까. 오해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호) 어릴 때부터 대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테이) 오해다. 데뷔 때도 사람들은 날 30대로 알았다. 그 모습이 중학교 2학년 때 완성됐다.

변명은 필요 없다. 잘생긴 사람이 싸움도 잘하더라!
(테이) 중학교 시절에는 잘생긴 것과 거리가 멀었다. 못 믿겠다면 찾아봐라 머리를 자르면 다시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됐고, 수컷이 들어가 할 음악이나 추천해달라.
(테이) 댄스피플 음악이 참 좋는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웃음).
(영호) 트렌드한 음악을 듣고 싶다면 인코니트로.
(테이) 음악 하는 사람은 대중이 자신의 음악을 사랑 해주길 원한다. 앞으로는 밴드 음악이 부흥할 거다. 걸그룹 좋아하는 남자들이라고 형들 음악 싫어하면 안 돼. 그러나 흥대에서 댄스피플이 공연하면 같이 외서 즐겨주도록!

오케이, MAXIM의 댄스피플이 출동하겠네.



테이

"(철과) 다음 대전 상대는 누구냐? 바로 너냐?"

테이는 (오락 스타)로 제2의 전성기를 열었다.
(테이) 잘 모르겠다(웃음). 재미가 있다가도 괜히 시작했다는 후회도 했다. 일주일에 한 곡을 소화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

그런 것 치고는 무대에서 즐거워 보였다.
(테이) 발라드 가수로 데뷔할 때가 생각났다(웃음).

오락실에서 격투 게임을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당시 발라드를 부를 때였지?
(테이) 실제로 오락실에 갔다가 찍힌 거니까 변명할 수도 없었다(웃음).
(테이) 누가 봐도 초집중된 상황이었다.
(테이) 요즘 오락실에선 어린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락실이 대부분 지하 1층에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무서워한다(웃음).

하지만 당신이 오락실에서 화를 내면 정말 무서울 것 같다.
(테이) 싸움도 잘한다.



변신한 가수형남
보라기

남자의 변신은 무죄

엄밀히 따지려면 무죄가 아닌 무시다.
여차피 당신도 수컷의 변신 따위 관심 없잖아? WORDS BY 정아비

안 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가 보은병과 자연산 드림으로 큰 웃음을 선사하기 전에도 일 만만 사람은 다 알았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웬만한 코미디언 뺨을 후려칠 정도로 웃긴다는 사실을, 그래서 YTN의 <돌발영상>이 공중파의 예능 프로그램을 위협할 만큼 재미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정치 현장에서 뉴스거리가 되지 못한 아쉬운 정면을 전하는 <돌발영상>임에도 이렇게 재미있다니! 한가로움에 잠겨 동전 통의 100원짜리를 연도순으로 정리하고서도 본 이 풀리지 않을 때면 <돌발영상>을 몰아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자들이 올리브TV를 틀어놓고 멍 때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 되시겠다.



나에게 반했음?

모래시계 검사는 꽃남방을 사랑해?

얼마 전에 미뤄둔 방송을 몰아보던 중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건 바로 꽃남방 나이 그득한 이저 씨로 잠깐의 <돌발영상>에 꽃남방이 아닌 일인가. 더 놀라운 건 꽃남방을 입은 사내가 한나라당 의원 총회 제일 앉자리를 차지한 '모래시계 검사' 출신 4선의 스타 국회의원이자 현재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홍준표 의원이란 사실이다. "유쾌한 농담 따위 버린 지 오래다" 라고 외칠 기세의 중년남이 퇴물 비텐데나 입을 너저분한 디자인의 화려한 꽃남방을 입은 데에 어떤 시선이 있었든 걸까?



늙은 남자의 변신에 줄 관심 따윈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연 따위는 없다. 인터넷에서 "홍준표 꽃남방" 을 검색했다니 그저 흥 의원은 빨간색과 꽃무늬를 즐겨 입는다는 단신 기사 하나뿐이었다. 광활한 인터넷 세상에 난립하는 언론 매체 정치 블로그 중 홍준표 의원의 꽃남방을 주목한 곳이 단 한 곳에 불과했다. 그리고 보니 가끔 나이 든 이저 씨가 헤어스타일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거나 평생 볼 일 없던 스타일의 옷을 입고 등장했을 때 주변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지만 늙은 남자의 변신은 '무시' 품 되는 걸까.



급격한 변신으로, 급격히 망한 가스 브룩스

팝 음악계에서도 증권 뮤직처럼 급격한 변신을 시도했으나 대중이 가볍게 즈려뭍은 예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가스 브룩스(Garth Brooks)다. 가스 브룩스는 아직도 컨트리음악 하면 가장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90년대 컨트리음악의 킨스타더다. 컨트리음악을 잘 모른다면 역정에 가까운 음반을 팔아치워 비틀스에 이어 역대

음반판매량 2위를 기록한 새나라는 점만 기억해도 무리다. 그는 슈퍼스타지만 장모님이 고른 것 같은 청바지에 날감 팔자리를 단정히 집어넣고, 카우보이모자를 쓴 전형적인 미국 남부 동네 아저씨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뿔족 마리에소모키 화장을 한 후 차도남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심지어 이름도 생일조차 전혀 다른 가상의 인물을 연기했다.

사람들은 익숙함이 깨어지지 않지 않는다. 세시봉의 송창식이 데스 메탈을 시도한 것만큼 충격적인 가스 브룩스의 변신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는 원래 '크리스 게인스'라는 가상의 뮤직비디오를 음악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본격적인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분위기를 띄우려고 영화에 쓸 곡을 담은 음반을 미리 제작해서 발매했다. 보통 영화가 개봉된 후 사운드트랙이 발매되는 발상을 뒤집은 신선한 마케팅 아이디어였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사람들은 가스 브룩스의 새로운 콘셉트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더라도 좋게 봐주지 않았

다. 실상가스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한 영화사는 영화 자체를 알아버렸다. 색어도 준չ라고 음반은 200만 장 밖에 팔렸지만 1000만 장 단위의 음반을 팔아치우는 게 예상된 가스 브룩스에게는 아주 큰 상처였다.



불량함에서 단정함으로, 그리고 다시 불량함으로 키스

가스 브룩스가 단정함에서 불량함으로 의도했다면 아오는 반대로 화려한 분장과 과장된 이미지로 인기를 모은 록 밴드 키스(Kiss)는 어느 날 갑자기 민중인모드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키스의 음악은 몰라도 트레이드마크인 분장은 당신도 낯설지 않을 거다. 인기 만화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의 메탈 신 '크라이저'의 작게 선조록 되는 이가 바로 키스다. 사실 만화 제록도 키스의 하트라인 디트

로이트 록 시티'에서 따왔고, 마츠야마 겐이치 주연의 영화에는 키스의 멤버 진 시몬즈가 특별 출연했다. 키스의 변신은 나름 성공적이어서 분장을 지우려도 한동안 주가가 올랐고, 활동에도 탄력이 붙었다. 하지만 황금기에 보여준 강렬한 모습을 잊지 못한 팬들의 성화로 요즘은 다시 분장을 하고 다닌다. 안티에이징이 대세인 요즘 피부 탄력 따위는 개나 뉘 바리라는 듯이 오늘도 하도 메이크업을 반복하는 키스 아저씨들에게 경의를 표할 뿐이다.



변신이나? 노망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사람들이 나이 든 남자의 변신에 가타부타 코멘트하기 꺼리는 이유는 만에 하나 그것도 노망이나 치매일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치광이도 언급할 팻 붐(Pat Boone)의 경우가 좋은 예다. 팻 붐은 90년대생으로 엘비스와 함께 찬성기를 구가했던 달콤한 목소리의 신사 보컬리스트다. 누가 꼬드겼는지 모르겠지만 환갑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No More Mr. Nice Guy'(착한 사람 노릇은 그만하겠네?)고 선언하더니 디 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

터(Smoke On The Water)'나 메릴라리의 '엔터 샌드맨(Enter Sandman)' 같은 헤비메탈 명곡을 리메이크한 앨범을 들고 나왔다. 고급 스포츠 장장이 어울릴 법한 노신사가 맨 살에 가죽옷을 입고 등장했다. 실정 정신이 안드레메다로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실감 순간이었다. 다행히 팻 붐은 주님의 은총으로 재정신을 찾았는지 이후로는 가스펠 음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그래도 변신하는 늙은 남은 출 멋있다

까놓고 말해 나이가 들면 튀지 않고 무뎠던 것을 찾는 편이 대부분이다. 주무늬는 아수룩 특은 트러블레이 커저라는 좀 더 어린 세대에 양보하고 싶어진다. 더구나 자기가 익숙해지는 자기의 '스티일'을 바꾸는 건 더 큰 용기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미용실에서 또는 신사복 매장에서 직원의 격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한 채 용감하게 거리로 나서는 늙은 남자에게는 나는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흥준보 의원은 '원래 빨간색과 꽃무늬를 좋아한다'고 한다. 인스피레이션은 여전히 한 말이다.

HOURS
TO
LIVE

나도 가수다 김지수

백수에서 가수로 업그레이드 성공한 신디앨리를 만났다.

By 김광호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박민호/누리



당신은 이제 24시간 후에 죽는다. 어떻게 죽고 싶나?

죽기 전에 미국 가서 제이슨 마르코 형님을 꼭 봐야 한다. 아, 12시간 안에 미국은 못 가요? 가족, 친구들이랑 놀다가 죽기 전에 꼭 단주를 원상하고 죽을 거다.

유연은 안 나가나?

그런 건 뭐하려 남가나. 굳이 한미다하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잠시 있었다는 걸 잊지 말라"라" 그런데 죽으면 아차 피다 잊히는 것 아닌가?

당신 90년생처럼 나이가 들어 보이면 좋은 일이 더 많나. 나쁜 일이 더 많나?

고등학교 때도 이 외모라서 예들이 안 걸렸다. 그게 일고는 다 나빴다. 나도 신 분종 검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술집 가면 나만 신분종 검사 안 한다. 내 나이를 잘 모르는 누나편들이 무조건 "오빠"라고 부르는 건 재미있다.

이상해씨, 메기, 두꺼비... 어떤 별명이 가장 마음에 드나?

별로 자상한 아저씨 같은 이미지잖아? 메기가 가깝고 이상적이다. 요즘은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다쳐서 사람들이 털보라고 안 부른다. 대중에게 비취

는 이미지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건데 예전 같으면 계속 털을 길렀을 거다.

〈슈퍼스타K〉 출연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

비빔밥이다. 예전에는 거리 공연에서 모은 백 원짜리로 맨날 PC방에 10시간씩 차박하 게임하고 술 마셨다. 요즘은 재미있는 일들을 워낙 많이 겪으니 게임을 해도 흥이 안 난다.

그때도 제일 많이 달라진 건 외모인 것 같다. 도대체 얼마나 뻗었나?

7kg 당시에는 내가 정말 갸시 난다고 생각했는데 옛날 사진을 보니 귀에 살이 찌서 안경이 빠졌어 있었다.

죽기 전에 고치고 싶은 곳은 없나?

넌은 콧구멍 허벅지 지방 분해도 하고 싶다. 허벅지가 너무 굵어서 예쁜 바지를 못 입는다. 강승윤처럼 한 번 말라보는 게 소원이다.

〈슈퍼스타K〉 남자 출연자 중에서 강승윤이 제일 부러웠나?

존 박. 나랑 같이 형은 미친 듯이 살 빼고 있는 웃이 없었는데 존 형은 먹을 거 다 먹어도 뻗지 않는 웃이 다 있었다. 그때 진짜 부러웠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때리고 싶은 사람은... 존 박?

아니. 비둘기 길에 돌아다니면 짜증난다. 옛날에는 비둘기가 너무 싫어서 비비탄총으로 쏘기도 했다.

장재인이 여자로 보이 적은 없나?

슈퍼워킹 때는 여자로 보였지(웃음). 재인 씨는 참 예쁘고 기타도 잘 치네"라고 생각했다.

들어 한창?

참 귀여운 동생이고 정말 친한데 가끔 연락이 잘 안 된다. 하지만 예가 이쁘고 귀여워서 미워할 수가 없다. 재인이가 "오빠~" 이러면 모든 게 다 용서된다.

이번에 나온 앨범의 타이틀곡 제목이 〈너무 그리웠다〉. 지금 당신에게 정말 그리운 건?

옛날이 가끔 그리다. 그때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털 날리기를 내놓고 슬리퍼 신고 돌아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밀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일주일만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나중에 인기가 없으면 저절로 돌아갈 날이 오겠지? 그런 날이 없길 바라요(웃음).

길가다 사람들이 많이 일하면 귀찮나?

완전 고맙다. 옛날 같으면 누가 날 이렇게 좋아해주겠나. 사진 한 장 찍자 그러면 당연히 짜드러와(웃음). 사진 찍는 게 뭐가 어렵나?

죽기 전에 없애야 할 것은?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갔던 모든 흔적과 밥 냄새 그리고 주방에서 식칼 들고 춤추는 동영상. 친구들 휴대폰에 있는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친구들이 퍼뜨린다고 감주면 무조건 밥 사줘야 한다. 아, 이거 기사에 나가면 안 되는데.

죽어도 먹기 싫은 음식이 있다면?

오이. 20만 보면 그냥 노 나온다.

당신이 죽으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

할머니. 슈퍼워킹 때 내가 탈락하면 심장이비 걸리실까 봐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모으고 왔다. 할머니께서 방송 볼 때마다 우셨더라.

죽기 전 딱 한 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죽을 건가?

지금 새로운 곡을 써서 바로 공연할 거다. 가사는 "나는 24시간 후에 죽지만 당신은 나를 잊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아, 이 주제 참 좋다. 나중에 곡 쓸 때 참고해야겠다. MAXM 고맙다.

아이패드 뒀다 뭐 하나, MAXIM 안 보고?

※ 앱스토어에서 [맥심], [MAXIM] 을 검색하세요!

현재 모든 월호는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애플잡이 검수중입니다.
평균 일주일이면 애플잡이와 랜덤으로 검수가 이루어짐으로
항상 이상 검리며 신간 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점 사피드리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Pad / iPhone
MAXIM 출시 완료

iPad

iPad에서 동영상, 고화질 확보를
확려한 인터랙티브 기능과 함께
시원한 화면에서 즐겨라!

iPhone

iPhone에서 하나의 통합된
App으로 MAXIM을 만나라!
무료 과월호가 잠팔하다!

MAXIM 아이패드 독자를 위한 SPECIAL GIFT

“무료 앱만 받아도 선물이 쏟아진다!”

이벤트에 응모한 독자 중에 **매월 50명을 추첨**하여 아래 선물을 마구 쏘겠다.



선물1
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2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선물2
공연을 볼 수 없는
독자에게겐?



MAXIM iPad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월호 8권 패키지를 보내주마!
한 권도 빼놓을 수 없잖아?

OR

응모 방법

1 앱스토어에서 MAXIM 아이패드
App을 받는다.

2 아이패드로 MAXIM App을 열고
있는 사진을 아무거나 찍는다.

- 예 -



3 010-5199-1182 로 사진을 첨부한
MMS를 보낸다.

2011년 상반기 MAXIM이 뽑은 망작 스페셜

STUFF

FAIL



MOTOROLA / XOOM

아이패드2 대항마? 이 친구 농담이 과하구먼!

- **모토로라 증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시장을 선점하려고 모토로라에서 대치에 내놓은 증은 대치에 망했다. 올해 3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했지만 지금까지 판매량은 아이패드2의 하루 판매량과 비슷한 2만 5천 대 수준이다.
- **이게 문제다!** 아이패드와 비교해 배터리 파워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이 멸망의 결정적 이유다. 아이패드2보다 17g이나 무겁고, 안드로이드의 태블릿용 OS(이하 허니콤) 전용 앱이 구하러 가슴만큼이나 빈약한 상황인데 가격은 비등하니 마리에 총 맞은 놈이닝 이상 누가 지르겠냐. 고화질 동영상 감상하러면서 스피트포 갤럭시 S에서도 돌아가는 MKV 파일을 재생하지 못하는, 테그라2의 지랄 같은 동영상 고자 본능도 문제다. 아이패드의 흘러넘치는 앱을 포기하여 증은 선택한 유저에겐 무인코딩 동영상 재생만이 희망이었는데 이미지 좌절당한 셀. 게다가 아이패드2 수준의 매킨톡 알투미늄 보다는 바리치 않지만 싸구려 플라스틱 마감의 진수를 보여주는 조잡한 외관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
- **결론** 안드로이드 태블릿 흑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증 덕분엔 아쉽게도 자기하러던 모토로라는 올해 1분기에만 8,1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 할 말이 없다. 지금 내 눈에 흐르는 건 분분 명일 기다. 그쳐?
- **한마디로** 증 덕분에 아이패드 2가 얼마나 잘 빠진 태블릿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구. 굿잡!



COWON / D3

D2의 후속작이 나라는 게 미웠어!

- **코원의 D3는?** 2007년 발매한 코원의 D2는 무수실 음원은 물론 변강식 배터리로 이를 동안 음악을 들어도 지칠 줄 몰랐다. 2.5인치 of 스텍한 화면이었지만 나름 터치스크린이었고, 스텍 있게 DMB까지 탑재했다. 여기에 코원 특유의 BBC 음장까지 더해 음악 듣는 맛도 차졌으니 그야말로 명기였다. 후속 모델 D3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하늘을 찌를 수밖엔

- **이게 문제다!** 일단 D3는 D2 완성도의 발발에도 못 미치는 수준. 무엇보다 D3에 탑재된 텔레칩스 T10039x ARM11 칩셋으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버티기 힘들었다. 가벼운 윈도 CE를 돌리며 지족하는 게 답이었는데 과욕을 부렸다. 오죽하면 발적회의 대명사 였던 D3에 비해면 쾌적하게 느껴진다 얘기가 나오겠나. GPS와 카메라가 빠졌으니 구글 맵 인증도 물 건너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앱 사용에 대한 욕구가 차오른다. 3.7인치 아몰레드 액정은 나쁘지 않지만 액정이 4인치를 훌쩍 뛰어넘는 스마트폰이 대세인 요즘엔 그저 오징어로 보인다. 음악 재생 시간도 20시간 정도라서 음감용으로 사용하려면 이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정말 사람들에게 팔 생각이었던 건 맞아?

- **결론** 동영상을 재생할 때 생기는 발열 문제는 예고 수주로 받아들일 만큼 제품을 훼손 때는 경우도 오랜만이다. 코원도 평에 업그레이드에 손을 댄 기색이 역력하다. 이 나라에 더 이상 'MB 신화'는 없듯 코원이 D2만큼의 완성도 있는 제품을 내놓을 일도 없을 거다.

- **한마디로** D3는 MP3의 시대를 속시원하게 끝장냈다. 구, 굿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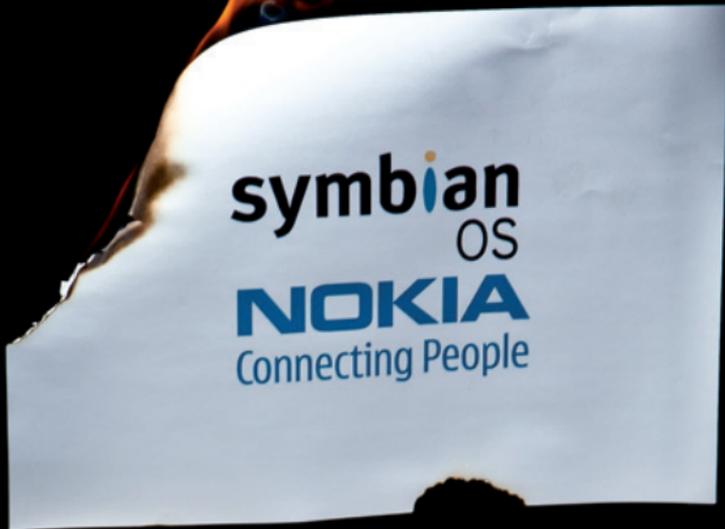




LG / X170

태블릿 PC 때문에 슬픈 넷북이여!

- **LG의 넷북이란?** 불과 3년 전만 해도 LG 넷북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싸고, 가벼운 노트북이라는 신세경을 접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넷북을 즐겼다. 하지만 불과 1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고, 태블릿 PC가 각광을 받으며 넷북은 쪽박을 차기 시작했다.
- **이게 문제다!** 동영상 문제부터 잡고 가자. 스마트폰도 듀얼코어 CPU를 탑재해서 1080p 영상을 쉬이 돌리는데 영색이 노트북이란 녀석은 이걸 할거워하니 사용자 입장에서선 환경할 노릇이다. 어차피 넷북으로 포토샵처럼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고, 웹서핑과 문서 작업 전용으로 만족하려니 태블릿과 블루투스 키보드 조합이 훨씬 효율적이고, 휴대성도 뛰어나다. 게다가 넷북은 이동할 때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태블릿 PC 예찬을 늘어놓는 건 다 이유가 있다.
- **결론** 넷북 LG X170은 와이브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선물로 주는 공짜 노트북 신세가 됐다. 윈도우 X1700에 아무리 가볍게 적용한다고 해도 갤럭시 탭으로 대표되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PC처럼 빠릿하게 움직일 거란 기대는 접어라. 아뵤 CPU는 그리 관대하지 못하다.
- **한마디로** 넷북은 눈 씻고 찾아봐도 키보드 달린 것 빼곤 태블릿 PC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걸 만천하에 입증. 구, 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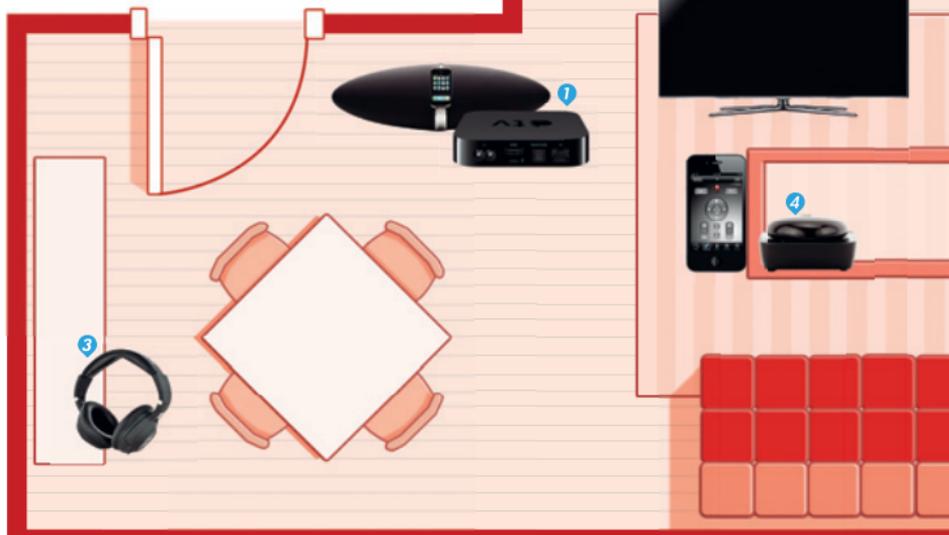
NOKIA / SYMBIAN

피쳐폰 부동켜 안다가 망했지요

- **노키아의 심비안은?** 노키아의 독자 플랫폼. 다만 아이폰 OS처럼 쾌적하지도 않고, 안드로이드만큼 개방적이지 않은 운영체제다. 오죽하면 노키아 사장 스티판 엘름이 직원에게 “우리는 불타는 플랫폼에 서 있다”고 고해성사를 할 정도였을까.
- **이게 문제다!** 시대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했다. 노키아 입장에서는 애플이 죽일 놀이다. 자카폰 몰랑 공세로 반박이름 하고 있는데 잡스가 갑자기 “오썸” 이라고 외치며 “이런 게 스마트폰 뿌잉뿌잉 휴대폰에서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음!” 이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흥하게 만들었다. 그전까지 전화만 되면 오케이라 외치던 이들에게 아이폰 싸움이야 됐고, 이에 질세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까지 쏟아지니 피쳐폰에 몰인한 노키아는 달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했다. 시장 점유율, 브랜드 인지도, 경쟁자를 추격할 시간까지 허공 속에 묻어버린 한 노키아는 심비안을 퇴장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걸 고수하다간 죽은 아들 불일 만지는 꼴이 됐겠지.
- **결론** 노키아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와 경쟁하고 있는 MS와 손을 잡으며 노키아는 ‘스마트폰 삼분지계’ 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자기 자식의 목을 비듬고, 씩수가 보이는 양자를 받아들인 셈인데, 이놈이 어떻게 커줄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미 심비안은 죽은 뱀속이나까 말이지.
- **한마디로** 노키아는 손권의 잘못된 선택이 멸망을 부른다는 참다운 교훈을 준다. 구, 쿠질!

홈 네트워크로 대동단결하는 법

집 안 전자 제품을 무선 네트워크로 단결하면, 무척의 메칸더V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무선의 편리함을 만끽할 수 있다. BY 김양현



1 AIRPLAY GEAR B&W ZEPPELIN, APPLE TV

요즘 우리나라 M남처럼 대충도 고개만 나무러서 욱 차려고 있는 애플이지만 '에어 플레이' 앱으로 애플 기기끼리 손쉽게 공유하게 만들어 노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능력만큼은 인정해 주자.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 파파티로는 다소 비싸지만 까다로운 AV 마니아도 음질 하나만큼은 인정하는 B&W의 제플린 에어 스피커처럼 치밀치밀한 오디오 케이블 따위 우주로 날려버리고도 즐거운 뮤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애플 TV가 더해지면 아이튠즈의 콘텐츠는 물론 PC 콘텐츠도 손쉽게 TV와 공유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

2 SMART TV SAMSUNG UN55D8000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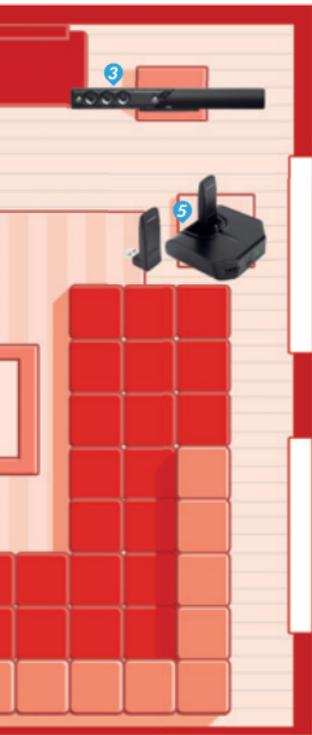
클릭한 55인치 TV의 베젤이 5mm밖에 되지 않는다. 당연히 시야각도 좋고, 군더더기 베젤이 대륙 줄었으니 디자인도 시원시원하다. 스마트 TV의 활용은 갤럭시S로 스마트폰을 접수한 삼성이 한결 유리한 고지에 섰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옆의 기사를 참고하도록! 여하면 부모님과 드라마를 보다 TV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미니홈피만 떠올 수 있으면 그걸로 게임 셋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미니홈피, 서브스에 하악대는 괴리치. 당년도 잘 알았어? HDMI 포트도 센스 있게 4개가 달려 있으니 그저 굿신굽신할 뿐!

3 BLUETOOTH HOMETHEATER POLKAUDIO SOUND BAR, INSTANT HOME THEATER

제이무리 돈으로 차려낸 AV 시스템도 허잡대기 라이브 공연만 못한 건 알 때 도 됐잖아. 이제 딱딱하지 연결해야 하는 선 따위 집어치우고 블루투스 시스템으로 교체하라. 폴카오디오의 시온드브나 인스턴트 홈 시어터 정도면 귀에 거슬릴 정도 아닐 거다. 까놓고 말해서 AV 덕후집의 필수 조건인 으리으리한 집도 없는 당산예겐 이 녀석들 정도면 '부야' 할 만한 시운드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옆집에서 자꾸 자랑하던 이 참에 블루투스 헤드폰 전용이저 MM650 하나 장만해도 나쁘지 않겠지!

4 ALL IN ONE GRIFFIN BEACON

집에 있는 전자 기기 등을 간편하게 묶어서 조작하고 싶지? 아이폰, 아이패드, 블루투스 기기를 일일이 컨트롤하기 귀찮아 돌아갈 수 가만 걸 잘 알고 있다. 제품 종류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조작하려면 그리핀 비콘을 눈여겨보자. 블루투스를 적외선으로 전환하는 360° 전방위 적외선 방출기가 달려 있어 집 안 어디서든 편하게 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뭐 당산이 애플빠라서 애플 제품 이외의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면 그냥 컨트롤4업만 봐도 원하는 바를 이루어 기원 부족함이 없을 거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5 WI-DI HARD D-LINK MAINSTORAGE, WURPIA STREAM HD

HD TV나 스마트 TV를 100% 활용하고 싶다면 디링크 메인스토리지나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워피아 스트림 HD 같은 제품을 고민하는 거다. 이쯤만 있으면 대부분의 콘텐츠를 1080P 해상도로 TV에서 감상할 수 있다. TV의 HDMI 포트에 수신기 배이스를 연결하고, PC에 USB 어댑터와 연결하면 곧 이제 PC와 무선으로 연결해서 즐기는 화면으로 호국 보호의 달을 가늠해 실감 나는 실생 영화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와이드아이는 무선 랜카드 무선으로 PC의 영상 신호를 TV로 보내는 새로운 기술이다.

6 GAME GEAR XBOX360, PS3

요즘 나오는 PS3나 XBOX360의 본체는 하나의 작은 PC다. 무선으로 연결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넘친다. PS3를 해킹(?)해서 작은 배어본 PC처럼 쓸 수도 있고, XBOX360의 '채팅+키넥트' 신공을 박아넣어 동영상처럼 화려한 캠 채팅으로 송화시킬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다른 이들과 액션을 펼치는 거야 너무 단순한 일이나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 온라인 서비스는 엉망진창이니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이라면 XBOX360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다.

[DNA가 아니라 DLNA]

홈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이것을 확인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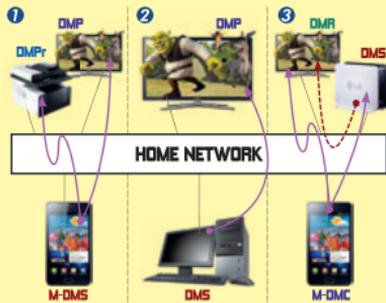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DLNA 인증을 받은 기기라면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로 한데 묶어 미디어(동영상, 음악, 사진) 콘텐츠 재생이 가능한 규격을 만드는 단체. 한마디로 DLNA 인증을 받은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스마트 TV, 노트북이라면 무선으로 연결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물론 무선 네트워크가 기본이 아닌 DLNA를 지원하는 최신 무선 인터넷 공유기 설치도 필수다.

지원 포맷

사진: JPEG 등
음악: AAC, MP3, WMA9 등
비디오: MPEG4, WMV, AVI 등



1 **M-DMS**(공유할 콘텐츠가 담긴 제품)→네트워크→**M-DMP**(DMS에 담긴 콘텐츠를 골라서 재생하는 제품), **DMP**(콘텐츠를 출력할 수 있는 장치)

→ 활용 사례: (나는 가수다)를 보러 가서 당시 걸러서(M-DMS로 찍은) 일제편 형님의 사진을 집에 있는 컴퓨터 스마트 TV(M-DMP)에서 감상하고, 무선 공유된 프린터(DMP)로 바로 인쇄할 수 있다.

2 **DMS**→네트워크→**DMP**

→ 당시 노트북(DMS)에 블루레이로 화질로 엄청난 다운로드한 야구 동영상은 거실에 있는 컴퓨터 스마트 TV(DMP)로 공유한 후 화면에 감상할 수 있다.

3 **DMS**→네트워크→**M-DMC**→**DMR**(DMS의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기기) → 회사 넷허드(DMS)에 동료가 올려둔 최신 '일본도' 동영상은 스마트폰(M-DMC)으로 검색한 후, 거실의 컴퓨터 TV(DMR)로 화면에 감상할 수 있다.



STUFF

SMART ITEMS FOR SMARTER SOLDIER

어설플 군용 아이템 따위 개나 주라지. 때깔은 기본이고 성능도 만족스러운 이 녀석들과 함께라면 5분 대기조도 할 맛이 날 거다.

BY 김성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홍지 HAIR ASSISTANT 차수영(차수영) MAKE-UP 전민성 MODEL 한성진 FILM BIRN ASSISTANT 조수영



활경상 엿보기



일리타리움 민스에 티셔츠 코디조합인 하이커
벨트와 원커 넷파넥스
국방색 스포츠 겹

ESS / ICE 2X NARO

ESS의 보안경은 센스 있게 주·야간용이 각각 12백배 들어갔다. 행여 시야를 가릴까 봐 안경테는 박 들어냈고, 날렵한 얼굴의 당신도 보안경을 쓸 수 있도록 귀에 가는 부분의 길이 조절도 문제 없다. 코에 걸치는 패드의 착용감도 좋으니 이제 당신 눈이 호강할 일만 남았다.
문의 www.netpx.co.kr 1661-5915
가격 85,000원

ROTHCO / W

당신 입으로 소리 아니다. 여자친구에게 국방색의 탱크 톱을 입고 싶다면 이걸이 먹이다. 배광도 좋고 숨연 100%로 당신 풀풀이 마냥 부드럽다. 8인 슬로인 당신에게 여자 사미이 무엇을 입든 무슨 상관이었. -본은.
문의 www.netpx.co.kr 1661-5915
가격 14,000원

PETZL / TACTIKKA XP

작은 램프라고 비웃은 놈 누구이?
한밤중에 35m 떨어진 아내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2.52kg인 풀타임 무게는 녀석이다. 밝기 조정 역시 조명, 잠열, 부스터 모드로 3단계까지 가능한다. 절대 풀한 광대렌즈로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쓸 수 있다. 어떤 이레도 웃음이 나오지?
문의 www.netpx.co.kr 1661-5915
가격 98,900원

Original S.W.A.T / SEK 9000 Size Zip

미국 SWAT 대원의 전술 교류 단체 NTO가 '이놈 끝내줄'이라고 이미 검증을 끝낸 끝내주는 전술화대. 다양한 특수부대가 이 녀석을 격하게 이겼다. 긴 급상행은 물론 사다리나 로프를 탈 때에도 발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이다. 군 버리 전투화는 넘사베이만 얘기다.
문의 www.netpx.co.kr 1661-5915
가격 156,000원

일리타리 인스에 티셔츠
가슴에 꽃은 안경
벨트
허벅지에 탄 권총
워커부츠 모두 넷피엑스
옆 지퍼 쇼츠 셀빈클라인틴

5.11 Tactical / VIAC LBE Tactical Vest

미국 군과 경찰용품을 만드는 전문 회사 5.11의 제품답게 효율성이 뛰어나 질과 친견을 조가담게 다른 파우치와의 결합도 간편하고, 몸통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서 당신이 애써 키운 근육 때문에 조가름 못 오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착용감도 만족스럽다.

문의 www.netpx.co.kr 1661-5915

가격 115,000원

TOOLLOGIC / SL1 Light

나이프와 라이트의 이종교배가 성공했다. 밤길에 길을 사용할 때 먼 라이트를 인해 들고 비추던 못한 과거는 다행히 라이트에 방수 기능도 탑재했으니 물에 젖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밑으로 비상 신호를 보내는 휘수도 달려 있다. 양태 자습신이 강력하다.

문의 www.netpx.co.kr

1661-5915

가격 75,000원

조끼, 조끼에 달려있는 나이프, 안테나어
무두 넷퍼엑스
검장재 민소매 티셔츠 플립오나코
양카부츠 슈츠원

**YUKON /
NV - MT2 3x42**

비싼 야시경임수록 성능이 좋겠지만 가격 대비 성능비로 따지면 이 녀석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3배율로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유효 측정 거리는 최대 200m다. 무게는 0.9kg 정도. 참고로 야시경은 빛을 정복해 보는 제품이라서 밝은 곳에서 사용하면 기기가 상한다. 일간? 문의 www.netpx.co.kr 1661-5915
가격 379,000원

**5.11 TACTICAL
RUSH 12 BACK-
PACK TACTICAL /
RUSH 12 BACK PACK**

나일론 원단으로 제작해 내구성은 확실하다. 풀통 및 고글 수납 포켓을 비롯해 다양한 분할 수납 차리기 가능한 공간 활용이 인상적이다. 각종 기어나 파우치의 결합도 간편하다. 한마디로 물건은 답는 가장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린 특심 좋은 제품이다.
문의 www.netpx.co.kr 1661-5915
가격 96,000원

**DONGSAN /
ITHACA M37 POLICE**

이삼카 M37은 저가 세제화된 한국전쟁 월남전에서 근정전투무기로 활약한 수권이다. 실물과 동일한 크기로 재구성되고 에어 소프트건 경기 전용 제품으로 만든 만큼 정확도가 높고 비가림도 같다. 일본과 유럽에서 인기가 높은 핫 아이템 문의 www.dongsanmodel.co.kr
02-3664-9571
가격 65,000원

DONGSAN / AUTO 9

스나이퍼 스타일의 총으로 사거리 조절은 물론이고, 한 번에 40발을 장전할 수도 있다. 본체 부분에 첨가된 광물질 덕분에 한결 무게감이 나는 게 특징이다. 금속 재질감을 내기 위해 특수 표면 처리를 했다. 사바이벌을 즐긴다면 하 나쯤 장만해볼 만한 녀석이다.

문의 www.dongsanmodel.co.kr

02-3664-9571

가격 24,000 원

GALAXY S2

MAXIM에서 갤럭시S2를 질러라!
13만 원 상당의 상품이 쏟아진다! **확실히 나우!**

늦어서 미안해!
고민은 MAXIM이 했으니
맛이든 **신경하라고!**

**MAXIM에서
Galaxy S2를 질러라!**

스마트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면 MAXIM과 함께 하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를 참조할 것!



+ **2** 가지 패키지 중 입맛에 맞게 골라 잡으시라! +

Package1 “네비 대신 갤럭시2 짜응으로 대동단결, 여기에 MAXIM 1년 정기구독 추가요!”



12개월 정기구독권

+



액정보호필름
(지문방지+HD강화필름)



차량용 거치대



차량용 충전기
(드림 데이터케이블 포함)



갤럭시S2 패션커버

Package2 “휴대성이 부족! 늘어나는 패키지, 여기에 MAXIM 1년 정기구독 추가요!”



12개월 정기구독권

+



액정보호필름
(지문방지+HD강화필름)



USB 2포트 가정용 충전기



갤럭시S2 스타일러스 펜



갤럭시S2 패션커버

MAXIM 선정
차보다 더 멋진
퍼포먼스

2011 NY AUTO SHOW

CHEVROLET BUMBLEBEE

쉐보레 카미코가 국내에 출시된 것도, 영화 <트랜스포머에 출연한 것도 이미 다 봤다. 모터쇼에 전시된 카미코도 이전 식상하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건 바로 현실 속의 범블비. 지난 서울 모터쇼에서 쉐보레는 왜 이 생각을 못 했을까? 컨텍스트가 범블비가 등장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이유로 스크린 밖으로 나와 눈 앞에 우뚝 선 범블비야말로 2011 뉴욕 오토쇼 최고의 볼거리이자, 트랜스포머 킷으로 장식한 쉐보레 카미코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불패의 홍보대사였다. 범블비 앞에 모여들어 셔터를 눌러대는 수많은 관객을 보며 이미 다른 모든 자동차브랜드가 <트랜스포머>의 스폰서가 되지 못했던 걸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다.

MOTOR



EVERY FAIR LADY HAS POISON



더 아름다워진 페어레이디(2시리즈의 별칭)와 더 강해진 로고.
그 이름만큼이나 위태로운 미녀와 악담의 조우.

BY 사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기획 & MODELS 김기은, 영진, FILM 박민정, 주리
HAIR 이우진 MAKE-UP 이혜림, 김주은, 김소연, 김지수
ASSISTANT 송종만



촬영 현장
등록하기



COOPERATIONS 23200-566-706 / 4323000-366-7001

'포르쉐는 박찬 상대를 만났다' 370Z의 광고 카피다. 무엇이 낫산으로 하여금 망설임 없이 포르쉐를 지목하게 하는 걸까? Z시리즈의 역사는 40년이 넘는다. 전통과 기술이 풀리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억' 소리 나는 가격 덕에 막연히 '최고'라는 이미지를 지켜온 포르쉐만큼 달리 370Z는 가격 거품을 짝 빼고 승부한다. 스포츠카의 표본으로도 손색없을 Z시리즈의 잘 빠진 디자인과, 포르쉐를 능가하는 성능이 5만 원대라는 사실은 370Z가 '실현 가능한 드림카'를 표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싼 포르쉐인 박스타도 8천 대 중반이던 점을 감안하면 370Z의 자랑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결국 브랜드 파워나 기술력에 자신이 없어서 나온 가격이 아니라 건 건극의 드림카 'GT-R'를 한 수도 접아주지 않은 가격(약 4,900만원에 내 놓은 걸 봐도 알 수 있다. 시동을 걸자 중저음의 강력한 배기음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 제로백 5.3초. 경쟁 모델인 포르쉐 카이

만(5.7초)과 박스타(5.8초)를 한치러 앉수 처다. 시속 100km/h를 지나 200km/h에 이르는 데 9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 230km/h까지 차고 올라가도 370Z의 탄탄한 하체는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기분이다. 미국 MAXIM에서 370Z를 시승한 후 했던 말처럼, '낫산의 스포츠카는 경주를 미치고 동네 마트에 술을 다녀 오기에도 좋은' 차다. 실제로 2억3천만원의 시세 주형에서 보여준 연비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동' 수식이 붙은 포르쉐 입장에서 변방의 강자가 계급장 떼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담비면 겁이 나는 법이다. 마치 무림 고수가 즐비한 (나는 기사다)에 왕년의 레전드가 선봉리 들어갔다기 본전도 못 찾고 만신창이로 떨어진 것처럼 말이다. 포르쉐는 정면 승부 대신 자사의 상표를 보호하겠다고 낫산에 소송을 거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이미 스포츠카 드라이버들의 가슴속에 깊은 충격을 새겨놓은 낫산의 반응은? 아마도 '그러가나 말거나'일 거다.

■ 주요제원

엔진	VQ37VHR
배기량	3,696cc
최대 출력	333마력
최대 토크	37.2kg · m
최고 속도	250km/h
제로백	5.3초
공인 연비	9.6km/L(4등급)
승차 정원	2명
변속기	자동 7단
공임 방식	후륜 구동



2010 370Z

5,850만원



2011 NEW ROGUE+ 4WD CVT

3,640만 원



372 쿨크
엔진소리듣기

주요재판

연진	차량 47종
배기량	2,498cc
연료	기술린
공인 연비	10.7km/L(3등급)
승차 정원	5인
구동 방식	AWD(항시 4륜구동)
최대 토크	23.4kg · m
최대 출력	1680마력

THE CHASER

ROGUE 약당이라는 뜻이다. 로그가+를 달더니 한층
 지능적이고 강한 약당이 되어 돌아왔다. 몸 속에 이것
 저것 강력한 무기를 탑재하고도 알핏 보가엔 눈에 띄
 는 무언가가 없이 광범해 보이는 이런 약당. 웬만하
 면 상대하고 싶은 않은 타입이다. 낯선이 개발한 첨
 단 무단자동변속기 '엑스트라닉'에서부터 로그가 선
 량한(?) 보통 자동차와는 심장부터 다른 돌연변이임
 을 암시한다. '엑스트라닉'은 변속기에 '단'이 없다. 말
 그대로 1단, 2단, 3단...을 가치는 게 아니라 최자단부
 터 최고단까지의 기어비가 뱀처럼 스스로 움직인다
 는 얘기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1.1단~1.2단~1.3단...을
 부드럽게 거쳐가는 거다. 구조적으로 기어 변속 충격
 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무변동변속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재 노면의 상태, 코너링 각도, RPM, 속도 등
 매 순간의 주행 정보를 종합해서 최적의 기어비를 자
 동으로 뽑아내는 것이 엑스트라닉 CVT의 핵심 기술
 이다. 당연히 연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물

이든 소감은 10.7km/L(4륜구동 모델)의 공인 연비보
 다도 나은 느낌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서스펜션. 도심형 크로스
 오버를 기화로 내걸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시승
 자가 로그를 오프로드까지 끌고 나가보지는 않았을
 거다. MAXIM도 활용 한정으로 이동하는 중에 만난
 긴 비포장도로 덕에 분의 아니게 로그+표 서스펜션
 의 진가를 느낄 수 있었다. 갈 때 3702를 물고 오프로
 드를 지나간 에디터가 올 때는 로그+로 같이타고 같
 은 길을 돌아왔는데, 스포츠카와 SUV의 근본적인 하
 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같은 길이라는 게 믿
 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빛나는 크롬 몰딩으로 변신한 프론트 라디에이터 그
 릴은 로그가 'N'을 달고 나온 후의 변화다. 내부로 들
 어가면 센터페시아상단 스피커에 새겨진 BOSE 로고
 와,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요추받침까지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시트가 편의성을 배가시켰다. 





기아 모닝 VS 쉐보레 스파크

구매가 3탄

모닝 사원과 스파크 사원이 입사한 지도 어느덧 1분기가 지났다.

MAXIM의 일원으로서 분기 결산을 피해야 할 수 없는 법.

지난 석 달간의 스파크 군과 모닝 군의 정력에 대한 직원 평가를 모아봤다.

BY 유승민 PHOTOGRAPHS BY 고경희, 김상현



MAXIM의 드라이버들에게 물어봤다.

회사 차를 끌고 나갈 때, 열쇠 함에 스파크 키와 모닝 키가 놓여 있다. 당신의 선택은?



마테터 김종국



같은 급의 경제차면 운전 할 때의 느낌이 더 큰 차를 모는 기본이다.



에테터 김상현



모닝이 연비가 더 좋으니 까 스파크보다 모닝을 타고 다녀야 사장이 더 좋아 하지 않겠어?



디자이너 장미연



디자인 이즈 마이 라이프 날렵한 디자인과 눈매가 확 끌려



경차로 처선 변경하기 참 힘들다. 행정거리고... 순간! 가속이 더 좋아서 그 나마 나야.



기혜자 홍승미



MAXIM을 진득 싣고 우체국에 가야 할 일이 많은데 오르막에서 힘이 좋다. 남자는 힘



회계 담당 황인영



지방 촬영 갈 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뚝 뺐어봤는데 생각보다 힘이 괜찮은 걸 보고 놀랐음.



에테터 김진욱



편집장 이명비



핸들을 돌릴 때 더 부드럽고 쉽게 돌아가는 기본인 연약한 여좌니까~



어시스턴트 박한빛누리



내가 살고 봐야지 시고 나도 고장엔 강판 덕에 웬만 클 굴러도 휴치조각처럼 구겨지지 않는다.



수석에테터 고경희



코너링이 더 좋거든. 그리고 내가 느끼기엔 연비도 더 나은 거 같은데?

3기통이나 4기통이나

현대자동차와 GM구 대우자동차의 경차 대결은 그 역사가 깊다. 가까운 과거에 구 모닝과 미티즈의 대결부터 그보다 더 전의 아토즈 vs. 마티즈의 대결까지... 재미있는 건 4기통의 아토즈와 3기통의 마티즈를 둘러싼 논쟁이 지금은 그 기풍 수가 서로 뒤바뀌었다는 거다. 현대가 아차카 3기통의 올뉴모닝을, 스파르카 4기통 엔진을 내놓으면서 이제 기풍 수 논쟁이 전혀 반대 양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3월보다 4월이 낫지 않겠는 거야?

4기통 S-TEC II DOHC 엔진

대우자동차 시종 3기통이었던 마티즈는 세보레 스파르카가 되면서 국내 경차 유일의 4기통 엔진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현대에서 더 이상 4기통 경차를 만들 여지가 없으니 분명 국내 유일의 4기통 경차. 4기통의 장점은 명확하다. 4개의 엔진이 일정한 간격으로 바바바방~ 하고 타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3기통보다 매끄럽고 균등한 출력을 뿜어낼 수밖에 없다. 총출력이 타지는 2번의 폭발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진동도 더 적다.

스파르카는 모닝에 비해 고속/고RPM에서의 성능이 좋다. 쉽게 말해 타 막하는 서울 시내보다 뽕 뚫린 고속도로에서 더 잘 나간다. 최대 출력인 70마력은 6,400rpm에서, 최대 토크인 9.4kgm는 4,800rpm에서 나온다. 스파르카의 진기는 높은 rpm에서 드러나는 듯하다. 경차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다다리는 정도 의 용도라고 생각하면 때가 있었다. 하지만 스파르카는 그런 환전을 깨고 경차도 편안한 장거리 주행이 가능 한 차로 만들어놓았다.



3기통 KAPPA 1.0 엔진



게 4리기가 끄는 것보다 밀 3리기가 끄는 게 낫지

카파 엔진은 현대가 아차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이다. 지금은 단종된 아토즈를 내세워 스파르카보다도 훨씬 더 먼저 '경차 유일의 4기통'을 기폭제 내걸었던 현대가 지금 올뉴모닝에 와서야 3기통으로 다른 사이장을 감행했다. 단순 무식하게 말해서 4기통(실린더가 4개) 엔진이 좀 더 총출력이 크겠지? 최근 엔진 마찰과 열 손실이 은은(실린더 개수가 적으니) 3기통 엔진이 효율을 고

연비, 친환경 추세에 더 부합하는 엔진으로 각광받고 있다. 더구나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엄격해 지면서 3기통으로의 최후입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무조건 높은 기통의 엔진을 기꺼워 더 친보편 엔진이라고 판단하는 건 선사시대적 발상이 되어야만 상황이 된다. 현대가 아차카는 기다렸다는 듯 4기통의 스파르카를 최대출력이 무려 2리터나 높은 3기통 엔진을 개발해냈다.

게다가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3기통 엔진의 고정적 단점인 진동과 소음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시동을 걸고 앉아 있으면 스파르카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진동과 소음이 더 적다 실을 정도도 정중하다.

→ 995cc / 70마력 / 9.4kg·m

PRESS

최상의 스파르카는 낮에 끌고 다닐 때보다는 뽕 뚫린 새도로 달릴 때 더 빠릿빠릿한 느낌이 든다. 덕분에 모닝과 스파르카 두 녀석의 용도가 살짝 구분되기도 한다. 차질 없이 끌 수 있는 모닝보다 스파르카를 타고 가는 게 운전의 피로감을 덜 준다.

하지만 반대로 도심에서는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다. 무엇보다 언덕에서 등판하는 힘이 딸린다. 언덕 길이나 내리는 손이러는 게 보통 고속도로 위아냥 날 테니까. 모닝과 비교했을 때 소음, 진동 상의 메리트도 느끼기 힘들다. 이론상으로는 같은 RPM에서 4기통의 스파르카가 3기통의 모닝보다 더 조용해야 한다. 하지만 저속에서의 힘이 약하다 보니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을 일이 더 자주 생기고, 같은 힘을 내려면 모닝보다 높은 RPM으로 엔진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엔진 소음도 더 드러는 느낌이 든다.

→ 998cc / 82마력 / 9.6kg·m

PRESS

3기통 카파 엔진의 특성은 낮은 RPM에서 최대토크가 나오는 게 장이다. 5,000RPM에서 최대토크 9.6kgm) 나온다. 시동을 반박해야 하는 시내 주행에서 RPM을 높이지 않아도 색색 잘 나간다는 뜻이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스파르카가 모닝이 훨씬 빠르다. 3기통이다. 2리터의 차이는 생각보다 겹겹 겹겹이 많고 고속 주행이 적을수록 더 다양한 상황에서 더 민첩하고 순발력 있는 주행을 보여준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도 스파르카에 비해 훨씬 낮은 RPM에서 더 강한 등판력을 보여준다.

게다가 최적의 3,500RPM이 아닌 다른 RPM 구간에서도 도르르 크게 밀어지지 않는다. 모든 RPM구간에서 꽤 균일한 토크를 보여준다는 말이다.



COMING UP NEXT 7월호 예매

다음 달에는 대망의 연비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다. 최근 MBC 경차대결전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모닝과 스파르카의 실주행 연비 대결을 봤었다. 결과는 예나저나 리공(연비) 발표와 공인 연비가 뒤집어질까봐 걱정. 하지만 과연 정말 하루 타본 걸 가지고 제대로 된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게다가 실험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모닝 2,000km/스파르카 4,000km), 같은 정도도 달았기 때문에 좀 더 평범한 길과도. 하지만 어떤가? 방송은 나갔고 기사와 GM의 회신은 잊질 않고 있는 상황. 다음달 7월호 MAXIM에선 상세히 직접 구매하고 4일간 공짜로 두 차량의 연비를 제대로 분석할 예정이다. 아예 잊은 건 과연 누구일까?



MINI, 남자가 되다.

미니가 좋아도 남들이 게이 같다고 할까봐 망설였던 적... 다들 있잖아?

BY 유승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 김희성 COOPERATION BMW KOREA



비보호 좌회전

엔진 형식	직렬 4기통 터보
연료	가솔린
배기량	1990cc
최대 출력	184마력
최대 토크	24.5kg·m
최고 속도	205km/h
구동 방식	AWD
변속기	자동 6단
공인 연비	12.0km/L(3종급)

미니가 여자들이 타고 다니기에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다. 문짝도 핸들도 탱크처럼 무겁고, 즉각적이고 파워풀한 출력도 운전이 능숙하지 않은 여자에선 부담스러운 특성이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세단보다는 아담한 스포츠카에 가깝기 때문에 승차감 또한 작잡이 딱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미니가 EMN의 출자 노릇을 하게 만든 건 90% 이상이 여성 운전자들이었다. 앞서 말한 불편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공극의 '귀여움'이 여자들의 감성을 제대로 자극했기 때문이다. 미니의 귀여움이 여성만 흔드는 건 아니다. 미니의 매력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남성들이 부지기수이건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신트 미니 드라이버가 될 수 없었던 수컷들을 위해 컨트리MAN이 나타났다. 수컷의 장기를 물론 풍기며!





5,160 만 원



XY 염색체를 이식하다.

“근육질 미니가 나왔네?” 활영을 담당할 포토그래퍼 박윤이 컨트리맨을 보지마자 할 말이다. 미니가 이런 느낌이었나 심을 정도로 터프하고 보이시한 항기를 풍긴다. 남자의 미니! 등장이다. 그러면서도 얼핏보면 어디가 변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기존의 정체성과 패밀리룩을 잘 지켜냈다.

페이지 위 아래에 보이는 미니 컨트리맨과 미니 쿠퍼를 자세히 비교해보라. 전체적인 바디라인부터 라디에이터 그릴이 떨어지는 각도까지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 지를 알 수 있다. 덩치도 커졌다. 차체 길이가 무려 4cm에 육박한다. 문짝도 비로소 제대로 된 4개가 모두 들어갔다. 그래도 여성들은 대체로 ‘이와인 커지니까 더 귀여워라’는 반응이다.

디자인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구동 방식이다. 미니는 지금껏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2종 구동 방식을 고집했다. 언제나 두 발잡이였더니, 이 또한 돌아와보

면 참 여성스런 행보였다. 그러다 남자의 DNA를 이식한 컨트리맨이 최초의 네발잡이로 나온 거대남자 미니라고 해서 가운뎃다리를 달고 새발로 나올 순 없으니까, 최초의 4륜 구동이라고 알보면 안된다. 구동계의 경량화를 통해 모 브랜드 BMW의 xDrive 시스템보다도 더 진일보한 네발잡이니까. 주행 상황에 따라 전륜, 후륜에 전달되는 구동력을 1000~0100의 비율로 변화시킨다는 점은 xDrive 시스템과 같다. 4m, 4도어, 4륜구동. 이렇게 세 개의 4로 미니 컨트리맨은 남자 인종을 마쳤다.

그럼 남자 구실은 좀 하나? 테스트 드라이빙에서 고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봤다. 계기판에 표시된 200km/h까지 질러보진 못했지만 4륜구동 상태에서도 거침없이 130km/h까지 치솟는 속

도계를 보고 슬그머니 고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말았다.

시선집중남

당신이 차를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남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이라면 더더욱 컨트리맨이 딱이다. 컨트리맨이 아닌 그냥 미니는 이제 강남가리에 서는 쇼타만족이나 많이 굴러다니는 흔한 차가 되어버렸다. 아젠 미니가 지나간다고 아무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그런데 에디터가 컨트리맨을 끌고 도로에 나가자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니는 미는데 내가 아는 그 미니가 야! 하는 표정으로 말이다. 아 마헛츠 크클래스 스포츠카를 끌고 나와도 이 정도

여성향의 애견 MINI



COUNTRYMAN

시선 집중을 받지 못했을 거다. 특히 강남거리에 널려있는 미니의 운전자들이 컨트리맨에 보내는 관심이 대단했다. 극심한 여초현상에 시달려 온 임컷 미니들이(운전자도 거의 여자!) 난생 처음보는 수컷의 등장에 환호하는 게 느껴졌다.

정당할 수 있다. 당신이 컨트리맨을 가졌다면 미니를 보는 여자를 넘어오게 만들 확률 80% 이상이다. 게다가 에디터의 경험상 임컷 미니 드라이버들은 하나같이 스타일리시하고 예쁜 아가씨들이었다.

단점을 캐내자

임컷의 시랑마저 독식하는 이 녀석을 보니 문득 질투가 난다. 같은 남자로서 생이 난단 말이다. 자 그럼 이제 이 질투 유발 수컷을 한번 씹어볼까? 사실 이 녀석 덩치와 몸무게는 늘었는데 힘은 그대로라 달리기 실력이 확연히 떨어졌다. 소형차인 미니 쿠퍼더(최대토크 24kg·m)보다 낮은 토크에 제로백도 길어졌다. 그리고 말야, 왜 우리나라엔 다들 모델이 안들어오는 거야? 아이 시원해



선루프 하나 끝내준다



꽃유는 안 달려있음

Lee Byung Jun

〈오~마이갠〉의 짜질 남편, 〈드림 하이〉의 교장, 〈시크릿 가든〉의 박 상우 〈공부의 신〉 앤써니 양 등등 돌아켜보면 '대박'엔 꼭 그가 있다. MAXIM이 그를 6월의 ICON으로 선정할 이유다.

BY 유은인 PHOTOGRAPH BY ARC
STUDIO STYLING 공경희 FILM 권민욱
HAIR 성호 MAKE-UP 이병경
(연출료에 02-997-0911)



오늘 만난 당신에게서 길들지 않은 강한 수컷의 느낌이 난다. 왜지?

자유의 보이스 컬러? 아니, 남들보다 많은 자음 때문이겠지.

그런 것도 같지만 팔뚝이 이렇게 무식할 줄은 몰랐다. 몸을 이렇게 흥기로 만드는 이유가 뭔지?

배우의 연재든 모든 역할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운동도 그 준비의 일부다. 갑자기 치고받고 굴러야 하는 액션 신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다뤄면, 치고받고 굴러야 하지 않겠나?

새롭게 알아보고 싶은 역할이 있나? 이번 달 MAXIM 표지처럼 비정하고 약한 역에 도전해보고 싶다.

악당 이병준이라니, 생각도 못했는데 당신의 필을 보니 좀 각이 나온다. 대체 좋은 열아니 하는 건가? 그의 좋은 열은 아니다. 딱 내 나이에 맞다. 이 나이에 식스팩까지 만들면 주위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자제하고 있다.

내가 그랬듯 시청자들 대부분이 당신이 이번 하드웨어를 탑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다. 그 아까운 몸을 작품에서 볼 수는 없는 건가? 베드신을 말하는 건가?

아니다. 그건 우리도 보고 싶지 않다. 음, 노도 베드신 같은 건 결코 어느 정도 노출도 보여줘야 하는 액션이나 악역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지금도 봉봉 날며 돌려 차기할 할 수 있고, 아이어를 타러던 날 준비가 되어 있다.

10여년 후 당신이 됐을 때의 목표는? 한길 때 백만불링을 할 거다.

남이업던중진군. 한길때 꼭 다시 보자. 걱정 마라.

고지식한 교수남과의 인티뷰를 예상했는데, 당신은 너무 외위다. 단국대 연극영화과 유직업 교수를 맡고 있다. 학생들이 얼얼할 보고도 웃진 않나? 개강 첫날 뿐이다. 일단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많이 울린다.

때리나? 그렇진 않다. 학생들이 처음 연기를 하면 감성에서 우러나는 연기가 안 된다. 대부분 '이런 이럴 것이다' 하고 감성을 흥내 내려고 한다. 내 역할은 그 학생들의 심연에서 감정을 이끌어내는 거다. 예를 들어, 사랑을 노래하려는 학생에게선 그가 겪은 책사랑과 아픔을 고집내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애들이 노래를 못 부르고 계속 운다.

'이거 한 곡 거르지' 하는 게 있나? 절제다. 절제를 하려면 우선 절제해야 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절제는 철저하게 오버를 한 뒤에 배워야 한다. 미친 듯이 울고 난장을 피우게 한 다음 절제를 거르린다. 절제해야 할 게 없는 사람은 절제를 흥내 낼 뿐 아니냐.

철저한 오버만 한 거? 철저하지 않은 거? 좋은 연기를 하려면 먼저 수많은 감정을 겪어봐야 한다.

그 절제만 무엇을 위한 건가? 연기자는 절제라는 무장을 열어야 할 때가 있다. 그간 절제했던 무절제와 난정들이 쌓여 있어야 분출할 게 있지 않겠나. 요즘 보면 절제의 무장을 열어도 쏟아져 나올 게 없는 후배들이 많다. 절제해야 할 감성을 쌓지 못한 채 절제의 필요성을 흥내만 냈기 때문이다.

절제하는 당신도 가끔 욕을 하나?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 온전할 때 많이 나온다. "이런 씨■■■■"

당신이 화를 내면? 난 화를 내면 안 된다. 극도로 화나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서, 한번은 웃음뚱고 선배한테 격하게... 뭐 그런 적도 있다.

혹시 화나게 한 상대를 죽이나? 아니다. 이제 화가 나도 웃어 넘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화내는 법을 잊은 것 같다. 힘들어도 항상 웃고, 촬영장에서 3분 찍는 것 때문에 17시간 기다리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다. "17시간 기다렸습니다. 3분 찍고 가네요~하핫" 하면 끝이다.

만약 당신이 그 중저음의 목소리로 분노를 표현하면 오버하겠나. 예전엔 지금보다 목소리가 더 굵었다. 성우를 하러다 너무 툴이 낫서 결국 성악을 공부하게 됐다. 요즘도 가끔 성우가 없으면 내가 뎀빙을 하기도 한다.

성악인 사람으로서, 최근 케이팝 채널의 〈오페라스타〉를 어떻게 봤나? 참고로 1회 우승자 테이가 이번 호에 같이 나온다. 테이의 성악 실력은? 굉장히 재미있게 봤다. 대중가수의 모습과 성악적인 모습을 체인하면서 성악적인 발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K김동욱은 테너를 했지만 내가 봤을 땐 바리톤이 매력적이었을 것 같다.

당신에게 2회 〈오페라 스타〉 참가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이 오면 꼭 가려고 싶다. 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일주일 동안 한 곡을 외워서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다.

TV와 영화에서 당신이 맡은 역할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코드는? 웃음이다. 느긋함, 독특한 등의 수식어 많지만 그 속엔 분명히 해학이 있다.

나는 '속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진짜보다 진짜 같은 속물.

속물이라니,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다.

다들 거리는 속물 연기를 주장할 땐 있는데 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신의 속을 좋아하는 건가?

예를 들어, 〈시크릿 가든〉의 대거입 상우, 〈드림 하이〉의 교장 지리는 모두가 우려로 보는 권위를 상징하지만 오히려 그 권위가 무너지고 허술해 보이기 거에서 시청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다.

피질한 역할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피질한 모습에도 환호한다. 누구나 피질하게 굴고 싶은 때가 있지 한 체면이라는 제약 때문에, 그 피질함을 표출하지 못하고 묻어둔다. 하지만 그 피질한 것을 내가 대신 해주고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닐까?

그렇군. 당신을 〈복면달호〉에서 봤을 때 진짜 무명 트롯 가수인 줄 알았다. 속도 노래도 평소엔 항상 연습해두었는데, 마침 좋은 역할이 들어왔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있나? 없다. 누군가 잘 살았을 땐 이병준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알고 흔쾌히 받아들인다. 아직 내 쪽에서 작품을 고르는 인물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년 내내 작품만 고르고, 험한 신세선을 사리는 후배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 당신이 아끼안나? 그렇다. 아까운 3GS다.

얼리엄터업인가? 아니다. 그냥 트위터 하려고.

트위터에 올라온 팬들의 멘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병준 짱. 오펜 짱. 이런 것들 상당히 좋다.



“식스팩까지 만들면
당신한테 민폐잖아”



이명준과의
만남

네타이와 표지의 서스펜더 모두
제이미앤블



2011 MAXIM ULTIMATE DRINKING GUIDE TO BEER

진짜 남자를 위한 완벽한

맥주 가이드



켜가기

맥주. 영원한 친구이자 만병통치약. 그리고 책임 못 질 추태와 망언, 난봉질의 근원이자 아마 당신 중 상당수의 출생에 관여했을(염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굉장한 영향력의 소유자. 우리 그를 사랑한다. 하지만 인생은 짧고 흡수할 맥주는 너무 많다. 그래서 골치가 아플 당신을 위해 MAXIM이 먼저 맛을 봐드리기로 했다. BY MAXIM 편집부, 맥주 스타일리스트 이효복, 맥안료/맥주 만들기 동호회, (주)스콜스피드 대표 송관성 COOPERATION  (1588-0581)

맥주별 점수는 시음자 7인의 평점 평균이며, 5점 만점에 소수점 두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였다.



독일

평점 3.0



라펜브로이 오리자일 / 뮌헨 스타일 헬레스 / ABV 5.2%

라펜브로이는 '사자의 양조장'이라는 뜻이다. 시음하고 청량하지만 맛이 날 카롭고, 약간 비릿함이나 약간 쓴 게 느껴지기 때문에 맥주 초심자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 이영배, 최인영은 의견이 있는 반면, 정동 독일 스타일의 밸런스 좋은 맥주라는 의견(노원철, 첫 향이 신뜻하고 몰트 맛이 좋으며 부당미 적고 경쾌하다(나원찬))는 의견도 있었다. 튀김 등 기름진 음식과 잘 어울렸다.

평점 3.5



에딩거 바이스비어 / 헤페 바이젠 / ABV 5.3%

밀 맥주의 퀴리엔트 뱀늬를 수 있는 좋은 맥주로, 바이엔스태텐보다 덜 달지만 진한 꿀이 느껴지고 느끼진 않다(이영배). 바닐라, 바나나의 달달한 향이 기본. 좋고 무난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평소 드라이한 맥주만을 즐기는 시음자 홍원상은 리치한 맛이 독특하며 "맥주계의 참기름"이라는 표현을 남겼다. 바이스비어 전용 잔에 거품을 풍부하게 만들어 마셔야 풍미가 온전히 살아난다.

평점 4.7



바이엔스태텐 헤페 바이스비어 / 헤페 바이젠 / ABV 5.4%

이날 시음한 맥주 중 가장 오래된 맥주. 이 양조장은 통일사라 때(1940년) 만들 어졌다. 밀 맥주 마니아 이영배 편집장은 바닐라, 바나나, 꿀의 향과 맛이 풍부한 이 맥주에 최고 점수를 주었다. 호기심을 좋아한다는 시음자 최인영 역시 이 맥주가 좋은 점수를 주었다. 바이젠 특유의 향긋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시켰지만, 특유의 향과 맛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긴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럼 먹지 마나 쥬

평점 5.0



피스트리처 슈바르츠비어 / 블랙 라거 / ABV 4.8%

"이런 맥주가 있었다!" 모두 이 맥주를 처음 마셔본다고 했다. 입 안에 구름 같은 크리미한 맥주가 달는 순간 다들 그 풍부한 맛에 놀라고 말았다. 강한 케라멜 향과 견과류 향이 좋고 묵직한 바디감이 좋으며(노원철), 달콤함도 감도(나원찬), 짭짤한 맛(홍원상), 코를 쓰는 풍미진 맛(최인영)을 느낄 정도로 풍미가 다채롭다. "과태가 사랑한 술"이라는 홍보 문구가 사실인지는 과태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지.



독일

평점 4.2



런던프라이드 / 프리미엄 비터 / ABV 4.7%

모두들 이 맥주를 마시기 전 노가리 안주를 먹어서 맥주에서 '노가리' 맛이 나는 것 같다? 답하는 헤프양이 있었다. 하지만 입을 다시 행구고 진지한 테이스팅 후, 대장균의 허를 기린 맥주 애호인들답게 '과일향과 맛있는 껌져 과일 안주와 잘 어울릴 것 같다'(이영배), '처음의 보리 몰트 향이 강하고 출향은 점점 강해진다'(노원철), '얼얼한' 깔끔한 색이 좋고, 여음이 진하다(나원찬) 등의 리뷰가 쏟아졌다.

평점 3.7



뉴캐슬 브라운 / 영국 브라운 에일 / ABV 4.7%

영국의 대표 맥주. 병 라벨의 파란 별은 뉴캐슬 맥주 회사를 차린 5인의 설립자를 나타낸다. 그 목록 뒤는 일괄달룩한 디자인이 여자 시음자들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최인영) 중립적이고 싶다. 약간 씩씩하면서 조미 안한 풍味的 고소함과 케라멜, 꿀맛이 느껴지지만(이영배), 그 여음이 길지 않아 조금 아쉽다(나원찬)는 의견도 있었다. 출향이 약해 개성이 적지만 밸런스는 좋다는 평(노원철), 그냥 마냥 좋다는 시음자유승민도 있었다.

평점 4.0



기네스 드래프트 스타우트 / 드라이 스타우트 / ABV 4.2%

고운 거품이 커피를 연상시키며, 고소한 노트와 은은한 케라멜 향이 느껴진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었다. 시음자 나원찬은 "쓴 맛이 길고 강하기 때문에 해어진 여자친구를 잊기 좋은 맥주"라는 맥주보다 더 씩씩한 리뷰를 남겼고, 기네스안 보면 양주, 리큐르, 믹스 커피를 섞어 마시겠다는 이영배의 의견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아일랜드

이걸 누가 다 마셨어?

이날의 고주양태 시음자를 공개한다.

▶ MAXM 편집장 이영배

주류 전문 매체로 MAXM에 입사하여 칼럼은 해외 두터기 간을 갖게 된 후 편집장이 된 원년의 MAXM 대표 주당

▶ 비어 스타일리스트 이윤복

국내 최초의 비어 스타일리스트, 세계맥주 PUB 프랜차이즈 WABAR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 맥(명)맥주 만들기 동호회 나원찬

국내 최대 맥주 동호회 모임인 맥만들의 테이스팅 교수, 시음회가 착후 사범, 비행기로서로 맥주 투어를 떠날 예정

▶ MAXM 에디터 유승민

MAXM의 원래 최고 주당, 맥주에 대한 이론과 전문용어가 빈번하나, 술에 관해서 동등한 마차를 가지고 있다

▶ 주스 플랫폼 대표이자 출향성 WABAR 대표와 30년 우정을 함께해 30년 간 함께 맥주 테이스팅을 해 온 진정만 튀김교수

▶ 맥(명)맥주 만들기 동호회 노원철
도 한영의 테이스팅 교수, 지금은 최고의 맥주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

▶ MAXM 기획자 최인영
평범하게 맥주를 즐기는 여성의 전형

벨기에

2.7
평점



스텔라 아르투아 / 필스너 / ABV 5.2%

맑고 깨끗하며 향도 은은하고 밸런스가 좋은 맥주다. 원할지, 하지만 그 명성과 겉모습이 주는 이미지에 비해 맛은 좀 밋밋하고 무난하다(이영배). 한참 맥주잔에 코를 박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시음자 유승민이 잠시 정신을 차리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그게 뭐지 모르겠다"는 간결한 평을 남겼다. 단맛이 작기에 "향"이 써서 아깝다"는 시음자 최인영의 평도 일리가 있었다.



독일

2.0
평점



호가든 / 벨기에 화이트 에일 / ABV 4.9%

벨기에 맥주 하면 호가든을 빼놓을 수 없다. 오렌지 향과 베트남 쌀국수 위에 올라가는 고수 잎 향이 풍기는 이로마가 매력적이고, 단맛은 강하며, 쓴맛은 약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선호한다. 실제 WABAR에서는 최근 호가든의 판매가 하이네켄을 넘어섰다고 한다. 오래고주량대 아가씨들이 늘어나고 있고

3.3
평점



두벨 / 벨기에 스트롱 골든 에일 / ABV 8.5%

효모향이 강하고 맛 또한 복잡하다. 과일향이 강도는 낮아도 탄산이 강해 쓰인다. 탄산이 끊임 없이 올라오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신산하다. 또한 알코올 도수가 높아 직접음으로도 좋고, 시음자 나원찬은 "그래서 폭발판 느낌이 난다"고 덧붙였다. 맥주로 취하고 싶을 때 마시면 좋고, 그 성격도 상당히 남성적이다. 한참 "두벨이 어쩌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WABAR이 호모 대표가 "흔히 두벨이라고 하는데 두벨두벨이라고 말해야 제 간짜가 난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어 두벨에 대한 제의는 이야기가 많이나왔는데, 그것은 우추 비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코

3.8
평점



필스너 우르켈 / 체코 필스너 / ABV 4.4%

세계 필스너의 원조 필스너 우르켈에서는 시음자 전영이 씩씩한 흥향이 강하고 길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기뻐진 음식 맛을 씹어주는 것 같은 맥주 본연의 깔끔함이 매력이다. 시음자 나원찬은 "삼겹살이 안주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육식인들의 입을 칼칼하게 달래줄 좋은 맥주다.

두블로 작업하라!

저, 이발 잘 깎겨줄 마구 투척할 테니 망껏 가져다 써라.

Duvel

악마의 맥주?

두블은 작업용으로 무척 좋은 맥주다. 이차기기가 잘기 때문이다. WABAR 이호복 대표는 "두블은 '악마' 라는 뜻"이라며 직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전엔 북유럽권 주식제에 진행 예정을 마시는 게 대부분이었으나, 두블은 당시엔 보색이다. 다음에는 두블 유리잔에 투명한 황금빛으로 처음 등장한 에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이것을 만든 이는 "이런 내가 아냐"라 악마가 만들어야며, 나르세를 말았다고. 그리하여 이 맥주의 이름이 '두블'이 되었다. 이 맥주의 이름이 '두블'이 아니라 '사탄' 등의 맥주가 유행했다. 하버드 필 잘 판다고 하면 난다.

라기가 아니라, 에일?

두블을 보면 견을 놀린다고 한다. 1. 두벨이 아니라 두블이 맞고 그 뜻이 악마라는 사실
2. 도수가 7~8% 사이로, 보기보다 너무 높다는 사실
3. 이 두블엔 황금 맥주가 라기가 아닌 에일이란 사실
두블은 심연밭으로 탄생한 엄청난 에일이다. 말 그대로 도수가 높은 황금빛 에일, '스트롱 골든 에일'이다.

2인1인 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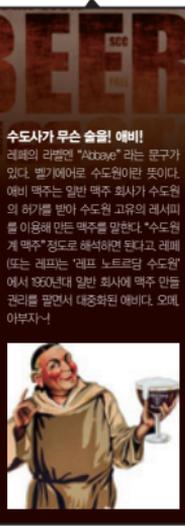
복은 2인1인 숙성될 것 같도 아니네. 무슨 2인1인 산양생 상생된 시음한 맥주를 숙성하고? 두블은 고급 와인처럼 숙성하여 그 향과 맛을 풍부하게 만든다. 그래도 안 상하니 걱정 불필요해라.



4.1
평점

레페 브라운 / 벨기에 에비 에일 / ABV 6.5%

전 세계 거의 모든 맥주를 맛 본 WABAR 대표이사 이호복에게 가장 좋아하는 맥주가 무엇이라고 물으니 "레페 브라운"이란 답이 돌아왔다. 시음자들은 캐러멜과 과일 의 아로마, 쓴맛, 묵은 보리의 맛, 흑설탕, 커피, 토피와 크림 등의 단어를 연상했다.



수도사가 무슨 술을! 에이!

레페의 라벨인 "Abbaye" 라는 문구가 있다. 벨기에어로 수도원이란 뜻이다. 에이! 맥주는 일반 맥주 원사가 수도원의 허가서를 받아 수도원 교우의 레시피를 이용해 만든 맥주를 말한다. "수도원 계 맥주"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레페(또는 레피)는 '레프 노트르담 수도원'에서 1300년대 일반 회사에 맥주 만들 권리를 팔면서 대중화된 에비다. 오예, 아버지~



CONSEQUENTLY

EFFECTIVENESS

NON-COMMERCIAL

FOUR

맥주별 점수는 사용자 7인의 평균 평균이며, 5점 만점제 소수점 두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였다.

SPECIAL TASTING
클라우스탈러
NO.1 무알코올 맥주



▶ 시음회의 포문을 연 것은 놀랍게도 무알코올 맥주였다. 하지만 시음자 중 사전 정보 없이 이 맥주를 마신 모든 사람들이 "플트하이 랜칭과 부드러운 씹는맛을 띠는 라거"라고 느낄 뿐 "알코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홀맛이 강해 비위가 약한 사람은 마시기 힘들고 대용량 상상은 평도 있었지만 대체로 회사에서 일하면서 온종일 마실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은 집무 중에도 이 맥주를 즐겨 마셨다. 특히 새벽에 최장시간 근무자는 "김신해도 마실 수 있으니 좋다"는 강한 호감을 드러냈다.



 미국



버드와이저 / 페일 라거 / ABV 5.0%

좋은 말은 별로 못 들었다(버드 관계자는 귀를 막으시게, 이 맥주 진짜 무난하다. 무난하고 일반적인 죽 살때까지 않는 선택지라는 평가)에 "국산 버드와이저는 무슨 문제가 있나? 수입 버드와 차이 크다. 향과 맛에 전혀 특징이 없다"는 날카로운 시음평도 나왔고 첫 향이 너무 약하고 색도 너무 옅고, 뒷맛도 별로(나환천이라는 의견에) 그대도 카스보다는 낫다(이영비는 말이 테이בל을 오갔다. 그 와중에 WABAR에서 버드와이저 드래프트 비어를 들고 나왔으나...

SPECIAL TASTING
버드와이저 드래프트

버드는 땀으로!
버드와이저 병맥주와 확실시 담겼다. 향이 훨씬 고소하고 풍부하다. 뒷은 더 부드러웠다. 플트하이 실력 올라왔다. 느껴질듯 막을리다. 사지는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노환천, 사림에 따라서는 버드 병보다 상쾌하지만 더 심심하고 그걸 싫어 한다. 확실한 정점은 그 크리미한 거품이다. 달콤한 향은 없었지만 아이스하키킴은 거품이 미각을 자극해서 좋았다(대용량인 최정원은 평이 나왔다. 이도 버드는 땀으로



사뮤엘 아담스 / 보스턴 라거 / ABV 4.8%

달콤한 꽃향기와 향긋한 꿀, 오렌지향이 난다(이영비) 하지만 흥 향도 상당히 강렬한 편이다(노환천, 맛은 생쌀 떨어뜨려면서(최원민, 입에 물고 있을 때 콧김으로 일어난 향이 부드럽게 올라온다(나환천, 뒷맛을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이트 맥스의 맥카스 맛을 상상하면 된다. 고소하고 강렬한 남성이기)이며, 마이크로브루어리의 대영시업계 강한 개성이 느껴진다.

 미국



포엑스 익스포트 라거 / 미국 스타일 라거 / ABV 4.5%

그냥 상쾌한 라거다. 별 특징은 없고 병은 좁 특이하다.

이 XXXXXH!
이름이 대체 왜 XXXXXH?? 호주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BEER"를 쓸 줄만 이렇기 썼는데 예가도 없고 유명한 남성이 포엑스 씨를 모델로 해서 이름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중세 유럽 맥주의 알코올 도수를 X로 표현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시간이야 어찌됐건 이 기사를 정리하고 있는 에디터는 별다른 단서도 사무실에서 포엑스를 구입 강권하다 쓰이진 수 많은 XXX 이미지 때문에 당황했다고 썼지만 사실 이미 그걸 좀 알았어. 맥주 이름 뒷말 하고 그 XXX 이미지 검색어 들어갈 수 있어서 좋겠다. 재귀!



헤니 브라운 / 미국식 라거 / ABV 4.5%

말 그대로 꿀을 넣은 맥주다. 벚꽃이 린민김 달진 않다. 게다가 브라운이 린 이데고 달리 색도 연하다. 색도, 꿀 향도 약해 조금 실망이지만(노환천, 일반 청금빛 라거보다 훨씬 진한 뒷맛이 이어진다. 하지만 조금 달달하며 부드러운 게 나쁘진 않다(나환천, 이데고 너무 많은 거제를 하면 실랑하게 될 테니 워 시음평들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오스트레일리아



쿠파스 베스트 익스포트 스타우트 / 드라이 스타우트 / ABV 6.3%

가네스 드래프트 병맥주와 바로 비교 시음을 해보았다. 쿠파스 스타우트는 진한 향과 같은 씹쓸함에 캐러멜맛이 진했고, 가네스보다 훨씬 고소하고 풍미에 다양한 감동함까지 느껴졌다(이영비) 하지만 라거를 좋아하는 사용자 총원상은 그 쓴맛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랬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입안에 남는 것"이라는 씹쓸함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다른 맥주의 시음을 방해했다"는 사용자 유승민의 의견도 흥미로웠다. "특 쓰는 강렬한 맛 때문에 매운 요리와 잘 어울릴 것"이라는 사용자 나환천의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온맥에서 온 맥주가 한국 요리와 잘 어울리다(나환천) 신기하지 않나? 일단 한 번 짚셔보라.



싱가포르

평점 4.9



타이거 골드 메달 / 미국 스타일 페일 라거 / ABV 5.0%

풀이 가볍게 느껴지는 향이 좋고(이영비, 골드함량과 씩씩한 홉향의 밸런스가 적절하여 뒷맛도 길다(노환철). 보형향이 풍부하지만 잡향은 적어 여러 음식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나원찬).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특삭는 느낌도 재밌다(홍원성). 타이거 맥주는 아시아 맥주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한 좋은 맥주(유승민). 태국 방문자가 점점 늘면서 타이거 맥주의 판매량도 쑥쑥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열라행파!!



태국

평점 4.3



싱하 / 유럽 스타일 페일 라거 / ABV 5.0%

맥주와 찻시를 후련하는 사자(태국어로 '싱하') 풀, 자스민 기본 좋은 몰트 향, 홉향이 느껴지고 맛은 부드럽고 씹쓸하면서도 자연스러워 맥주를 즐겨 마시지 않는 사람도 쉽게 마실 수 있을 것 같다(이영비, 노환철, 나원찬). 태국에서는 이 녀석이 수입맥주 하이라인과 같은 값에 팔린다. 동남아 맥주 특유의 개성이 있는데, 타이 국수나 커리, 또는 기흥진 피자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유승민). 원래는 알코올 도수가 8%였는데 2007년에 5%로 낮췄다.



일본

평점 4.7



산토너 더 프리미엄 울츠 / 필스너 라거 / ABV 5.5%

지난해 12월 국내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맥주 마니아들 사이에서 그 맛이 정평이 나있던 '맛있는 맥주' 되었다. OB가 맥주를 들여오다는 소식이 국내 맥주 애호가들이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WABAR 이효복 대표는 "풍부하고 부드러운 거품, 가볍지 않으면서도 상쾌한 맛이 일품"이라고 칭찬했다.



프랑스

평점 2.1



코르넨버그 1664 / 유럽 페일 라거 / ABV 5.0%

봉류러인들은 외국인 파머시는 줄이었는데 맥주도 마찬가지. 길게 말하게 별로 없다. 특별히 장점을 잘 모르겠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라거 본연의 깔끔함 무난한 덕분에 음식과 잘 어울리는 맥주가 되었다지도, 나쁜 건 없지만, 나가 최고는 아.. 단



한국

평점 1.1



오비 골든라거 / ABV 4.8%

가게는 컷이나 그거에 미치지 못한 또 하나의 작품이다. 과일향이 살짝스치지만 너무 뽕고(이영비). 화장품 향이 나는 것 같고, '골든라거'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최인영)는 공감대를 얻었다. 하지만 무난하고 일반적인 맛의 라거다. 즉,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디자인의 병과 캔이 연상시키는 진득한 구수함은 없었다.



미국

평점 0.7



카스 / ABV 4.5%

"늘 먹던 그 비릿한 카스 맛 소맥음으로 카스는 카스인 게 없다. 그 외에는 왜 카스를 마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시뮬자 이영비가 입을 열었다. 이어 날카로운 복숭아 통조림의 금속맛이 느껴진다(노환철). 목넘김은 숨을 참고 먹음(하지만 여전히 비릿하다(최인영). 맑다고 하던 너무 묽어서 마치 물을 잔뜩 탄 초코칩 생맥주 같다(유승민). 처음 향도 나쁘고 특색도 없어서 돈 아까운 맥주다(나원찬) 등의 의견이 있었다. 지못미, 카스. 록 가졌구나.



BEER TPO

이달 연이던 맥주들!

1 여름을 위한 여자(가미)가 좋은 듯한 맥주: 바이엔슈테파너 비이스비에(이영비), 리펜브로이(노환철), 에딩거 헤비(최인영), 나원찬, 타이거(홍원성), 크라운(박 1964)(WABAR 이효복 대표-이영), WABAR)

2 술을 잘 못 마시는 여자(가미)가 권하고 싶은 맥주: 레베 브라운(이영비), 스멜라 아르무야노(노환철, 홍원성), 클라우스(최인영), WABAR, 오비(노환철, 홍원성, 두말(유승민).

3 가장 남자가 먹고 마치고는 맥주: 카스(노환철, 나원찬), 두말(최인영), 타이거(홍원성), 맥스(노환철, 유승민), WABAR, 기네스(노환철, WABAR)

4 자적인 남자로 보이고 싶을 때 주문하기 좋은 맥주: 피스트리(이영비), 사우델(노환철, 나원찬), 필스너(유승민), 카스(이영비, 나원찬, 두말(유승민), 바이엔슈테파너 비이스비에(유승민)

5 [최근 후 테셔(프라이드) 체리(카스) 초(경)]이 이 순간 가장 어울리는 맥주: 비드(노환철, 이영비), WABAR, 타이거(노환철, 홍원성, 유승민), 오비(노환철, 최인영), 나원찬, 싱하(WABAR)



6 미치고 '토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맥주: 스타우트(이영비, 노환철), 리펜 브로이(최인영), 카스(유승민), 비드(노환철, 나원찬), 에딩거(홍원성)





사랑을
담아
미셸로부터

고양이 같은 매력을 지닌
여배우 미셸 트라헨버그.
도도한 눈빛의 그녀가
MAXIM 화보 촬영을 위해
경계를 살짝 풀었다(단추도
살짝). 당정이라도 그녀를
집에 데려가고 싶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BY NEX LEFTLEY
PHOTOGRAPHS BY
RANDALL SLAVIN





미셸 트라첸버그는 <버피 더 뱀피어>에서 시라 미셀 갤러의 여동생 뱀피어, 그리고 <가십 걸>에서는 악녀 조지나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흥얼거리에 색다른 악녀 캐릭터라니, 벌써부터 수컷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여자라는 직감이 팍 오지 않나? 저 가슴과 묘한 눈매, 도통한 입술 사이에서 풍기는 장난기가 낫설지 않은, 눈썹이 좋은 독자도 있을 거다. 1999년 영화 <영사 기제트> 속 캄캄한 갈래아리 돌풍이 소녀 '페니'가 이렇게 무뎠으면 지랄다면 일을 수 있겠나? 본인 스스로 '지금이 MAXIM 화보에 등장할 최적의 타이밍이다'라는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그 뜻을 거역할 수 있겠나?

MAXIM 커버를 장식하게 된 기분이 어떤가요?
세상에 흥분 그 자체예요. 화학 시절에 절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모든 사람이 제가 커버로 나온 MAXIM을 산다고 생각하니 엄청 짜짜요. 진짜 기분 좋아요.

역시 복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할수록 좋은 법이죠?
(웃음) 그렇게 뱀진 않았잖아요! 당신 부끄러운 줄 알아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 가슴은 잘려있었어요. 그래서 늘 놀림을 받았죠.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좀... 채워진 것 같아요. 약간 늦긴 했지만 어쨌거나 애들이 이제 제자릴 잠긴 집이었어요?

자, 이제 그 녀석들을 세상에 끌어줘야 할 때예요.
조금만이에요. 약간 이유를 남겨야죠. 솔직히 이번 촬영이 정말 정말 기뻐요. 색사한 요소도 있지만

신비로움도 있었잖아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음, 왜... 하면 나머지 참사에서 나 혼자만 즐길 거거든요.

MAXIM 시무시 안에서 당신은 지금 다리를 머리 뒤로 넘길 수 있는 여자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어요. 대단한 유연성이예요!
어차피 촬영을 다 마친 뒤에 보여준 게니 찍을 수도 없었잖아요. (웃음) 봐요, 요런 건 또 찍었죠?

음, 자주 그러나요? 그... 몸을 그렇게 잡는 거 말이에요.
네, 어릴 때부터요. 전 굉장히 유연해요. 운전할 때 뒷좌석에 놓인 가방을 짐가방도 무척 편리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 편리한지는 더 이상 밝히지 않겠어요. 상상에 맡기죠.

뱀피어에게, 악녀에... 당신 배역에는 일관성이 있군요. 심지어 어둠의 존재에 끌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 얼굴이 워낙 창백해서인지 그런 역이 잘 어울리나 봐요. 새 영화 <타이크 미 출 두나이트>에서도 고소적으로 나오는데, 화장을 미처고 세트장에 가니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이미 25분 전에 도착했는데도 못 알아채고 저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대체 뭐 기다리나 공공해서 물었죠. "뭐 그렇게 기다리세요?" 하고 사람들이 "미셸 트라첸버그가 아직 안 왔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나요?
"아니, 세상에 개는 진짜 나쁜 녀이네요!"라고요.



“나는 내 몸매의
곡선이 좋아요.
가슴이랑
엉덩이요.”



→ 미셸 트라첸버그

생년월일:

1985년 7월 1일

태어난 곳:

뉴욕, 미국

최악의 작업:

"아침 5시에 커피숍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난 이제 당신이 아침에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 알아내고 말해서 상투했다. 또 한 번은 클럽에서 어떤 남자가 스크림 오르기(락타일)를 보냈는데,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돌려보냈다."

연애와 유령:

"우리가 머물던 호텔 방에 유령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침대가 이렇게 흔들렸던 건 내가 일어났을 때 이상한 짓을 하거나 해라. 이 유령 놓아. 내가 니 공중이를 작성해주겠어"

간짜리들:

그녀는 미드 《하우스》에 단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다. 보 핑지에 진드기가 붙어 괴로워하던 여자 환자로 맡았다.

젠디 같은 여자:

유령 패션 디자인사 디자인 본 파스텐버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응, 당신은 달콤한 롤리팝 같아요" 이화동문이다. 한인팬

당신이 파티에서 목격한 가장 미친 짓은 뭔가요?

파티는 아니고, 이상한 남자는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를 보며 세레나데를 하는 거예요. 패를 쥐어짜며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됐어, 됐어요! 떠나서 니 바닷가재나 먹어, 재빨!"이라며 진정시켰어요.

〈버피 더 뱀파이어〉에 출연했어요. 원조 뱀파이어 청춘 스타로서, 계집애들 소꿉장난 같은 〈트윙라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있었어요. 나 사실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잘했어요!

우리가 〈버피〉로 이 뱀파이어 트렌드를 열었다고 생각해요. 6천이나 앞섰잖아요! 뱀파이어 열풍은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아무래도 뱀파이어에게 여자들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섹스 어필한 부분이 있나 봐요.

영화 〈유로트립〉에서 당신이 히히하하이를 하려고 오트바이를 탄 남자에게 가슴을 보여주죠. 혹시 현실에서도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웃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릴 땐 완전히 절박이었던(까)요. 그러다가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아침 눈뜨 보니 가슴이 생긴 거예요!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했죠. "봐봐! 그것들이 진짜 여자 닮았어! 내가 혹시 남자가 아닐까 우리 같이 오렝트만 고민했잖아, 근데 그것들이 여자

생겼더니(까)" 차를 얻어 타려고 가슴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은 있죠. 꽤 호기적이던 걸요!

친구들은 당신의 가슴 노출을 개역치 않던가요?

정신 나간 '가슴 노출광'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냥 개들이 거기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매일 확인했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부적절한 일어난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당신 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몸의 굴곡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엉덩이도 좋았고요. 전 젓가락처럼 미끈 여자에게 끌리는 남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지니까요. "어린 남자 페티시가 있어?" 전 제 몸의 곡선이 마음에 들어요. 아, 눈도 마음에 들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눈에서 매력을 느끼죠.

어릴 때가 당신을 또 만날 수 있죠?

(기실 잘) 프루두와 함께 직접 쇼를 제작하는 중이에요. 평소 관심 있었던 범죄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밤에 마주칠 수 있는 이야기들 말이예요. 어두운 과거를 안고 있는 젊은 범죄학도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아직 제목을 말해줄 순 없어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치열했던 6·25 전투

베스트

10

당신이 솔로인 것에 이유가 있듯 이 전투들 역시
박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WORDS BY 슈타인호프

호국보훈의 달 6월이다. 30줄을 넘어선 MAXIM 독자라면 '국민학교' 시절 당신을 괴롭힌 반공 글짓기, 포스터, 웅변대회의 추억만 떠오르겠지. 하지만 정말 6·25 전쟁은 치열했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환갑이 되는 해를 기념해 당시 가장 치열했던 10개의 전투를 꼽아봤다.



1. 춘천 전투

CHECK POINT 춘천을 탈린 인민군은 경춘 가도를 드라이브하듯 신나게 달려 한강 이남으로 돌격 동쪽 측면에서 서울을 포위해 한강 이북 지역에 포진한 국군의 주력 부대를 섬멸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RESULT 춘천 지구를 방어하던 국군 6사단은 9,336명의 병력과 야포 1개 대대로 전차와 자주포, 야포로 무장한 3만 7,000명의 인민군과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6사단은 평소 열심히 진지구축을 열심히 해왔고, 다른 사단들이 육군 본부의 비상경계령 해제로 대부분은 징병을 휴가와 외출, 외박으로 내보낸 상황에서도 사단장의 지체 판단으로 비상경계령을 유지하며 전투 태세를 갖췄다. 그곳에 있는 군부대에겐는 악재이었지만, 덕분에 서울이 함락될 때까지도 춘천은 인민군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 대신 인민군 사단장과 군단장이 직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줄줄이 목(?)이 잘렸다.

MAXIM SAYS 6사단이 꾸준히 삼질로 진지구축을 한 덕분에 인민군을 격퇴했으나 MAXIM을 잃는 군부라면 진지구축을 지시하는 지휘관에게 분노지 말고 삼질에 매진토록!



2. 의정부 전투

CHECK POINT '동두천-의정부 축선'은 38선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최단루트다. 게다가 춘천방면과 달리 지형도 평탄해서 그냥 밀고 내려오면 끝이다. 참 쉽죠?

RESULT 중공군과 소련군 출신에 수년간의 전투 경험을 쌓은 베테랑 장병으로 구성된 보병 2개 사단에 93대에 달하는 소련제 T-34 전차, 인민군 포병의 3분의 1이 의정부에 밀려들자 병력이 4,500명밖에 없던 국군 7사단은 그대로 박살 났다. 국군 수뇌부는 서울을 지키려고 후방에서 차출한 병력을 죄다 의정부에 꽂아넣었지만 국군 전력은 원체 후덜덜해서 서울은 3일 만에 인민군에 떨어졌다. 게다가 국군 수뇌부는 전황 사정이 급하다고 후방 병력을 연대나 대대, 심지어 중대 단위로 마구 찢어 전방으로 내보냈고, 병력과 장비 퀄리티도 떨어져서 전차와 사람이 맞닿을 뜨는 판국에 전투 지휘까지 이따위였으니 국군이 이기면 기적, 아니 시가다. 더구나 7사단은 진지공사 따위는 해두지도 않았다.

MAXIM SAYS 이 글 읽는 여러분 형님들은 알 거다. 갑자기 열 사단 연대장 또는 대대장에게 명령을 받는 중대가 제대로 돌아달 리 없던 사실을 말이다.



3. 한강 방어전

CHECK POINT 6·25가 터진 지 3일 만에 서울이 GG를 쳤으니 국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미군의 지원을 기다릴 국은 이군밖에 없었다.

RESULT 참모총장 채병덕 아저씨가 한강 다리를 너무 일찍 날려버렸다. 당시 폭파 시점에 국군 5개 사단이 한강 이북에 남아 있었는데 퇴로가 사라져 병력이 모조리 와 해했다. 그 때문에 당시 국군의 전력은 전쟁 시작 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이었다. 유일하게 건재한 상태에서 철수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조차 병력의 절반을 잃었을 정도다. 이 (체형 팀킬의 현장에서도 한강 방어를 맡은 김중일 소장은 각 사단의 생존자를 재편성한 후 한강 전선에 배치해 인민군의 도하를 막았다. 이후 9일간 한강 일대의 노랑진 영동포, 여의도 등지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으나 인민군의 전차 한강을 건너는 순간 효과적인 대전차무기가 없었던 국군은 추풍낙엽처럼 밀려났다.

MAXIM SAYS 인민군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폭파하는 게야 그렇다스 쳐도 최소한 우리 편은 건너 후에 폭파해야 할 것 아닌가? 이진 (스타크래프트)에서 갑자기 동맹을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 없는 배신 행위라님!



4. 화령장 전투

CHECK POINT 미군이 참전했으나 전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한강선과 금강산을 연거푸 내준 국군과 미군은 소백산맥을 저지선으로 결정했다.

RESULT 상주와 김천 일대에서 방어전을 맡은 국군 17연대는 혼자서 인민군 1개 사단을 박살 내는 기염을 토했다. 고갯길의 이점을 살린 고전적인 매복과 기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7연대가 담양 구역을 잘 지켜도 한수고였다. 서부전선의 미군이 개박살 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철수했으니 말이다. 이상하게 양기는 급하게 참가한 전쟁 초기에 꼭 적군에게 밀리는 희한한 전통이 있다.

MAXIM SAYS 일진왜란 때 신림은 이 고개를 지킬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 그에 비하면 적당히 밀리고(?) 후퇴한 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5. 포항여중 전투

CHECK POINT 6 25 당시 미군이 맡은 왜관 사쪽을 낙동강이라 불렀다. 낙동강 방어선의 동쪽 끝 포항은 동해안 전선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요충지였다. MB 교항이라 중요한 게 아니라..

RESULT 국군이 많은 왜관 동쪽 전선은 신약지대에 걸쳐 있었지만 강이 없어 북한군이 쉽게 돌파할 수 있다. 게다가 포항을 방어하던 3사단 주력은 장사동 해안에서 포위 고립됐고, 북한군은 그 덕분에 포항을 손쉽게 점령했다. 미군과 국군이 즉시 반격해서 겨우 물아낼 수 있었지만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포항 일대의 격전은 계속됐다. 이 전투가 더욱 비극적인 건 포항 시내가 점령될 때 분투했던 7명의 학도병 때문이다. 3사단장 김석원 장군은 학도병의 지원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정식 군인도 아닌 데다 훈련도 부족한 학도병을 전선에 보낼 수는 없어 사령관 경비를 맡겼다. 그런데 하필이면 인민군 병동대가 사단 후방 지휘소를 공격하는 바람에 학도병이 앞줄에 최전선에 나섰다. 2시간에 걸친 분투 끝에 학도병은 49명이 전사하고 6명이 실종됐지만 인민군의 진격을 12시간 가까이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들 덕분에 후방 지휘소가 철수해 방어선을 재편성할 시간은 물론 수많은 포항 시민이 피난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MAXIM SAYS 포항여중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 <포화 속으로>는 구리투성이니 절대 믿지 말 것 가자말이 너무 많아서 이거만 깨달려도 책 한 권은 쓸 수 있다. 학도병 중에 소년원 대군대를 선택한 범죄자 따위는 없었고, 지휘자 역시 군대의 지령이 아닌 학도병 간의 선거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국군은 학도병에게 포항 방어를 맡기고 철수하지 않았다. 레일

6. 다부동 전투

CHECK POINT 전장이 200km에 달한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은 대구였다. 최근 '고담대구'라는 놀림을 받고 있지만 옛날부터 대구는 경성도 일대의 행정 중심지이자 대도시였다. 심지어 1950년 8월 초까진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다.

RESULT 인민군은 전쟁을 시작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부산을 함락시키겠다는 각오로 신나게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다. 대구 함락은 곧 낙동강 방어선의 붕괴이자 대한민국의 붕괴를 뜻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구해낸 이들이 바로,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다. 백선엽 사단장은 '조국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렸다. 너희들이 물러서면 내가 너희들을 쏠 것이다. 내가 물러서면 너희들이 나를 쏘아라!' 라고 외치며 병사의 전투에서 돌격했고, 6·25가 낳은 최고 명장 버프를 받은 사단은 8월 한 달 동안 하루 최고 70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대구의 관문 다부동을 지켜냈다. 1사단 소속 장병이나 예비역 군바리라면 자신의 부대가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MAXIM SAYS 사단이 담당 구역에 미군에 인계했지만 달랑 3일 만에 다부동을 내주고 말았다. 뼈다칠이나 할 줄 알았지, 이런 허접스러운 전투력의 양키 생키 같으니!

7. 서울 시가전

CHECK POINT 압도적인 해공군 전력으로 인천을 수복한 유엔군은 수도 서울로 진격했다. 북한군은 서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용 가능한 병력을 끌어모아 저항했다. 서울은 북한 수도기도 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고? 70년대 북한은 한때은 엄연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다. 그때 당시 평양은 임시 수도였을 뿐이었다.

RESULT 인민군은 서울 일대에 남아 있는 전력을 바닥까지 끌어모았고,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남쪽에서 공세를 준비하던 병력까지 서울로 불러들여 방어에 투입했다. 하지만 연이은 공세 실패와 보급품 부족으로 허덕이던 북한군이 압도적인 화력의 뒷받침을 받은 사기 백배의 국군과 유엔 연합군을 당해낼 순 없었다.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공격의 선봉에 선 남한의 해병대는 차열한 시가전 끝에 중양청 옥상에 태극기를 다는 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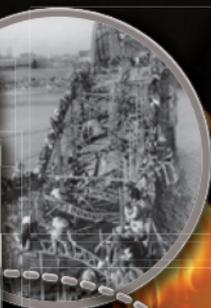
MAXIM SAYS 안타까운 건 이 전투에 투입된 인민군 중 상당수가 남한에서 강제 징집된 의용군이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정쟁이라도 군인이 아닌 의용군을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건 좀 아니잖아!

8. 장진호 전투

CHECK POINT 중공군 지휘부는 이 전투에서 강력한 물파위를 자랑하는 미 해병 1개 사단을 끌로 보냈으로써 유엔군의 전력 약화와 미국 본토에서의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RESULT 서울 탈환 이후 승승장구하며 북진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출현으로 다시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다. 이때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로 진격하던 미 해병 사단에 중공군의 공격이 집중됐다. 이때 미 해병 사단장은 "해병에게 후퇴란 없다! 우리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10배가 넘는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흥남까지 철수하는 데 성공했다. 후퇴를 모르는 양기 해병의 반격에 중공군은 이후 작전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피해를 보았다. 대신 미 해병대는 한천도의 얼음 지옥에 피는물을 흘렸다. 용변을 볼 때 엉덩이가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추위 때문에 전투로 인한 사상자보다 동상자가 더 많았다. "참호 속에서 발발 떨어 지다 갔더니 중공군을 끌고 가고 있더라" 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자주 연출될 정도였다.

MAXIM SAYS 양기 코와 거사가기 일만 해도 추위 타는 건 마찬가지다.



9. 도솔산 전투

CHECK POINT 중동부 전선에서 적의 활동을 살피기 좋은 길게고지인 데다 북방 해안 평지에 위치한 공산군 보급로는 유엔군 주요 전략 목표를 중 하나였다.

RESULT 도솔산 전투에서 해병대는 '쿠신 잡는 한국 해병'의 신화를 만들었다. 이곳을 공격한 미 해병사단의 선봉대는 국군 해병대였다. 포병과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며 실시한 몇 차례 공격이 모조리 실패하자 해병대는 그냥 독고다리로 아간 기습을 김행했다. 공산군은 유엔군이 포격 지원 없이 공격해올 리 없다고 방심하다가 해병대의 손에 박살 났다. 해병대가 그저 슬 먹고 갠만 치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6·25 전쟁에서 그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MAXIM SAYS 이 전투로 해병대는 '우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지 아미?



10. 백마고지 전투

CHECK POINT 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화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고지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RESULT 고지쟁탈전 중 가장 치열했던 곳이 바로 백마고지 전투다. 북측 중공군의 3개 사단이 이곳을 맹공격했으나 백마고지를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전투기간 6월 중 고지의 주인이 7번이나 바뀌었고, 양측 사상자는 한 8,000명에 달했다. 백마고지에는 무려 27만 발에 달하는 포탄이 쏟아졌다. 덕분에 산은 낮아졌고, 산등성이의 나무는 씨가 말랐다. 이렇게 민둥산이 된 모습에 마치 백마의 진등과 닮았다고 해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은 거다. 9사단을 백마부대로 부르는 것 역시 이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MAXIM SAYS 큰 희생을 치르고 지켜낸 백마고지였지만 휴전 결과 비무장지대에 귀속됐다. 밀어붙일 땀·질린꿈이나 허탈하게 쓰러

BRAVE GIRLS'

FATAL TEMPTATION

용감한 형제가 내놓은 용녀들이 가요팬에 용감하게
도전장을 낸 걸 '아냐요?'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정희
HAIR 해인 MAKE-UP 유수영(세지오M&S) www.stbkorea.kr FILM 김진욱 ASSISTANT 조유림

COOPERATIONS

송조원(02-346-7103) 오스세인, 불림(02-546-7764)
프리즈(02-346-7700) 리벨(02-346-7701) 보비(02-346-7725)
키사(02-346-6948) 제이(02-820-8207-7834) 기어(02-347-0089)



비스트 가이아
민스케 티셔츠, 쇼츠 모두 코데조캄바인 베이직
장갑 제이이앤벨

10
01



미스코리아 출신, 신하균의 조카, 웅장한 형제(이태 용형) 등 본인들보다 다른 것이 늘 화제가 됐다.

그것도 타고난 복 아닌가?(웃음).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감사하다.

음반 커버는 마치 2NE1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R&B 스타일의 '아니오?' 다.

당신, 음반 커버를 꼼꼼히 보지 않았군. 딱 걸렸다! '아니오?' 에 어울리는 스타일, 그리고 색다른 스타일 두 가지 다른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노래가 입에 잘 붙는 'So Sexy' 가 브레이브 걸스의 색깔과 더 잘 어울린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곧 우리의 색깔이

다. 한 가지 모습만 떠오르는 그룹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이 될 거다. 그걸 위한 첫걸음으로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타이틀곡을 '아니오?' 로 정했다.

대다수 언론은 당신들의 '픽업춤'에만 관심을 가진다.

어떤 관심이라도 우리에게도 행복하다. 의도한 바와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무대에서 모든 걸 증명해보일 테니 기대해달라.

그나저나 뽕춤은 누구 아이디어인가? 파격적인 안무긴 한데 전혀 발레 느낌 같진 않다.

시장님 아이디어! 중간에 발레 동작이 들

어 있는데 심의 때문에 공중파에선 보여주지 못했(웃음).

브레이브 걸스와 다른 걸그룹의 차별 포인트는?

중성적인 매력 그리고 걸그룹 중에 R&B로 활동하는 팀은 우리뿐이다. 이미 차별화는 시작했다.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올해 목표는 당연히 신인상생 길게 보자면 원더걸스 같은 국민 걸그룹이 되는 게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MAXM 독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웃음).



가속 조끼기어마
경양서 민스페 리서츠, 쇼츠 모두 에디터 소장
피피 제이이엔엔엘
구두 수조원





헤란



유진

(좌)

민소혜 티셔츠 이디다스 네오 라벨
목걸이, 팔찌 모두 제이미앤벨
쇼즈 오즈세컨
악세서리 슈즈현

(우)

김정혜 원피스 에디터 소장
팔찌 제이미앤벨
구두 키시

귀걸이, 팔찌 모두 제이미앤벨
원 솔더 상의 콜럼비아
지퍼 디테일 스키프 보브

에진



당신들의 인기를 '아나요?'

서아: 아직 실감할 정도는 아니다. 분발하겠다!

은영: 가끔 헛갈려 하는 분도 있는데 그땐 '아나요' 부른 가수라고 먼저 인사한다.

예잔: 인기 폭발 정도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유잔: 진짜 모르는데(웃음). 모든 게 신기하다.

혜란: 여전히 연습생 같다. 거리에서 우리 노래가 나올 때마다 깜짝 놀란다.

제일 용감했을 때는?

서아: 브레이브시운드 오디션 봤을 때. 그날 흰 옷을 입고 바다를 걸었다.

은영: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 몰래 시종업-랑 서울에서 문경밭 버스를 탄 순간.

예잔: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라 겁이 없었다.

유잔: 처음 사장님 첫인상 보고 귀엽다고 말했을 때.

혜란: 나만의 느낌에 취해 춤과 노래를 할 때.

용감한 남자가 대수한다면?

서아: 용감이 사장님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대수하는 용감한 남자라면 국회사로 보내어.

은영: 일단 사장님께 데리고 가겠다.

예잔: 용기를 더 내라고 한 후 사장님께 허락을 받게 하겠다.

유잔: 용기 있게 사귀어보라는 말이 안 되고, 언니들에게 물어보겠다.

혜란: 용기만! 있다고...?

브레이브멘이라는 팬티를 아나?

서아: 밤낮으로 나라를 지키며 우리를 단장지게 만들어 주는 국군장병 속옷이다(웃음).

은영: 나도 본 적이 있는데(웃음).

예잔: 가끔 덧글에서 본 적이 있다(웃음).

유잔: 아니다. 굳인 속옷이다.

혜란: ... (웃음만)

당신들에게 '브레이브'란?

서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고마운 친구.

은영: 우리 회사 이름.

예잔: 항상 가져야 할 마음가짐.

유잔: 용기.

혜란: 가족.





ULTIMATE MISSION

‘빈 라덴 사살’ 작전 발동

미국의 끈질긴 10년간의 추적망 드디어 종지부를 찍다.
오바. 아니 오사마 빈 라덴...안녕 WORD BY 김재경

오사마 빈 라덴은 지난 10년간 끔찍한 테러 활동으로 미국과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가 아민 알카에다 조직은 19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 폭파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폭탄 테러를 일으켰다. 2000년대 접어들어 미 해군의 콜호에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더니,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를 노린 블록버스터급 테러로 ‘세계의 경찰’ 미국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자기 집 안방에서 엿을 먹은 미국은 빈 라덴을 잡기 위해 2500만 달러(약 300억 원)의 현상금을 내 걸었지만 매번 허탕을 쳤다. 2010년 8월 그의 은신처에 대한 믿음만한 정보를 얻은 후 미국 정부는 이븐야말로 빈 라덴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10년 동안 계속된 스토킹(?) 끝에 미국은 지난 5월 2일 ‘넵튠의 창 작전(Operation Neptune’s Spear)’으로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

넵툰의 창 던지다!

5월 2일, 현지 시각으로 오전 1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외곽 도시 아보타바드의 조용한 마을은 일순간 요란한 굉음에 휩싸였다. 마을 상공에는 미 육군 제60 특수전 항공연대 소속의 M+60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시커먼 하늘을 가로질렀다. 25명의 미 해군 살팀(SEAL TEAM 6) 소속 작전 요원이 탑승한 블랙호크 헬기 2대는 빈 라덴의 은신처로 알려진 건물 마당에 접근했다. 나머지 2대는 건물 주위를 비행하며 이들을 엄호했다. 공중에 멈춰선 2대의 헬기에서 살팀 요원들이 패스트 로프를 타고 마당에 침투했다. 이들을 발견한 20여 명의 테러리스트는 갇혀서 AK-47 소총과 RPG-7 대전차 로켓포로 격렬히 저항했다. 그러자 건물 상공의 블랙호크 헬기가 친히 M-134 미나건으로 분당 2,000~6,000발의 7.62mm 탄환을 발사하여 테러리스트들의 저항을 무력화했다.



▶ 이번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예상되는 스텔스 블랙호크, 일반 블랙호크 헬기와 달리 스텔스 형상을 도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M-134 미나건은 분당 2,000~6,000발의 7.62mm 탄환을 쏘아내며, 테러리스트들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제압했다.

제로니모를 찾아서

같은 시간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회의 테이블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 10여 명의 참모진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당신이 아동을 보듯 돌아서라 화제를 차다보고 있었다.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진행 중인 작전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다. 살팀 요원들은 테러리스트와 총격전을 벌이며 빈 라덴의 은신처로 쇄도했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제로니모(미 작전에서 빈 라덴을 지칭하는 암호명)'를 찾기 위해 건물을 샅샅이 수색했다. 방마다 섬광탄이 터졌고, 순간적인 섬광과 폭음에 놀란 테러리스트들은 무력화됐다. 살팀 요원의 주무기 M-4 OCEBER 소총은 당황한 테러리스트를 겨냥했고, 발사된 5.56mm 탄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들의 몸을 관통했다. 총을 맞고 쓰러진 테러리스트에게는 F226 권총의 9mm 탄환이 기다리고 있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확인 사실은 대테러 작전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SPECIAL FORCE 레알 특수부대

특수부대 중에서도 진짜 특수한 부대로 불리는 녀석들이나 옳지 않겠나!

나이트 스토크스(Night Stalkers) 미 해군 살팀 미 육군 제60 특수전 항공연대

미 육군 제60 특수전 항공연대는 미 육군 특수전 시령부 소속으로, 특수전 부대의 헬기 수송을 담당한다. 미 육군 최고 헬기 조종사가 모인 부대로, 1981년 창설돼 전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이다. 이번 작전에 참여한 살팀 역시 이들의 단골승선 중 하나. 주요 장비로는 소형 헬기 AM+6M 리블러드, 중형 헬기 M+60LX 블랙호크, 대형 헬기 M+40G 차투르가 있다. 이들 헬기 '는 특수전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일반 군용 헬기보다 몸집이 몇 배나 비싸다. 이번 작전에는 스텔스 블랙호크가 전격 투입됐다.



데브그루(Davgru) 미 해군 특수전 개입단

살팀은 일반적으로 '미 해군 특수전 개입단'의 약자인 데브그루라고 부른다. 미 해군 특수전 부대 살팀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미 육군의 엘타포스와 함께 최상급 특수전 부대다. 1981년 10월에 창설되었고, 대테러 작전을 주로 한다. 미 해군 소속이지만 엘타포스와 함께 미국 대통령과 명령을 직접 수행한다. 창설 이후 다양한 작전에 투입되었고 이번 작전에서 빈 라덴을 사살하는 패커를 이했다.



섹스만큼 긴박했던 25분

양측의 격렬한 교전은 20여 분 정도 이어졌다. 최정예 작전 요원들의 정교한 팀워크에 테러리스트는 하나둘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끝판왕 빈 라덴이 실패 앞에 등장했다. 아내와 아들이 인간 방패로 막아섰지만 실패 팀 요원은 주저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 빈 라덴을 사살한 요원들은 그의 각종 소지품을 정리하고, 현장에 있던 여성 2명과 어린이 4명을 체포한 후 작전 도중 기계 고장으로 추락한 블랙호크 헬기를 골짜기 바리고 사신과 함께 헬기에 올라탔다. 같은 시각 백악관 상황실에는 낭보가 날아들었다. "빈 라덴으로 보이는 자를 사살했다. 실패팀 인도양의 칼빈스 형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상황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외곽 도시 아보타바드에 위치한 빈 라덴 은신처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진행중인 작전은 백악관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중이었다.

심야의 기자회견

실패팀을 대우 블랙호크는 공중급유를 받은 후 인도양의 칼빈스 형으로 도착했다. 사살한 이가 빈 라덴임을 100% 확인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했다. 유전자 표본 채취가 이뤄졌고 얼마 전 미국에서 송진 빈 라덴 누나의 유전자와 비교했더니 그 사체가 빈 라덴일 확률이 99.99%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OA)은 작전 종료 후 약 3시간 40분 만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오바마는 현지 시각 밤 11시 30분인 한 밤중인데도 카메라 앞에 나섰다. 그는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을 승리의 날이다. 정의가 구현됐다"라는 말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최정예 작전요원들의 정교한 팀워크에 테러리스트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갔다.

알카에다 잡는 특수부대 태스크 포스 88

언론에서는 미 해군 상륙팀을 이번 작전의 일등공신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 작전의 진짜 일등공신은 태스크 포스(Task Force) 88이다. 태스크 포스 88은 9·11 테러 이후 창설된 대테러 부대로,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 그 두목인 빈 라덴을 생포하거나 사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CIA와 미 국방부의 대테러 부서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는데, 점 조작인 알카에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조직을 한타와 길러온 니누였다. 한타인 CIA를 비롯한 미 국방부 정보 부서가 이들을 찾아내면 킬러인 미 육군 델타포스와 미 해군 상륙팀이 행동에 나섰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국군 대표 하는 특수부대인 SAS(Special Air Force)도 킬러로 참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를 앞에 둔 실패 팀 요원들은 주저하지 않고 총을 발사했다.

→ 썬덤 요원들을 태운 블랙호크 헬기는 도중에 공중급유를 받으며, 인도양의 길빈섬 항로에 도착했다.

알카에다와의 지루한 전쟁

2001년 10월 7일,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태스크 포스 88은 아프간에 전격 투입됐다. 이들은 빈 라덴의 은신처로 예상된 아프간 남부 산악지대 토라 보라에서 주로 활동했다. 델타포스와 살라팀, SAS도 이 지역에 투입됐는데, SAS는 작전 중 간헐의 차이로 빈 라덴을 놓치기도 했다. 이들의 활약으로 2001년 알카에다 중간 간부 2~3명이 체포되고, 다른 간부 역시 체포되거나 사살됐다. 알카에다 간부를 처리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도 동원됐다. 2002년 11월 9일 예멘에서 OA 소속 프레데터 무인기는 헬파이어 미사일로 알카에다 간부 중 한 명인 알 하티를 사살했다. 알 하티는 2000년 미 해군 콜 호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킨 정본인이었다.



길빈섬 항로

→ 태스크 포스 88은 9.11 테러 이후 창설된 대테러 부대이다.

대장 잃은 알카에다의 미래는?



원 자와히리

빈 라덴이 죽었다고 알카에다가 그날로 사라지진 않는다. 실질적 지도자인 알 자와히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집트 외곽 의사 출신으로 알카에다의 22차임과 동시에 빈 라덴과 맞먹는 거물급 테러리스트다. 미 국무부가 9·11 테러 직후 알 자와히리 체포에 내건 현상금 이 빈 라덴과 동일한 2500만 달러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조직의 열혈매달리자 지극적인 빈 라덴의 죽음은 알카에다 활동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다수의 컴퓨터 파일과 서류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다. 그리고 대부분의 테러리스트 조직이 두목 잃은 후 역시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야말로 알카에다 조직의 미래를 짐작케 한다. 알카에다. 안녕.



→ 델타포스와 썬덤은 아프간 남부 산악지대인 토라 보라에 집중 투입되었다.



M-4 COBR 소총

FIRE

M-4 COBR 소총

근접전투용에는 이만한 녀석이 없었지?

많은 국가의 대테러 부대는 MP-5라는 기린소총을 애용한다. 그런데 MP-5 기린소총의 9mm 파이프검탄은 위력이 다소 약하다. 미군 내 최고의 총집이 실려있는 556mm 탄을 쓰면서 MP-5 기린소총보다 강력한 소총을 원했다. 미 해군 수상전 센터의 부사 크레인(디비전)이 새로운 소총 개발에 착수했고, 그 결과 M-4 COBR가 탄생했다. 1999년 선보인 M-4 COBR 소총은 미군 특수전 부대의 M-4의 상부 리시버를 근접 전투용으로 개조해 총신이 짧아졌고, 노리쇠 문자는 한층 강화된 녀석이다. M-4 COBR 소총이 유명해진 건 2001년 현 아부 바카스인 대령령 8회도 카라카지 암살 미수 사건 때였다. 다들 경시총을 믿는 실령이 바로 M-4 COBR 소총을 사용했다.

객원 에디터 김대영



방아쇠

원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은·오 프라임에서 국경 관련 경험을 기차해온 일타타리 전문 길빈리스트 육군 펠린 이미지(ARMY)에서 영상 속의 전쟁을 기고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의 연재작가로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며, 인텔리(재)주 국방 조사팀 팀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Dr. FEEL GOOD RaNia

요즘 가장 핫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걸그룹 라니아가 MAXIM을 찾았다. 당신도 그녀들의 매력 때문에 열이 오르고 몸이 떨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거다!

BY 김희은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솔리 앙리제 (포레스터 도살룸 02-3444-2252), 이다 (라플로에 02-3444-2252)
MAKE-UP 문원진 (라플로에 02-3447-4004) FILM 김진욱
ASSISTANTS 박찬빛누리, 조유림

“마음에 드는 남자 아이들?
우리는 우리가 좋다”

샘

나를 가장 기분 좋게 하는 것
강아지랑 놀 때

가장 자신 있는 신체부위
길고 또렷한 인종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하고 싶은 말

“놀러 가자”, “영화 보자”, “만나자”, “밥 먹자”,
술이하는 티 딱박 날 거다.



티아라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곳
어제 어릴 때 수영을 해서
어깨가 흔들린다.

나의 성격
중세 코미디이

나는 레이어의 ____ 다.
'정도'다. 춤을 정도 있게 춘다.
중에도 어깨 힘이 실리나 보다.

▶ 좌
경장석 시스루 셔츠 코데즈컴바인
앤더웨어 상의 마심도로서
앤더웨어 하의 코데즈컴바인이너웨어
수폰 소재의 스트림 슈즈 슈즈원

▶ 우
은색 조끼 콜레나이어
앤더웨어 코데즈컴바인이너웨어
수폰 소재의 스트림 슈즈 슈즈원

GOOD VS BAD

팬에게 들은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은?

여성팬들이 우리한테 멋있다고 말해준 것

가장 속상했던 반응은?

기사 사잔만 보고 너무 아하다고 했던 댓글.
우리 피포먼스를 제대로 보진 본건가?



리코

나의 성격
활달하고 남자같다.
상지하는 다리로 뽐내고 있는다.

자신 있는 신체부위
매추리일 길이 작은 얼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별다른 분류가

“우리의 몸매는 관리의 힘이다.
항상 다이어트 하고 있다”

주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하고 싶은 말
안녕?

나의 성격
귀여운 척을 많이 한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생각엔 에피소드
연인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TV 소리가 너무 컸다.
“시끄러워” 라고 해야 하는데
“아, 친그려워” 라고 했다.

디

나를 회나게 하는 것
밥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못 먹을 때,
지금 식사시간 지나려고 한대(웃음)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
고기



김장혜 베스트 블루레이



“다음 번엔 밤파이어나
좀비로 변신하고 싶다”

주이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영양이
사람들이 크고 엄 되어 있다고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술이 죽겠는데도
티를 하느도 안해서
상대방이 떠난다.





비디에이퍼 히미코

구수 수진



시아

나를 가장 기분 좋게 하는 것
스케줄 끝나고 인터넷 쇼핑 할 때

나의 성격
전형적인 A형



리나아덕보기

키워드로 본 2010~2011 KBL 결산

2010~2011 시즌 우승 팀이 전주 KCC 이지스란 사실은 알고 있나?

올 시즌 역시 KBL은 그저 시궁창이었다. 흥행은 고사하고 농구 팬의 축제가 돼야 할 플레이오프도 심판 판정 때문에 개소리 가 끊이지 않았다. KBL의 다사다난했던 지난 6개월을 <투키> 조한일 편집장과 함께 되돌아봤다. WORDS BY 조한일

NBA 세대교체

이창에 오래된 것들은 싸그리 물갈이 하는 거다.

올 시즌 NBA는 2000년대를 지배한 팀들이 플레이오프에서 동년 몰락하며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특히 베테랑 팀들이 앞세워 고구려가며 재반을 구했다. 서부 컨퍼런스 위주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샌안토니오 스프러스는 8번 시드 뎀비스 그리즐리스에 2-4로 앞을 잡으며 앞따라까지 시즌을 잡았다. 1위 팀이 8위 팀에 라운드에서 패한 것은 NBA 역사상 이번이 네 번째다.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LA 레이커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레이커스는 델리스 매버릭스의 서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원한번 패배지 못한 채 0-4로 강제로 시즌 종료당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필 잭슨 레이커스 감독은 자신의 NBA 커리어 마지막 경기에서 36점 차로 패하며 우울하게 코트를 떠났다. 2007-08 시즌 우승팀 보스턴 셀틱스 역시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쉬가 활개친 마이애미 히트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를 대신 뎀비스 그리즐리스, 오클라호마시티 선더, 시카고 볼스 등이 신동강으로 떠오르면서 NBA는 새로운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커밍 썬

코트를 지배한 백전노장 문태중

한 국 나이로 37세인 문태중은 그야말로 백전노장이다. 유럽 무대를 평정하던 시절보다 점프는 현저히 낮아졌고 체력도 크게 저하됐다. 그런데도 KBL에서 그를 막을 수 있는 수비수는 없었다. 그만큼 그의 활약은 놀라웠다. 문태중의 최고 징점은 다재다능함이다. 서울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25점, 14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더블을 달성한 게 좋은 예다. 전자랜드의 부실한 가드진출 대신에 볼 배급은 물론 하프코트 오픈스까지 직접 조율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불붙으면 누구도 밀리지 못하는 독점 폭발력이다. 올 시즌 정규 리그 4쿼터 평균 득점이 가장 높은 선수는 바로 문태중이다. 덕분에 전자랜드는 4쿼터에서 역전승을 가장 많이 거둔 '후반전의 팀'으로 거듭났다. 플레이오프에서도 그의 위력은 유감없이 발휘됐다. KCC와의 4강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문태중은 평균 24.5점, 6.0리바운드, 4.3어시스트로 코트를 날다녔다. 아루 성공률은 무려 62.0%. 그를 상대했던 하승진은 "진정한 슈퍼스타다. 어떻게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엄지손가락 2개를 모두 치켜세우고 싶다"라며 문태중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





‘에미역 군바리-KBL MVP’로 업그레이드된 박상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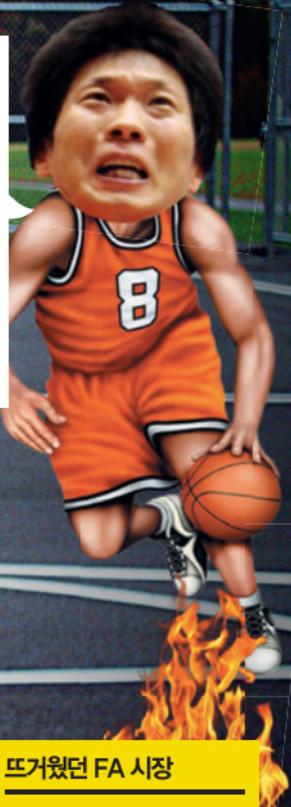
올 시즌 KBL 최고의 신데렐라는 단연 KT의 박상오다. 월드컵이 흥한 2002년 박상오는 선수 생활을 접고 현역 군바리로 변신했다. 하지만 제대 후 은사의 권유로 농구공을 다시 잡았고, 그로부터 몇 년 후 KBL 정규 리그 MVP라는 놀라운 빈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보급형 출신 박 병장은 비시즌 동안 체중을 크게 감량하며 스몰포워드 변신에 성공해 54경기를 개근하며 평균 14.9점, 5.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생애 첫 정규 리그 MVP를 수상했다. ‘KBL 역사상 가장 내일 뺨뺨이 떨어지는 MVP’라는 비아냥거림도 받았지만 개인 기록, 팀 성적 모두 MVP를 수상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196cm의 정신에 딱 떨어진 어깨, 탄실한 하체가 돋보이는 박상오는 외곽, 골밑 가지지 않고 특점이 가능한 포워드다.

투박한 외모와 달리 순간적으로 치고나가는 스피드가 일품이고, 특히 스몰포워드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외곽슛 능력이 현저히 좋아졌다. 박상오는 40.0%의 높은 3점슛 성공률을 앞세워 KT 특유의 모션 오펜스(인적임 플레이를 최소화해 팀의 가장 효율적인 특징 루트를 추구하는 전술)를 살렸다. 스몰포워드, 파워포워드를 오가며 맹활약한 박상오의 활약 덕분에 KT는 단일 시즌 최다승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잘나가던 김승현은 어디에?

올 시즌 역시 코트에서 김승현을 볼 수 없다. 오리온스 구단과의 이면계약으로 인한 법정 소송 때문에 임의탈퇴 처분을 받은 김승현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구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김승현은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미지급 연봉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BL은 11월 11일, OOOOO 선출 대신 재쟁위원회를 열고 김승현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기 에 이르렀다. 김승현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BL을 상대로 임의탈퇴 선수 공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소속팀이 없는 상황에서 6개월을 놓고먹은 김승현의 복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오리온스 구단은 물론 KBL 연행과의 사이가 꿀은 대로 끓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의 복귀를 바라던 팬들조차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김승현이 선수 유니폼을 입고 뛰 마지막 경기는 2010년 3월 6일 전자랜드 전이다. 그로부터 무려 450여 일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사색을 입고 있다. 김승현이 주연인 KBL의 막장 드라마는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뜨거웠던 FA 시장

2011 국내 FA 시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KBL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양동진(인)은 평소 속심 출신 모 비스와 5년, 28억 5천만 원에 재계약을 맺은 데 이어 김성현(안양 한국인삼공사, 3년 9억), 서정환(인천 전자랜드, 2년 3억 5천), 김원중(성원 LG, 5년 12억 5천), 추승균(전주 KCC, 1년 2억)도 연봉 계약 도장을 찍었다. 부산 KT 역시 송영진(3년, 8억 1천), 조동현(3년, 4억)을 모두 붙잡으며 다음 시즌에도 양한 로스터를 꾸밀 수 있게 됐다. 반면, 행성이 결별된 선수도 있다. LG의 조성현, 서울 삼성의 강혁이 주인공. 두 선수 모두 전성기가 지난 나이에 몸값까지 비해 다른 팀들이 영입을 꺼리고 있다. 한편, 대구 오리온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강병철은 은퇴를 선언했다.



0 숫자로 보는 NBA 플레이오프

미국 현지 ESPN 필드들의 덤머스 매버릭스 vs LA 레이커스 시리즈 예상 직종률, NBA 선수 출신인 팀 레귤러를 포함, 존 홀리저, 크리스 셰리던 등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필진 16명 모두가 레이커스의 승리를 장전 바웠다. 결과는 덤머스의 4-0 스텝 승리.



무재배 축구 경기보다 재미없는 지리멸렬 수비농구

KBL에 공격 농구가 실종했다. 준우승을 차지한 원주 동부가 시즌 평균 70.1실점으로 단일 시즌 역대 최소 실점을 기록했고, 리그 10개 팀 중 무려 6팀이 평균 80점을 채 넣지 못하는 빈공에 그쳤다. 각종 불명예 기록도 앞 다투어 쏟아졌다. 지난 2월 11일에 펼친 동부와 전자랜드의 맞대결에서는 양 팀 합쳐 10점에 그치는 최악의 수비진이 펼쳐졌다. 기존 최저 함께 득점 기록보다 무려 8점이나 덜 넣는 대기록(?)이었다. 서울 SK는 이에 질세라 2월 24일 동부와의 홈경기에서 전반전에 18득점을 기록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이 진상 경기를 눈앞에서 목도한 잠실 학생체육관은 팬들의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 차다.

올 시즌 공격 농구가 사라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선수의 체격은 좋아진 반면 실력은 예전보다 줄었고, 감독은 재미있는 농구 대신 눈앞의 성적에 연연했다. 속공에서 무조건 반칙으로 상대 공격을 끊어냈고, 이를 방관한 KBL 연맹도 공격 농구 실종에 방관했다. 이러니 누가 화끈한 공격 농구를 하겠나? 가뜰이나 야구와 축구 팬에게 본질을 열려 속상한 농구 팬은 KBL의 지루한 수비 농구에 속단 타들어갈 뿐이다.

나도 나도 트로피~



역사를 새로고침한 전창진팬 KT

부산 KT는 팀당 54경기를 치르는 KBL 정규 리그에서 41승을 거두며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을 기록했다. 1996-98 시즌 NBA 시카고 불스가 기록한 최다승 기록(72승 10패)보다 다승률은 126% (72/59) 뛰어넘지만 스타플레이어 하나 없이 이룬 성과였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KT는 스포츠월드 김경환의 임대, 주전 가드 표명일 파워포워드 송영진 등 주전들의 잇단 부상, 포워드 김도수, 센터 제스퍼 존슨의 시즌 아웃 등 갖가지 악재 속에서도 정규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자력을 발휘했다. 두 시즌 연속 팀을 40승 이상으로 이끈 전창진 감독은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며 노고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KT는 NBA의 시카고 불스와 달리 원주 동부와 발인 플레이오프 4경에서 1-3으로 완패하며 업셋의 희생양이 됐다. 전창진 감독은 시리즈 탈락이 확정된 4차전 후반에 사실상 경기를 포기했는데 그 덕에 KT 팬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로써 KT는 2년 연속 정규 리그 40승 이상을 거두고도 4강 플레이오프에서 2번 모두 1-3으로 물러는 진기록을 남겼다.



7 숫자로 보는 NBA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기록한 승수. 올 시즌 전까지 맵 피스는 시리즈 승리는 커녕 플레이오프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약팀이었다. 라운드에서 샌앤토니오를 꺾는 이벤트를 일으킨 멤피스는 2라운드에서 코를 리호아시아티 벤디를 상대로 신전했지만 3승 4패로 아쉽게 탈락했다.

통산 5번째 우승을 거머쥔 전통의 강호 KCC

KCC가 2년 만에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정규 리그를 3위로 마감한 KCC는 6강 플레이오프에서 라이벌 서울 삼성을 3-0, 4강에서는 전지랜드를 3-1로 물리치고 3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파이널 상대는 리그 최고의 수비팀 원주 동부. KCC는 홈에서의 이적전을 내주며 불안하게 시작했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87-67, 20점 차 대승을 거둔 KCC는 적지 원주에서 1승 1패를 거둔 후 서울에서 열린 5, 6차전을 내리 잡아내며 통산 5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지난 2008-09 시즌 이후 2년 만에 팀을 정상으로 이끈 허제는 감독으로서 생애 두 번째 우승 반지를 손에 넣었고, 14번째 KCC에서 뛰고 있는 추승균은 개인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사실 올 시즌 KCC의 출발은 좋지 못했다. 하승진이 컨디션 난조 속에 출장과 결장을 반복했고, 추승균은 농구 인생 최악의 11월을 보냈다. 전태풍 역시 슬럼프에 빠졌다. 시즌 첫 18경기 성적은 고작 6승 12패. 순위는 8위까지 폭망 하락했다. 하지만 슬로 스타터 KCC는 시즌 중반 이후 슬럼프를 털었다. 3라운드 이후 놀라운 집중력으로 무려 28승을 따낸 KCC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나가더니 결국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KCC는 전신 현대 시절까지 포함해 모두 5차례 챔피언에 등극하며 리그 최고의 명문 팀으로 우뚝 섰다.



순에 순잡고

이놈의 심판 판정은 도대체 어쩔...

심판의 판정은 코트를 지배한다. 판정 하나에 승패가 갈리고, 한 시즌 농사가 좌우될 때도 있다. 올 시즌 KBL은 심판 판정에 따른 집중이 끊이지 않았다. 어이없는 오심 드립으로 팬들은 떠났고, 안습이던 TV 시청률은 더욱 낮아졌다. 2011년 1월 25일,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의 맞대결에서 경기 종료로 일라는 버저와 동시에 던진 모비스 송창용의 버저버터는 3점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로는 명백한 2점 슈트였다. 결국 LG는 오심 하나로 억울하게 1승을 날려버린 셈이다. 플레이오프에서도 판정 시비는 이어졌다. 특히 KCC와 동부가 벌인 챔피언결정전은 경기 판정 논란의 화수분이었다.

김주성-하승진의 골밑 싸움, 허제-김동희의 자택 대결 등 흥행거리가 많았음에도 뜻밖이 개운치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앙대에서 허제, 김동희 두 감독을 지도했던 정봉섭 전 중앙대 감독은 챔피언결정전을 앞두고 둘에게 "심판의 판정에 깨끗이 승복하라"고 지시(?)했다. 노(老) 감독의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창원 LG와 동부의 대결처럼 감독이 양복 상의를 탈의하고, 선수단을 벤치로 철수시키는 등 두 한번의 추태가 연출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올 시즌 우승은 KCC가 차지했다. 동부가 KCC에 패하며 준우승이 확정되던 날, 김동희 감독은 지원들과 함께 엄청난 양의 소주를 들이켰다는 후문도 들린다.

24 숫자로 보는 NBA 플레이오프

덕 노비츠키가 사부 지구 파이널 1라운드에서 성공한 자유투 개수. 이날 노비츠키는 24개의 자유투를 얻었는데 이를 모두 적용시켰다. 종전 풀 파이어 스가 갖고 있던 24개를 37개나 경신한 NBA 신기록. 노비츠키는 자유투 24개 포함 44득점하며 역대 챔피언 승리를 이끌었다.



진짜 남자의 영화

세상 많고 많은 영화중에 톱툰이 장척한 수컷이라면 꼭 봐야하는
것들로만 MAXIM 편집부가 골라봤다.
진짜배기 수컷 기운을 온몸 가득 충전할 준비 됐나?

BY 편집부



자수지의 개들 쿠엔틴 타린티노는 데뷔작 《자수지의 개들》에서 홍콩 노오르의 단골손님인 권속 액션장면을 넣으며 특성을 증명했다.

현재 감독이 《자수지의 개들》을 찍을 때 나이는 29살이었고, 영화의 촬영 기간은 고작 주일, 제작비는 150만 달러에 불과했다. 《자수지의 개들》은 별도의 음악 감독이 없다. 감독 타린티노가 직접 팝 음악을 신곡에 영화에 삽입했다. 사운드 트랙 역시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한 걸로도 유명하다.

자수지의 개들



콘스탄틴



파이트클럽

VIOLENCE

말끔말끔한 수컷들이 이 영화들로 온 몸이 남성 호르몬으로 휩싸이는 경험을 하게 되길. 그게 안 되더라도 보는 내내 속아라도 뻥 돌리길 바란다. - by 편집장 이영비

콘스탄틴 (2005)

이 영화는 《보이지 않자녀》 내 페는 이미 써먹었다는 출연자의 각색을 써해주는 출연 조장 영화다. 초장부터 담배를 피우며 때만 맡기 한자. 허잔인 결말 무림. 주인공 콘스탄틴의 영향을 죽도록 갖고 싶다면 결국 영혼 갈취 미션에 실패하고 백류만 당해 악이 오른 악마가 "이 상노르스키 오래 살아서 좌나 더 짓고 지옥으로 오라"며 그의 가슴에 손을 짚어놓기 때에 박힌 악마인 피끼기를 시련하게 해준다. 이 마음을 넓은 악마는, 영화 끝엔 주인공이 공연하는 심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영화 내내 보여준 빛나는 깁은 장편과 출연인의 근심을 한류에 내려주는 악의의 선형(?) 덕에 그만 건눈에 안 들어온다. "악마가 병을 고쳐줬어요"라는 반기독교적 설정 때문에 열받은 관객들도. 때 청소 한 번에 열광하는 출연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 그대, 위든 죽도록 하면 살 길이 열리는구나!

자수지의개들 (1992)

"나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빨리 죽길 바라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렇겐 안 되지." 이 얼마나 막무가내인가? 여섯 강도가 일목일목한 색깔오렌지, 핑크, 블루드...로 기명을 짓는 것 외에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개같이 폭력적이고 진흙처럼 보인 해도 몸이 근질근질해진다. 총알과 주먹, 옥두문자가 오가지 않으면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이 남성들을 보며 '남자들에게 싸우면서 친해하는 거야' 라는 어른들의 말에 조금 수긍하게 된다. 비현실적인 유아강박과 반성 없는 잔혹함이 가득한 쿠엔틴 타린티노 영화를 당신시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영화에서 사람 수가 쑥쑥 늘어나는 장면을 보고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다. 귀 귀를 찢고 싶지 않아!

파이트 클럽 (1999)

알्ट인 보고 자기 집에 불 지르고 마냥총처럼 깔깔대면서 수컷끼리의 주먹다짐으로 원시적 남성성을 폭발시킨다. 잘생긴 할리우드 배우 에드워드 노르만 브라드 피트가 삽입이 나뉘는데는 뱀 마디 말보다 영글 타자가거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바, 합 붙자" 영화를 보고 심재로 파이트클럽을 만든 사람도 있었다. 이 영화는 그렇게만 현대사 가 무척 많다. 특히 여자 앞에서 멋진 미모이교자 할 때 써먹기 좋은 대사가 황금어장처럼 펼쳐진다. 에디터가 굵은 최고의 명대사는 바로 이것 "다저 엘스는 왜 해는 자지? 그래야 남짓가? 캄발리인의 노노에 갈다." "이거야말로 운동은 중용하는 여친에게 쓰이발할 수 있는. 당신시 찾던 그런 말 아니더가?"



로보캅(1987)

현재는 이 형님이 진짜 남자인 줄 알았다했지

내 집에서 '머더 퍼더 기브 미 힐 달러, 저기 싼로오.' 란 구절을 하계한 번역에는 금속 광택 로보트 경찰의 비우연은 정말 멋졌다. 특히 중요 부위를 가져가 같은 달개를 써워 부각되지 않게 한 디자인은, '저 안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 들었기에?' 하는 궁금증이 들게 만든다. 로보캅이 악의 무리를 처하는 과정에서 서바이벌 불필요하고 무자비한 잔과 처량 파괴 인간이라고는 없는 냉정한 처형장기

가 아니라) 등은 도대체 그가 정의를 지키려는 건지, 인간계를 쓰러지려는 건지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다. 어쨌거나 "자-죽인다"는 단순한 계산으로 부조리한 경찰과 부도덕한 기업인 경 등을 과잉감시하는 장면은 속이 시원하다.84년 무적의 히어로 로보캅이 악당이 온 흥에 넘어서 뒤집힌 바쿠림래처럼 악간 바당대는 장면은 좀 부조리했지만 알다. 참고로 "로보, 카이-오, 투" 연 다크 로보캅과 처한 원조 로보캅의 대결이 나오고, 3편에서는 로보캅이 하늘을 나는 기차를 일고오기 사투리로 로보캅이 인간계으로 곤죽을 쓴다.



엄연 더머



패밀리맨



포커 독 밀하는 강아지가 신기한 새래는 재능지전 여행가 찰스 언츠의 비행선에 있던 개사기들은 진짜 개로 갔다. 특히 개견을 걸고 포커를 치는 장면이 인기. 한 늑대는 개 목걸이 뒤에 에이스를 숨기고 있기도 했다. 이 장면은 1900년 미국의 화가 캐서스 마르셀러스 콜리지가 미네소타의 한 광고회사의 의뢰로 그린 16점의 개 그림들 중 몇몇과 유사하다.

실제로 풍선으로 집을 띄울 수 있을까?

극 중 칼의 집이 땅에서 뿜어 해를 솟아오르는 장면에 등 장하는 풍선의 수는 무려 20627개. 하지만 제작비에 제한된 바로는 실제로 집이 떠오르려면 2천만개는 안개 가량의 헬륨 풍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ROMANCE

남자라면 속 시원하게 지르며 살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도는 생각하며 지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골라냈다.

—BY 에디터 유승민

덤 앤 더머 (1994)

도대체 차면이 뭐길래, 까질때 보일까봐, 쪽팔려 보일까봐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게 오히려 짜짐 인자로운가. 천 덤 앤 더머 콤비의 삶이 우리보다 훨씬 즐거워 보인다. 첫눈에 반한 여자를 찾아 스쿠터를 탄 채 로키 산맥을 넘고, 돈바락을 찾아 원 없이 돈도 써보고, 꿈에 그리던 그녀를 만나 키스도 한다. 말도 안 된다고? 저런 짜짐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모름지기 인생이란 자처하는 사람의 몫이다. 못생겼다고 걱정 말고 즐기며 살아라. 이들보다 잘생겼던 이들보다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높단 얘기가 더욱 들리더마 살아라. 인생은 결국 남지답게 지르며? 사는 게 중요하다.

업 (2009)

칼과 엘리 부부가 파타디스 목포로 떠나는 꿈 하나에 서로를 보듬으며 고단한 현실을 버티는 모습은 우리네 인생과 다르지 않다. 어찌피 인생은 우리가 기대한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과정 자체가 하나의 카타르시스이다. 자신의 마지막 여생을 아내와의 오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홀로 떠나는 칼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 한 결말을 의미한다.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라도 상대의 소망을 이뤄 주고픈 사랑과 함께 하는 삶, 그리고 그런 상대가 되는 살아야말로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진 짜 이루어야할 목표일 지도 모른다.

패밀리맨 (2000)

최고급 펜트하우스와 패밀리, 파티장의 늘씬한 미녀들 MAX에서 보던 남자의 로망을 싹신한 재형하며 지내던 책 하지만 이 모든 건 9년 전 사랑하는 연인 케이트를 차로 도괴로 나와 얻은 거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찾던 그녀는 물론 두 아이까지 세트로 내쫓아내려 누워 있으면 어쩔 텐가? 실상가상 나는 타이어 세팅즈맨 이고, 화요일 저녁 불침 무덤이 낙인 광범한 남자로 뻘뻘하면 생육이 절로 튀어나오는 상황 이지만 그는 일면단심 성공비자로 살 때 몰랐던 가족의 포근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갔을 때 느끼는 절망감이 광범한 남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일과 나랑, 나랑 일... 진짜 남자의 성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조강지처에게 질려라고

SPEED

아수 같은 남자가 시종일관 당신을 몰아 부친다. 그 남자의 박력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거다. 이런 게 바로 진짜 남자 영화다. —BY 에디터 유승민



애니 기타 선데이



엔스토퍼블

엔스토퍼블 영화를 연출한 토니 스캇 감독은 2009

년에 개봉한 (영화 123에서도 덴탈 워싱턴과 지하철을 소로로 다룬 적이 있다. 무려 연달아 2건이나 기차 소재 영화에 매달린 셀 토니 스캇은 영화에 등장하는 기차를 실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하는데 큰 공을 들였는데 일반적으로 불투스크리나 미니아처 촬영을 하는 것에 비해 굳이 100만 톤이 넘는 실제 기차를 이용할 것을 고집해 기차 역구가 마루는 의혹에 휩싸였다.



소원을 말해보!

MAXIM이 6·25 육십일주년을 기념하여
아주 쓸 데 없는 인터뷰를 해 봤다. BY 김민욱



소원 공유하기



이병 고문관 군

먹고 싶은 음식은? 건프라이크입니다. 고함
이 한 술갈 땀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건프라이
크는 별의 상징입니다.

하고 싶은 것? '입수 보행' (주머니에 손을
꽂고 막사를 활보하는 행동)으로 상병장 이상
만 할 수 있다고 소대에서 '누워 있기'입니다.

소원이 있다면? 지금은 100일 휴가입니다.
유령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촛스
럽다고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일병 (군생활) 안보여 군

먹고 싶은 음식은?
냉동식품, 치킨, 피자, 자장면, 삼겹살. 말하자
면 끝없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것?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 그리고 휴가
때 민간인처럼 보이게 해줄 밋 아이템

소원이 있다면?
휴가 나가서 놀이동산에 가고 싶은데 갈 사명
이 없지 않습니다. 여친 좀 주지 말입니다.



(언제나) 장박허 상병

먹고 싶은 음식은?
음식은 말고... (뭐? 뭐) 굴이 골자면 스파
게, 티 골자면에 놀인 입술.

하고 싶은 것?
A급 전투화, 반박허리는 군화로 민간인들의
눈을 끌게 하겠다.

소원이 있다면?
직업, 장모, (와수 지역 이동)를 해서 클럽에 갈
생각입니다. 요즘 먹어를 사제 스타일에 뭐지?



(언제 좀) 내비튜 병장

먹고 싶은 음식은?
그저 날 야기서 꺼내시오.

하고 싶은 것?
군용품은 줘도 싫다. (해디터의 아이훈을 만지
작가리) 이런 거 얼마나 하나요?

소원이 있다면?
제대 말년 휴가를 나갔으면 좋겠다. 아직 머리
가 짧아 걱정이다. 사회인 길아 보이는 아이템
이 없을까나눔?

이구동성으로 군인이 원하는 건 간단했다. 제대 아니면 휴가, 혹은 휴가지에서 만난 쪽방한 언니들이었다. MAXIM에서 탈영을 알선하진 못해, 선물을 준비했다. 휴가 때 여친을 사귀 수 있도록 스타일에 화용점정을 찍어주는 것

패션 개발 업체 '가비라나'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휴가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실험에 참가한 병사들의 작업 성공 노후를 공개한다.

MAXIM L I R

고문관 이병의 수상록

2월 13일 금요일 정유기 - 건배레이프를 연드면서 그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MAXIM에 알려준 데잔은 남자 스타일 벵으로 웃을 짓고 기쁨까지 쓰니 그 밑에 정말 애어주는 제 모습입니다. 영수 보랏빛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기다립니다. 랭북레 눈물이 납니다.

2월 14일 토요일 - 어찌 짝이 가지 않잖... 어찌 그녀는 수줍게 초콜렛을 내밀었습니까. 미끼 중매와 같 회의를 마셨습니까... (멜런틴인 특수 의상중... 그녀가 위로... 그녀가 나의 XX를 잡는 순간... 미카 19금... 생각) 그녀와의 어젯밤은 무척 역동적이었으니 기쁩니다. 행복해 눈물이 납니다.



EDITOR SAYS 축하한다. 한방이? 음~ 기록하기 짝이 없다. 이제 겨우 그 생활이 550일밖에 안 남았으니, 그녀의 사랑을 대신해서 고향들이 사랑(?)을 채워줄 것이다. 행복해 눈물이 마구 나지?

TIP: 고 이병의 기법은 2030 STYLE 전체가 샵트 모러한 내 휴혈 토퍼즈 브라운 제를, 갑색으로, 포인트는 살리면서 도해 지 입아 내주릴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



MAXIM L I R

(군생활) 안보여 일병

5월 7일 토요일 - 집 찍고 바로 복이 돌아왔습니디. 애쉬를 커해 스타일로 컷투리고 가발은 써 보니, 저 사원이이지 말입니다. 3명이 나왔는데, 오 명은 '원년'이지, 말입니다. 친구들이 밀어줘서 그나마 가장 세련한 애쉬 페이트로 했지 말입니다. 같이 동문 사파리는 독했는데 말입니다. 그녀가 처한데간? 거 같 단 말입니다.

5월 8일 일요일 - 그녀한테 연락이 오지 않습 말입니다. 어쩌도록 이인지 말입니다. MAXIM에서 책임지길 말입니다.



EDITOR SAYS 그니까 그녀 앞에서 입을 열었기 때문이지 말입니다. 그녀가 티 픽픽 나는 '말입니다' '말투가 뭐 나온 거겠지' 후시 그녀의 질문에 '잘 못 들었습니다!' 까지 한 건 아니겠지요? 그럼 연애는 안 가지 말입니다.

TIP: 안 이병이 적용한 기법은 백인피 필, 상하류 동양인 그레 게 적합한 아이템이었다. 단, 얼굴이 밝게 된 경우 베이비 펴름 피할 것. 잘못하면 '전원피가' 될 수 있다.



MAXIM L I R

(인제나) 썩박허 상병

6월 19일 일요일 - 직방 데 간남으로 전도를 갔다 왔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MAXIM에서 좀 가발과 가발나라 사이머로 모였어 공리한 데로 구입한 회 상을 가져와라고 했다. 콜업으로 하였다.

MAXIM 글레이즈 스타리! 쪽쪽 뿜어 언니들이 먼저 낄을 견어왔다. 난 순수한 토적은 BMW 엠본색이 아닌 평의를 실수인 칙 죽였다. (내 차는 60밖에 없다.) 출중한 용가의 언 니가 웃음을 날렸다. 변도 줄 따는 데 성공! 다음엔 그녀와 스페타리를 먹을 것이다. 역시 난 안 죽였다.



EDITOR SAYS 아니 난 죽었다. 위수 지역 이업을 만천하 여 밝혔으나 나는 그녀도 알고 영창도 안게 될 것이다.

TIP: 글레이즈로 재인한 것은 전체가 더 나리리트 열로유. 요즘 아이돌 필수 아이템인 글레이즈 조영이 바피 때다나 다량 눈노기를 쥘 지시온 침중시킬 수 있다. 넌 어찌. 비행의 G-음 가리 앞에서도 볼 줄 뽑게 될 것이다



MAXIM L I R

(인제 좀) 내비티 병장

8월 20일 토요일 D-56 - 휴가다. 친구가 컴프로로 놀러간다. 고맙다. 사회 인처럼 보이려고 약복을 입었다. 친구가 때렸다. 제재하고 싶다.

8월 21일 일요일 D-55 - 미니북 쓰러지가 협한(?)박을 가발이 생각해서 쓰고 해병으로 하였다. 이거, 많지도 않고 3분은미? 겁나 제재하고 싶다. 아...!!...

8월 22일 월요일 D-54 - 바닷가에서 우연히 학교 후배를 만났다. 며칠 전 남 침을 군대로 보냈었다. 끝났다. 군 생활에 대해 상담해준다는 핑계로 거뭇한 왔다. (문음으로) 상담해줘라지! 2명이 먹이나 같이 데해어. X나 제재하고 싶다.



EDITOR SAYS 오늘 너와 글집 그녀에게서 이병영이 그토록 울고불고 하던 그녀일지 모른다. 대신 고문관 이병에게 따듯한 한마디도 해줄 것 꼭디라 침가모도 한번 하라해주시

TIP: 제재를 앞둔 이 병장은 생각보다 머리커라이 같았다. 머머 리에 더 힘을 주려는 의미로 '알리자 머리' '유아메트릭'을 추천하였다. 역시 박학은 머리 좀 율날려 줘야지



군인들이 패션 가발로 로망을 이루는 게 어때?
 가발부에는 전투모 62호, 대갑 병장을 위해 가발이 사이즈 별로 모두 준비되어 있다.
 또, 패션 가발 외에도 애지 애지 있는 가발, 트렌디한 슈즈, 가방,는 의류 등의 패션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 전 **가발부**와 **출발이**를 이용해 완벽한 스타일을 구성해보자.

이름 지금 전화해
 1588-8683

NAVER 검색창에 **가발부** 를 쳐 보세요!

Sunglass Revolution

어름, 태양, 해변... 그녀들의 옷차림에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출렁인다. 몸에 걸친 옷의 면적을 점점 줄이는 살신성인으로 과감한 개혁을 이끄는 그녀를 보니 뜨거운 동지애가 불독불독 솟구치지 않나. 그녀와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오랫동안 사랑해온 레이벤티를 벗고 진일보한 새로운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얼굴에 걸치자. 물론 이글이글거리는 눈동자를 감추기에도 적격이지.

BY 고정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① 선홍색이 정라색이다. 탠덤안경 다리엔 걸린듯한 하이리 무늬로 포인트를 줬다(안경알 색: 갈색)

170,000원 대 오후루 by 빈도광학

② 금색 포인트를 주도한 브리지의

포스가 남다르다(안경알 색: 갈색)

680,000원 톨푸드 by 세원 I.T.C

③ 엑스저로 피어 인트 린 디자인이

멋스럽다(안경알 색: 밤색 그라데이션)

560,000원 톨푸드 by 세원 I.T.C

④ 흔한 레이벤티 스타일이지만

나을경무늬의 링이 신선했다.

(안경알 색: 갈색)

455,000원 로스 by 윌티칼 터뷰유

⑤ 흰색 베지에 빨간색 포인트가

신선했다. 최근 나온 동양인 크에도

미치지 못하진 않고 참바늘이다.

(안경알 색: 갈색 그라데이션)

215,000원 카레라 by 사필로

⑥ 광범한 테두리와 금색 장식 눈썹을

담았더니 새로운 단자인으로 거듭났다.

(안경알 색: 갈색 그라데이션)

430,000원 꾸비 by 사필로

⑦ 다리 부분에 지퍼 모양으로 멋을 내

신스있는 젊음을 만든다.

(안경알 색: 갈색 그라데이션)

330,000원 일마니 by 사필로

⑧ 동그란 모양에 투명한 베개가

개구지다(안경알 색: 남색)

375,000원 입셀로왕 by 사필로

STYLE

① 금지라한 패대에 선명한 노란색이 어떤 장식보다 더 낫다(안경알 색 녹색)
400,000원대 셀린노 by 세원 I.T.C

② 린(안경 알 테두리)과 림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독특하다.

(안경알 색: 갈색 그라데이션) 400,000원대 존 갈리아노 by 다리인타네세남

③ 빛을 받으면 테 아래부분의 검은 반사무늬가 도드라지고 내부의 새하얀 속살이 살짝 보여 청량하다.

(안경알 색: 밤색 그라데이션)

500,000원대 몽블랑 by 다리인타네세남
④ 핑크크 위에 생크림을 얹은 듯 한 색 배합이 당당하다.

(안경알 색: 갈색)

200,000원대 풀후먼 by 반도광학

⑤ 국방색 선글라스에 칭 칭상을 더했더니 패셔너블해졌다.

(안경알 색: 올리브색 그라데이션)

590,000원 셀린노 by 세원 I.T.C

⑥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진 패더기 새롭다.

(안경알 색: 갈색)

115,000원 루 스텍스 by 올리칼 더블유

⑦ 컬러 재료가 모자랐어? 특이한 디자인이 도전의의를 불러일으킨다.

(안경알 색: 감장색 그라데이션)

300,000원대 알로 X 온지

⑧ 세련미와 터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안경알 색: 갈색)

380,000원 올리스 by 세원 I.T.C





◀ 여
매달 느낌의 상의
99,000원 코데조 캠퍼인
보라색 비키니
198,000원 캠프클라인 언더웨어
은색 밑구두
49,000원 슈즈원

▶ 남
하늘색 셔츠
118,000원 타이힐피거
면 소재 반바지
148,000원 프레드페리
피란색 플리 스웨트셔츠
620,000원 테크노마빈



▲ 여

체크무늬 비키니
125,000원 윌퍼가데님
데님 소재 구두 89,000원
자켓 by 스페이스칼라
비비터 진 700mL
33,000원 레르노라카 코리아

◀ 남

파올라는 곰이 그려진 티셔츠
45,000원
미싱카 by 스페이스칼라
무릎 길이 데님 소재 바지
148,000원 윌퍼가데님



촬영장
승려타기

▶ 남
크림색 반소매 티셔츠
145,000원 씨피컴퍼니
인더터리 팬츠
69,000원 스파이시칼라

▶ 여
골드 목걸이와 반금
78,000원, 25,000원 모두 헬문
링에 비키니
59,000원 겹
지퍼를 끈까지 풀리면
펼쳐지는 차마
179,000원 보브
허벅치의 울피 무늬가
포인트인 구두
39,800원 슈즈원



백두 모양의 귀걸이
15,000원 헬콘
프린팅 달린 비키니
에디션 소장
별 무늬 반금
10,000원씩 스파이시컬라



▶ 여
골드 목걸이
78,000원 행크
강장색 수영복
168,000원 캠프클라인 언더웨어
구두 40,000원 데 마리오

▶ 남
리안제 반스패 티셔츠
58,000원 힐미가데님
무릎 찢개산끼
워싱이 돋보이는 청바지
299,000원 지스타보우
다양한 색상의 조리 슬리머
45,000원 사누

장소: 협찬: 해밀톤호텔
수영장(서울 아리안)
고품격 수질을 자랑하는
클럽 풀로, 20~30대
스타일리시한 선남선녀로
가득하다. 5월 28일
오픈하여 6월 29일엔 오픈
파티가 열릴 예정이다니
달력에 빨간 동글뿔이 사내

Summer Time



한여름에도 목을 즐라매야 하는 당신에겐 시원한 아이스 커피와 시원해 '보이'는 타이가 당장 필요하다.
(미안하다, 시원한 소재의 타이는 없었다, 해헤)

BY 곁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원
COOPERATIONS 커스텀얼로우, 지이디, 타이탈피개(02-540-7764) 프레드레리(02-347-729)





On Vacation

피서지에 챙겨 가야 할 화장품 리스트

공형 검색대에서 들켜버린 나만의 피서지 피부 관리법.
BY 그래픽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1 뷰티볼 스킨

비티리안 로즈 스킨 미스트

여성스러운 패키지에 놀라지 마라. 처음에는 장미 향이 강하지만 금세 파우더 향으로 바뀌니 오성 반향을 자극하기에 딱 좋다. 아미 및 동남 모합을 나설 때 좋겠다. 사워 후나 건조할 때 필수로 뿌려주자

120mL 37,500원

2 비오렘 울름

아쿠아피워 클렌저

거품이 풍부해서 공기만큼 써도 비워 같은 얼굴을 깨끗이 씻을 수 있고, 연도할 때 사용해도 좋다. 연올 성분비 이상해하고 보드득거리면서도 촉촉하다.

125mL 32,000원

3 오르비스

멘즈스킨로션

이것저것 챙기기 바쁜 날엔 이 제품 하나로 끝내자. 스킨과 로션 중간 타입의 반투명 젤로, 끈적이지 않아서 사용한 후에도 쓰듯하다. 심플한 외형답게 무알코올, 무유분, 무향료, 무색소 제품이라 안심이다.

120mL 20,000원

4 오리진스

제로오일 포어퓨리파인터너

시원하고 쉰 느낌에 얼굴의 유분기를 꼭 빼주는 느낌이다. 유분이 많이 나오는 여름철에 쓰기 좋겠다. 일교를 남새가 실은 사람은 두부감이 들지도, 용기 입구가 넓어서 맨손에 과감하게 덜다도 불편당한다. 좀 귀찮아도 화장실에 적서 사용하자.

150mL 30,000원

5 알앤디랩

리뷰브네이팅 옥시엔 페이스 마스크 (모닝 마스크)

덥고 습한 날씨에는 피부 보습에 방해하기 쉽상이다. 게다가 자외선까지 강하게 내리꽂으니 바깥 건조해지고 붉어진 여름 피부 때문에 속상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당연안. 는다. 이 약은은 이제 곧 냉장고에 넣어 차게 해둔 마스크 펴므로 예민한 여름 피부를 진정시켜자. 아침에도 빼고 쉽게 쓸 수 있으며 곧바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4세트입 53,000원

6 오리진스

메이코 어 디피렌스 트리트리먼트

브렌드 베스트셀러 1위 제품으로, 밀라비베로진 상태에 물을 주면 10분 안에 되살아나는 신비의 식물 '로즈오브에리코' 성분이 메이크업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생기 있는 얼굴을 만들어준다. 토너와 아이크림, 세럼 다음 단계에 바로고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하면, 그 직후 있지만 귀찮은 메이크업은 수분크림 따윈 과감히 생략한다. 그래도 눈에 띄게 촉촉하고 건강해진 피부에 일단은 족하다. 나, 피부 미안한 거 같아

50mL 55,000원

7 멘즈 클래식

피트니스 비디리안 젤

이미 바리스는 사귀었고 출신이 같지만 뜻한 때는 여전히지만 화장을 버리지 말자. 오로지 운동으로만 실을 빼려는 의사가 박약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 영보성이 많은 부위에 발라주자. 아사자를 하면서 발라야 효과가 크니 귀찮아도 열심히 문지르자. 다른 모든 스킨 젤보다는 덜 화끈하고 끈다.

200mL 27,000원



COOPERATIONS 프리미 클라씨크(02-514-0993) 오리진스(02-3440-2830) 오르비스(080-301-5282) 클라씬(02-3014-2994) 라네지(02-566-7764) 비오렘울름(02-3497-9703) 멘즈 클래식(02-2086-0163)

8 라네지 울름

선 레포츠 SPF+ PA+++

하루 종일 광택이 있을 텐데 강력한 보름로 피부에 한 막 덮어줘야 자외선 때문에 갑자기 노안이 되거나 여름 땀은 땀 끝은 멍하지 않겠다. UVA와 UVB를 이중 차단하고 맑고 물에 쉽게 씻기 지기 없이 활동할 때 좋다. 단, 자기 전에 꼼꼼히 세척하는 걸 잊지 마라.

60mL 23,000원대

9 클라씬스

블레미쉬 컨트올

한껏 차장하고 기분 내리 나왔는데 속제없이 뛰어난 여드름이나 뿔무지가 눈에 거슬리던 개님때, 물리 타입의 트러블 진정제를 문세 부위에 쓱쓱 골라주자. 아직 피부

바로코 나오지 못한 채 얼얼하고 아플고 있는 눈에게 발라줬는데 아까처럼 잠깐만 걸 보니효는 좋은 듯.

5mL x 2개 30,000원

10 오르비스

모이스트 스트레치 아이 마스크

시트 마스크엔 왜 항상 눈이 풀려 있는 걸까. 내소중환 눈가는 아이크림으로는 부족한데, 그래서 준비했다. 손바닥만 한 바가로 미처 감추지 못한 눈물들의 실을 물러 흘려보내고 주름진 눈가를 딱딱 피부자. 5분만 붙이고 잊으면 끝!

6세트입 25,000원

지도 무노의 토트릭 스킨 팩 928,000원 프리미 클라씨

Hey, Mr. Denim!



지금, 그 치골을 살짝 덮은 팬티와 데님의 완벽한 삼박자.
덥다고 짜증내지 마라. 그녀가 곧 벗겨 줄 거다.

BY 곽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반려견 영양제도 품구평균 228,000원 **캡틴콜라임진**
밴드에 감작한 문구가 적힌 언더웨어 66,000원 **영포리오** 아르미니 언더웨어

▶동북한 색이해진 기본 디자인이라 외외로 무엇이든 **캡틴콜라임** 199,000원 **시라즈**
색색의 스트라이프 무늬 언더웨어 40,000원 **게스 언더웨어**

▶원만한 장식과 워싱, 그리고 편안한 피드감 329,000원 **지스타로우**
츠스라지 없는 굿무늬 언더웨어 38,000원 **타이힐피거**

▶팬티가 다 우스운 건 아니다. 359,000원 **스톤아일랜드**
스트라이프 무늬 언더웨어 38,000원 **타이힐피거**

▶바지는 모두 뒷면, 팬티는 모두 앞면

▶앞바다위에도 죽어도 감정색은 포기 못해 268,000원 **아메세**
별무늬 언더웨어 14,500원 **마루 이너웨어**

C COOPERATIONS <에이퍼(02-346-6948) 지스타로우, 타이힐피거, 시라즈(02-546-7704) 게스, 언더웨어(02-914-0083) 아메세, 캡틴콜라임진, 영포리오, 아르미니, 언더웨어(02-346-7720) 마루, 이너웨어(02-914-0083)>



나이기 스트리처 구희정(25세, 학생)
스트리처는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인기 있다.
실제로 그는 '머리도' 더 잘 어울린다.



닥터마틴 전한울(25세, 윌디메 스테프)
신발 옆에 달린 영쇠고리를 MAXIM 취재진에게
내어준 관대한 남자.



수신시장 스타일 고무장화 김혁(24세, 학생)
이날 비는 오지 않았다. 장화 안에서만 맘으로
대용수가 일어났겠지. 쫄쫄...



엑스피엑스 스트릿 슬림 김옥(25세, 학생)
사계절 모두 소화 가능한 호피 무늬. 하지만
여름에 하이톱은 좀 뽀새날 거 같아.

2011 World DJ Festival

너 오늘 뭐 신었어?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무성해 스템을 밟아대던 그들은
신발부터가 남달랐다. BY 박한우·리, 조유림



주제화 이기훈(26세, 디자이너)
주자정에 차 대신 말 한 마리를 주차시킨 것 같
은 이 수컷은 속옷까지 흰색으로 맞춰 입었다.



아디다스 몬저 라이 오택(30세, 미용사)
복심화 몬저 라이.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엘프시들보다 파피라이 있어 보였다.



"가슴 털
민처봐도 돼요?"

"유 크레이지 걸
경찰 부름요한."



나이기 디트 김경선(22세, 학생)
신민이가 신으면서 유명해진 운동화.
이런 한정판 여자한테 선물하기도 좋다.



르코프 오메이 김현(30세, 윌디메 스테프)
이 남자를 1,000원에 샌드위치랑 커피
파는 건가? 됐어요. 비싸네 안 사요.



광림의 밭 느끼기



LICENSE to **THRALL**

DANICA THRALL

영국을 출렁이게 하는 모델이자 배우,
말을 사랑하는 애미부인, 그리고 우리가
한영 외교 관계에 대해 궁금심을
갖게 되는 이유. 대니카 스톨.

BY **MARIA FONTOURA**
PHOTOGRAPHS BY **ZOE MCCONNELL**



“크고 좋다.” 대니카

스름을 처음 봤을 때 우리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다. 그녀는 가슴이 더 커 보이려고 애써 포즈를 취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 타고난 육체마저 여인은 계속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려 했다. 덕분에 우리의 할인도 함께 상승했다. 그녀는 최근 영국에서 《스트리퍼 대 늑대인간》이라는 과장한 제목의 영화에 출연했다. 작년엔 숨미도 시작했다. 온라인 포커와 모토크로스(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크로스컨트리 경주)를 취미로 즐긴다. 그녀는 더 비빠질 예정이다. 이제 매일 밤 당신의 꿈속에도 들락날락해야 하나까.

그녀의 뺨뾰루면 발가락이 너무 세서해서 이렇게 차체 감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모델 일을 시작하지 8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타고났나 봐요?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린제리 처럼일 때가 옷을 입고 있을 때보다 더 자신감이 생겨요.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나요?

전 말을 사랑해요. 혹시 미술(馬術) 아세요? 말을 다루는 기술을 거루는 건데, TV에서 보면 말들이 거의 발끝으로 경중거리며 코스를 돌거나 하는 거 말이에요. 미술은 영국에서 가장 엄격한 승마 스포츠 중 하나예요. 한박엔 안 했지만 제가 승마에 타고난 자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고를 당한 적은 없나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암말을 사서 배르게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게 질주할 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말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는 순간 제 몸이 왼쪽으로 나가떨어졌어요. 꽤 오랫동안 의식이 없었죠. 그 일로 위험한 승마에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승마에 모토크로스예.. 당신은

아드레날린 중독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있는 바이크의 스로틀을 당기는 기분은 잠시 상태의 말을 질주하게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전 속도가 갑자기 치솟을 때의 느낌을 좋아해요.

온라인 포커도 즐기나요?

배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포커 승부의 열쇠는 인내심에 달린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가치 몇 시간이고 포커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이.. 올인해버리겠어." 아했거나 몇 년 뒤에 제가 미국에서 인정받는 포커 플레이어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

오, 미국으로 건너올 생각인가요?

물론이지. 작년에도 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긍정적이라서 정말 좋아요. 여긴 마치 모든 게 가능할 것만 같은 신세계예요.

당신이 출연한 <스트리퍼 대 특대인간>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화하면서 웃긴, <피라냐 3D> 같은 영화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감이 딱 오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오래 쿠션 시팅에서
500원짜리 등신을 찾았어요"
네 한턱 보시겠어요.



그녀를 영상으로
보고 싶으세요?

대니카 스티

생년월일
1989년 3월 30일
태어난 곳
영국, 런던

그녀를 흥분시키는 것

"헬스장에서 키우게
애니라 하는 일 때문에
몸이 탄탄해진 느낌"

숨은 재능:

"몸을 뒤로 짊어
손과 발로 몸을 잡고
기어다니는 걸 정말
잘한다. 파티에서 인기로
퍼는 나만의 장기다"

나는 괴수다.



초능력에 생각한다면

"내가 버리는 초능력은
오직 하나. 피민가 되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곳 어디에나
달리갈 수 있다"

싫어하는 것

"히트 그린 걸 보면
피부에서 뭔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네. 어릴 때 수영을
주어라 해서인지 같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다."

최후의 만찬

"소시지와 으깬 감자.
사랑한다. 라자나를 먹고
그눔들을 먹을 거다."

MAXIM BUYER'S EDGE

한국타이어, 2011 일본 슈퍼GT 개막전 우승



한국타이어, 2011 일본 슈퍼GT 개막전 우승
한국타이어가 후원하는 한국타이어 KTR 팀이 2011 일본 슈퍼GT 개막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1 일본 슈퍼GT 개막전 결승 경기에서 한국타이어의 '벤틱스 Z307' 가장 칙된 포르쉐 911 GT3R 모델로, 총 22개의 출전 팀 중 1위를 기록했다. 세계 3대 그랜드 투어링 대회로 손꼽히는 슈퍼GT는 최다 차종, 최다 타이어 메이커가 참가하는 일본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로서 한국타이어 KTR 팀이 우승을 차지한 GT300 클래스는 타이어 성능이 승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타이어 메이커 간 기술력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하다.



10만년에 1초도 틀리지 않는 카시오 에디피스

매달 워치 에디피스(EDIFICE) 라인에서 스탠다드 디자인 크로노그래프가 등장했다. 이 전파시계는 시간 맞춤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동으로 시간을 맞춰주는 첨단 기능의 시계로, TV와 라디오에서 사용하는 표준 시간의 전파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시간을 맞춰준다. 가격 EDM-M6000 40만 원, EDW-M6000C 55만 원, EDW-M6000B 47만 원 문의 02-3445-6428

수석 무역의 여름용 와인 피아니시모 미니

여름에 맞는 와인 따로 있다? 피아니시모 미니를 미사하면 여름엔 여름에 맞는 와인도 얻을 수 있다. 피아니시모 미니는 한손에 꼭 들어오는 미니 사이즈로 알레고리 향이 풍부해 바랑스에서 가볍게 즐기며 제각각 제품, 롯데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 4,000 원 문의 02-3014-2065



쌈소나이트, 코즈모라이트 한정판 출시

세계적인 여행 가방 브랜드 쌈소나이트는 코강도 초경량 신소재인 CURV를 사용한 코즈모라이트(Cosmolite) 볼품 색상 모델을 6월에서 8월 까지 한정판 기간에만 판매할 예정이다. 한정판으로 소개하는 코즈모라이트 볼품 색상 모델은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어 여름 휴가철에 알맞은 제품이다. 문의 02-639-7770



해밀톤호텔 수영장, 오픈 파티 'Club Pool Party' 개최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해밀톤호텔 수영장은 이태원 사내가 한눈에 보이는 야외 수영장으로, 스타일리시하고 핫한 20~30대 젊은 남녀가 찾는 클럽 풀이다. 수영장은 5월 28일 오픈하며, 6월 4일 오픈 파티 'Club Pool Party' 가 있을 예정이다. 메인 DJ로 JONNY, GRAVE, Eyo, Uthini의 흥을 고조시킬 예정이니 도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싶다면 서투르자. 문의 02-6393-1247 www.hamilton.co.kr



BULLS ONE의 럭셔리 방향제 레스테렐(L'Estere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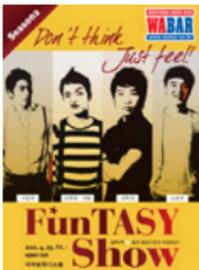
국내 최대의 자동차용품 브랜드 BULLS ONE에서 최고급 차량 방향제 레스테렐을 출시했다. 볼스원은 향수의 낙원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그라스 지역의 천연 에센셜 오일을 직접 추출해서 개발했다. 차량 방향제에 천연 오일 향료를 사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자동차 용품의 럭셔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16,800원 문의 02-792-2833



소니코리아,

바이오F 신모델 출시

소니의 3D 노트북이 국내 첫 출시된다. 16인치 풀HD 디스플레이로 생생한 화면을 즐길 수 있는 바이오F 시리즈 신제품은 소니의 혁신적인 3D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3D 기능을 선사한다. 3D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F 시리즈(F27)는 블랙 컬러 모델이다. 가격 3,498,000원 문의 080-777-2000



세계맥주전문점 와바, 언버벌 퍼포먼스 '핀타지' 티켓 증정 이벤트

세계맥주전문점 와바가 5월 언버벌 퍼포먼스 (엔터테인먼트)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그연 입회멤버의 첫 연출 작품인 FUNTASY(핀타지)는 어떤 직 공과 희극에 대한 향수를 마음, 버블, 댄스, 마술 등을 통해 온나버스 형식으로 연출하여 감동과 재미를 전한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 마술사, 버블 아티스트, 스윙 댄스 등 실력자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와바 홈페이지(www.wabar.co.kr) 또는 아이폰용 와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젠티'가 문 내 생애 가장 멋진 날의 모습'에 관한 사연을 남기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티켓을 증정한다. 5월 23일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총 100명(인) 20매의 당첨자를 발표한다. 문의 058-0581

울어름은 런닝화가 대세, 퓨마 YougoRun

2011년 새롭게 출시된 YougoRun은 가벼운 러닝에 가장 적합한 초경량성 런닝화로, 이전 시즈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가벼운 에어 메는 최상의 통기성을 제공하며, 견뢰하여 깔끔한 어퍼는 진정한 스포츠 라이프스타일에 적당하다. 가격 99,000원
문의 070-1072-6544 www.puma.com



아이폰에 가장 잘 맞는 인케이스



애플의 최고 파트너 인케이스에서 스냅 케이스를 출시했다. 인케이스의 스냅 케이스 무게는 약 11g으로 아이폰4와 관련한 인케이스 중 무게가 가장 가벼워 청밀 가공된 물딩으로 완벽한 피팅감을 선사한다. 이전에 새로 출시된 아이폰4 화이트와도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가격 5만 원
문의 www.incasestore.co.kr

반스의 SK8-HI와 함께 보드를 타자!

반스 아이-10들에게 정통적 자질을 받고 있는 스타디얼라 아이폰 SK8-HI가 새로운 컬러를 출시했다. 그린, 블루, 블랙, 파플, 블루&블랙, 화이트&블랙의 6가지 컬러로 무장한 SK8-HI는 데님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마스트 헤브 아이폰용 지니 장갑이다. 남서 공용으로도 출시해 커뮤 스포츠로도 제각각 반스의 SK8-HI 라인 제품들은 반스 로드족과 전구 ABC이들에게서 만날 수 있다. 가격 99,000원



맥캘란, MOP II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싱글 몰트 위스키 맥캘란이 세계적인 사진작가 길버트 왓슨과 협업하여 'MOP II (Master of Photography II) 리미티드 에디션'을 국내에 출시했다. (영화 게이샤의 추억, (김철)을 촬영한 일러스트 왓슨이 여행길을 테마로 도톰의 흑백사진을 촬영하여, '맥캘란 20년'에 리얼로 새겼다. 국내에는 50명만 들어올 예정이다. 맥캘란을 사랑하는 애호가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가격 120만 원
문의 02-3468-4605



사필로 코리아, 'Latest 2011 Eyewear Collection'



85년 역사의 럭셔리 아이웨어 사필로 코리아가 지난 4월 25일 한남동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Latest 2011 Eyewear Collection'을 소개했다. 럭셔리 브랜드부터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와 클래식 라인 유니섹스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2011년 트렌드를 한 눈에 만나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날렵하면서 스포티한 라인으로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우스 브랜드인 '카베라'를 함께 소개했는데, 국내 구매가 어려워 아쉬워했던 매니처와 일반 대중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02-514-9006

방수카메라의 원조 '올림푸스', 더욱 강력해져 돌아오다!

올림푸스의 새로운 아웃도어 카메라 TG-810은 별도의 방수 하우징 없이 물속에서 고화질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야외에 -10°C 방한, 방진 기능은 물론 촬영된 국가와 지역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GPS 기능까지 갖추었다. 이제 언제 어디서든 레저와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면서 사진을 담을 수 있다.
가격 428,000원 문의 02-1544-3200



김코, GP 125i 2011년형에 이어 익사이팅 R 500i 출시

김코는 지난 4월 스포티한 도심형 스쿠터 GP 125i 2011년형 모델을 출시한 데 이어, 프리미엄 빅 스쿠터인 익사이팅 R 500i를 6월 5일에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김코는 대만 굴지의 스쿠터 제조사이며, 전 세계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에서는 연간 20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전자 제어 인젝션 수평식 4스토크 2단 700cc 엔진을 채용했으며, 최고출력 35.0마력(25.700rpm)과 최대토크 4.22kg·m(5000rpm)을 발휘하는 익사이팅 R 500i는 5월 이후 입고될 예정이며, 김코 대리점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출시 전 선주문 고객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롱 케어 서비스를 증정한다. 가격 GP 125 288만 원, 익사이팅 R 500 286만 원 문의 바이크코리아 1600-6360

리바이스 아이웨어 LS02053Z 출시



태양이 직격하는 6월, 거리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지나가는 이들을 보면 좌다 같은 모양일 뿐 개성이 없다. 리바이스 아이웨어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LS02053Z 제품은 보링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호피 부티를 실력 섹서 포인트를 줬다. 은은한 파를 컬러로 그려대어 선 텐 렌즈는 눈을 더욱 편하게 만들어주어 시각 보호 효과도 발휘한다. 가격 20만 원대 문의의 02-566-6940



루미녹스, 한계를 넘는 방수 기능의 '딥 다이브 150'

루미녹스의 '500 딥 다이브 시리즈'는 전설적인 스쿠버 스탠 워터맨(Stan Waterman)과 미국 해군 경비대를 통해 그 진가를 인정받은 시계로 Norm ISO 6425 테크스를 통과한 500M 방수기능, 별도의 동력 없이 밝은 빛을 약 25칸 유지하게 해주는 빌광 테크놀로지와 함께 정교한 스위스 멀티주얼 쿼츠 무브먼트가 자리잡고 있다. 가격 22,800원 문의의 02-757-9886 www.luminowatch.co.kr

옵토마, 고광도 3D 프로젝터 EX784 출시



전 세계 프로젝트 선두 브랜드인 옵토마는 교육 및 비즈니스 시장을 겨냥해 대형 회의실에 최적화된 고광도 3D 프로젝트 EX784를 지난 5월 7일 출시했다. 화이트 스크린이 아닌 실론에 투사하더라도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하며 밝은 강압에서도 도란한 영상을 볼 수 있다. 부가적인 손상 없이 3D 안경으로 생성한 인쇄 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고품격 스피카를 탑재해 생생한 음향을 지원한다. 동시에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원격 제어할 수도 있다. 가격 25만 원 문의의 02-6250-9800

와콤, I-Pad용 펜 출시

태블릿 전문 기업 와콤에서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펜 액세서리인 탭부 스타일러스를 출시했다. 기존 방식인 필립 방식이 아니라기 때문에 종이 필름과 스케칭 드로잉을 포함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세면 필름의 메탈을 적용한 바다에 물결과 실바의 조화가 세련된 제품이다. www.wacomkorea.com



VIBE BS, 진동 이어폰 BS-80S1 출시 기념 이벤트

진동 이어폰의 선두 주자 예뻐콜에서 VIBE BS의 새로운 아이폰 808을 출시했다. 50 밀리미터 4D 중저음이 강화된 인쇄 음향을 지원하여 음악, 게임 영화 등 어떤 콘텐츠와 디바이스에서도 짜릿하게 즐길 수 있다. 도스 출시를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든 도스 제품 구매자에게 아이폰4 발매기간의 선물을 선별하며, VIBE BS 선속 모델인 강아이가 공연하는 흥대 NB 클럽 파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응모 기간은 5월 27일(수)까지. 이어서서 구매하기나 신청하면 가격 38,000원 문의의 1688-9439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발베니 빈티지

싱글 볼트 위스키, 그중에서도 보리를 키우고 맥아를 가공해 술로 빚고 담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손으로 만드는 유일한 위스키 발베니. 그 빈티지와 리미티드 에디션이 한국에 도착했다. 발베니는 전 세계로 판매되는 위스키 중 가격대가 가장 높은 수제 위스키로, 원산지 영국에서 도 상류층을 위해 소량 생산하는 제품이다. 가격 파티드 캐스크 7년 25만 원, 빈티지 라인 제품 25만 원대 문의의 02-2622-6000



맛있는 스파클링 에너지 드링크 '번 인텐스' 국내 상륙

코카콜라사는 세계적인 에너지 드링크 '번 인텐스(Burn Intense)'를 지난 2월 국내에 출시했다. 강렬하게(Intense) 타오르는(Burn) 내 안의 에너지 라는 뜻이 담겨 있는 '번 인텐스(Burn Intense)'는 특 쓰는 탄산과 상쾌한 맛을 지닌 음료로, 각종 에스과 에너지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 1,000원(편의점 기준) 문의의 070-6940-2092

L'ORÉAL
men expert

와 함께 하는

MY SKIN IS NEVER TIRED
Even after partying all night!!

THE MAXIM PARTY

Music by
AstroVoize

Dguru / Gon / Drill / Hyde
Insidecore and VJ SIN

escape
lorea

2011.06.25

@ Club

ANSWER

gates open at 10:00pm



cover 30,000won

reservationsVIP 01089788017

Exclusive!
Maxim
Gift Bag
Package

Free
Giveaway

by ALO
L'ORÉAL PARIS

Experience

L'ORÉAL
PARIS
men expert



HYDRA ENERGETIC
이도라 에너지틱 멀티액션 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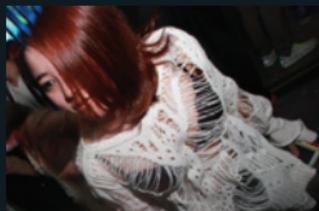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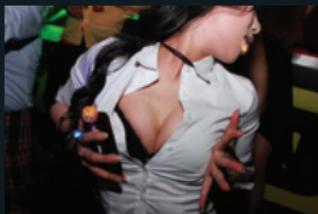
아근, 울주, 흡연,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를 위한
에너지이징 수분 로션

울나잇 파티 후에도 생기있는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MY SKIN IS NEVER TIRED!

MAD PARTY

CLUB



About JERSEY SH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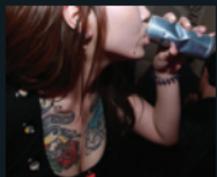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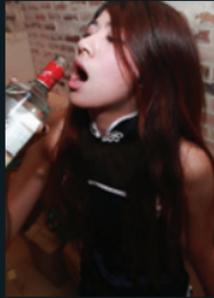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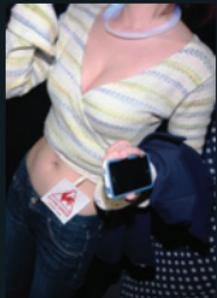
아직 피가 끓어오르는 20대 남녀 8명이 한집에서 지지고 볶는 즉나리한 일상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생각만 해도 피곤한 이 쇼는 미국에서 (아메리칸 아이돌)보다 높은 전미 시청률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사실 이런 건 몰라도 되지만) 참고로 이번 파티는 (저지 쇼어) 시즌 3의 국내 론칭을 기념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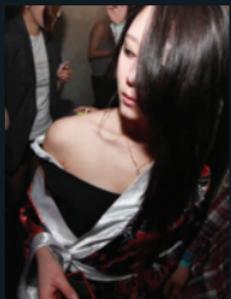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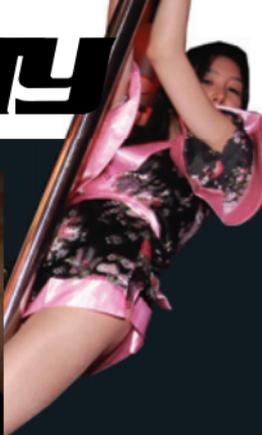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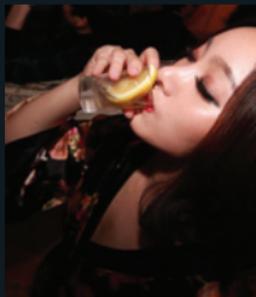
이 순간부터 당신은 동양의 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될거다. 알썬

BY 김희성 PHOTOGRAPHS BY IL photographer
COOPERATIONS CLUB Double EIGHT, **Mave**
2011

ORIENTAL



NOISE PARTY



DRESS CODE SEXY ORIENTAL

드레스 코드는 섹시한 오리엔탈 의상. 섹시하게 리플한 치파오와 아찔한 기모노, 한복을 차려 입은 그녀들과 그녀들을 보러 온 수컷들로 4월 22일 클럽 더블에잇(Duble E8)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섹시하게 나무까는 차맛자락에 정신줄 놓고, 웃기 사이로 슬쩍슬쩍 보이는 타투에 넋다운 될 준비는 됐겠지?



미공개 사진
대만출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JUNE 2011

<p>6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32,400원</p> <p>할인가 29,400원</p> <p>3천원 할인 + 1000쪽 적립</p>	<p>12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64,800원</p> <p>할인가 57,800원</p> <p>7천원 할인 + 2000쪽 적립</p>	<p>24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129,600원</p> <p>할인가 114,600원</p> <p>1만5천원 할인 + 4000쪽 적립</p>	<p>36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194,400원</p> <p>할인가 164,400원</p> <p>3만원 할인 + 6000쪽 적립</p>	<p>48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259,200원</p> <p>할인가 209,200원</p> <p>5만원 할인 + 8000쪽 적립</p>
--	---	---	---	---

➔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 2 무통장 입금(예금주, 주식회사 제외)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68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백=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사은품은 조기 품절되는 경우가 많으나, 끊임없이 새 선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시점의 사은품을 확인하시려면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 성형외과의원

MAXIM



KOREA

STYLE

NIGHT FEVER

선글라스와 여행용 화장품
페스티벌을 위한 운동화

GIRLS

은 영국을 쓰러뜨린 섹시함

DANICA THRALL

MAXIM 독자투표 1위 한가은

MUSIC

오페라스타 정복자 **테이**

슈스케2 김지수

MOVIE

MAXIM이 선정한

진짜 남자 영화 12편

SPORTS

멘탈이 쓰레기인 선수 6인
2011 KBL 결산

MILITARY SPECIAL

한국전쟁 주역 격전지 10걸
SMART COMBAT GEAR
무기의 세계 M-4 CQBR
빈 라덴 잡는 특수부대

SUMMER

올 여름 물 놀음 휴가지
홍가 체험 가이드



JUNE 2011



요즘 가장 바쁜 사나이
ICON: 이병준

www.maximkorea.net